

2022

행복북구문화재단
문화예술담론지

Vol.6

함지

문화예술을 담는 만만한 그릇



문화예술을 담는 만만한 그릇

함지



SECTION 01. 시대를 담다

1. 지역학은 지역문화와 함께 현재진행형!

- 10P 지역학과 지역문화에 대한 새로운 시선 * 오재환
- 18P 지역학 렌즈를 통해 보는 우리 삶터의 콘텐츠 * 이재민
- 28P 유럽문화수도, 체코의 작은 도시 필젠 이야기 * 홍종열

2. K-콘텐츠? D-콘텐츠!

- 36P 지역학, 그리고 D-콘텐츠 * 박승희
- 42P D(대구)-콘텐츠는 살아있다 * 최정수
- 52P 대구는 지금 * 김건표
- 60P 대구, 독립영화의 도시가 되다 * 남가원
- 70P ‘대구근대가요사박물관’의 필요성 * 이동순

#소소한 이야기 #지역문화 콘텐츠를 만들다

- 76P 작가가 밝히는 뮤지컬 <매천시장, 새벽을 여는 사람들>의 집필 비하인드 * 김지식
- 82P 지역성을 갖춘 D(대구) 문화콘텐츠 프로그램 * 최석민

SECTION 02. 기억을 담다

1. 예술인의 발자취를 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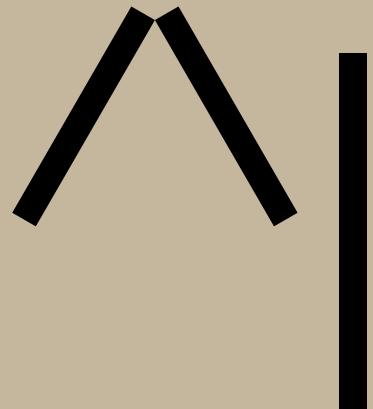
- 92P 지역 출신 한국 최초의 여성 영화감독을
호출하다 * 김중기 / 김상목
- 102P 윤복진과 그의 노래를 찾아서 * 류덕제 / 남지민
- 118P 한국 최초의 전문 연극연출가 흥해성 선생 *
김삼일 / 손호석

2. 답사 기행문

- 130P 향촌동, 피란문학 거리를 걷다 * 조두진

SECTION 03. 패구를 담다

- 148P 남인 예학의 종장(宗匠)이며
실학의 연원 * 이정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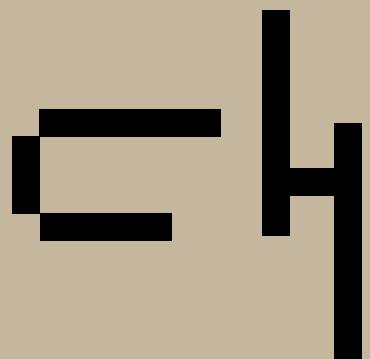
SECTION 01.

시대를 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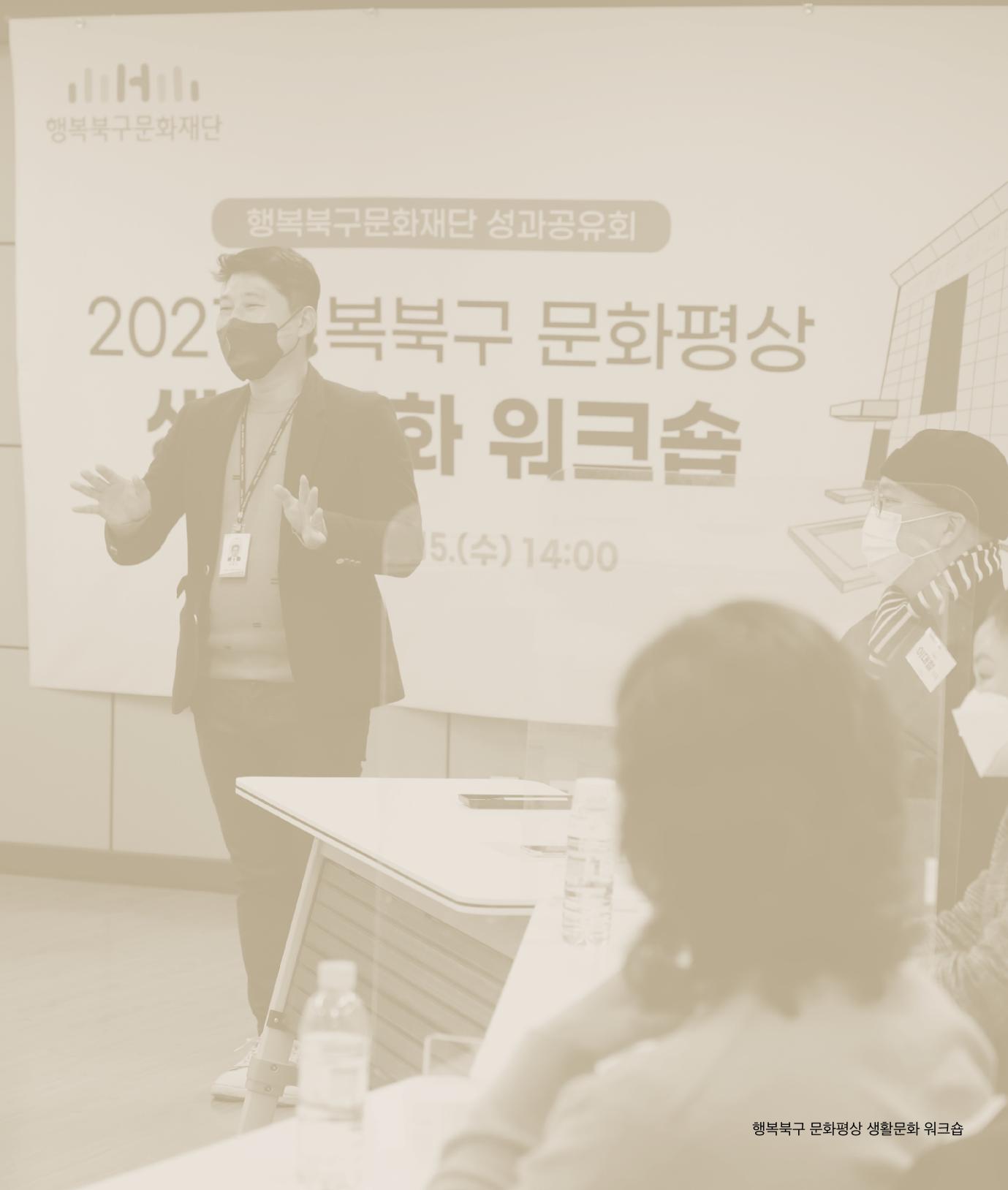
시대를 담다

1 지역학은 지역문화와 함께 현재진행형!

2 K-콘텐츠? D-콘텐츠!



지역학은 지역문화와 함께 현재진행형!



지역학과 지역문화에 대한 새로운 시선

1-1

오재환 (부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오재환

지역학과 지역문화에 대한 새로운 시선

우리는 왜 지역학에 주목하는가

지역은 생활의 공간이자, 삶의 뿌리가 천착한 곳이다. 그래서 삶의 흔적이나 궤적이 온전히 남아 있는 곳이기도 하다. 그러나 여전히 중앙과 대비된 지방 혹은 지역은 아주 멀리 떨어진 변방으로 인식되고 있다. 중심부와 달리 지역의 변방성은 중앙에 종속된 보잘것없는 공간으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저항적인 힘을 분출하기도 하는 이중성을 갖고 있다. 변방이 가진 힘은 카오스적 상태에서의 변화로 중앙을 집어삼키는 폭발적인 힘을 분출하기도 한다. 이것이 지역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지역의 힘은 지역이 가진 고유성과 다양성에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다. 이는 지역의 참모습인 ‘정체성’으로 형성된다. 이러한 정체성에 대한 탐구가 지역학의 뿌리이자, 지역학은 지역을 발견하는 힘이다.

전환의 시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일상의 파괴는 인류의 지속가능성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아울러 인구감소는 중앙과 지방의 격차를 더욱 가속하면서 지방소멸의 위기를 가져오고 있다.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로서의 수도권 팽창은 실로 한국사회의 인구 절반을 집어삼켰다. 수도권 중앙화 현상은 단순히 양적인 면을 넘어 지역의 다양성을 함몰시키면서 질적인 획일화를 부추기고 있다. 인구의 소멸이 지역의 소멸을 가져올 것이라는 위기는 지역이 담지하고 있는 소중한 가치마저도 상실되거나 소멸할 것이라는 불안감을 가져왔다. 그렇지만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는 방안들이 등장하고 있다. 작지만 사소한 것, 하지만 지속가능할 수 있는 미래를 지역과 문화에서 찾는 노력들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이른바 지역의 탄생, 문화자치의 시대적 화두는 중앙중심의 발전 사고에서 벗어나, 보다 다양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한 지역의 새로운 발견이며, 이의 실천이 바로 ‘지역학’이다.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견인하는 지역학

서양의 옛이야기 중에 도플갱어(Doppelgänger)가 있다. 자신과 외양과 행동과 생각이 모두 같은 존재인 도플갱어를 동시에 같은 공간에서 만나게 되면 반드시 둘 중 하나는 죽어야만 한다는 이야기다. 같은 시공간에서 똑같은 정체성을 가진 이가 함께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자주 사용되고 있는 글로벌화라는 개념 속에는 전 세계의 어느 도시에서나 비슷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고 비슷한 사회적 환경이 자리 잡혀가고, 소비행태가 닮아가는 이때 각 도시의 고유성-정체성을 찾고자 하는 움직임이 더 활발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담겨 있다. 이는 도플갱어가 되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는, 어쩌면 지역의 생존 문제이기 때문은 아닐까. 이런 의미에서 지역학의 목적은 지역의 생존, 그리고 더 나아가 지속가능한 미래로의 확장을 위한 기획이어야 할 것이다.

오랫동안 일본에서 지역을 연구해 온 마루타 하지메¹⁾마루타 하지메, 『'장소'론_ 웹상의 리얼리즘과 지역의 로맨티시즘』, 심산출판사, 2011, pp19~62는 지역 생존의 문제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지역의 존재 그 자체를 의심하게 되었고”, 많은 지역이 “자율성과 개성을 잃고 더욱이 병치나 통합 기능까지 쇠퇴한 빈껍데기만 남아” 있다고 직설적으로 표현한다. 일본의 예를 통한 그의 주장을 요약하면 ① 지역 간의 차이가 줄어들어 행정경계로 표현되는 지역 간 격차는 줄어들고 있고, ② ‘패스트 풍토화’로 지칭하는 언어, 행동양식, 생활관습 등 오랜 세월에 걸쳐 이루어져 사회관계자본으로도 통용된 지역의 문화적 자질 동질화가 강화되고 있으며, ③ 지역 경제권이 소멸하고 ④

주어진 지역자치와 지방분권 개혁은 진행되고 있으나, 실제 ‘낮은 주민의 자치의식’과 ‘주민과 지방자체와의 격차’가 커져간다는 것이다. 그의 현대 지역사회에 대한 진단은 불행하게도 한국의 지역사회와의 현실에서도 고스란히 적용되고 있다. 서울이라는 단 하나의 블랙홀을 향해 지역의 모든 자원이 빨려 들어가고 있다고도 할 수 있는 한국의 현실과 더불어 지역의 동질화 현상이 더욱 심각하게 여겨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지역의 현실을 탈피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지역학’이다. 지역학은 지역의 고유한 정체성을 탐색하고, 다양한 형상들을 탐색하고 그 가치를 발견해내는 지역 가치회복을 위한 노력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역학은 다양한 시각으로 지역의 역사, 공간, 문화, 일상생활 등 여러 측면에서 종합적이고 학제적인 연구가 뒤따라야 한다.

지역학은 연구 대상인 ‘지역’ 그 자체의 특성을 발견하고자 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지역학은 여러 가지 개념적 혼란과 정의에 상이한 의견들이 있기는 하지만 귀납적 방법으로 고유한 특성을 발견하고자 하는 특성을 가진다.

이런 차원에서 지역학의 일차적인 목표는 지역의 사람과 문화에 새겨 넣은 흔적을 바탕으로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역학은 앞으로 ① 과거의 전통이나 고유성에 대한 연구보다는 현재의 문화, 특히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주목하는 연구, ② 지역의 이질적 시간과 공간, 문화에 대한 실증/현장 연구, ③ 보다 직접적으로 미래의 모습을 그려내거나 실천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연구, ④ 이러한 연구들을 대중적인 수준에서 기술하며 지역사회와 소통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처럼 지역과 지역

사람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지역학의 방향이 새롭게 전환되어 가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지역학은 단순히 지역의 소재 발굴이나 산업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를 생산하는 작업은 아닌 것이다. 그동안 한국사회에서는 지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하고 이를 산업체이거나 관광에 연결하여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여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보니 지역의 뿌리를 갖지 못한 콘텐츠가 지역민뿐만 아니라 타지역과 차별화에 실패하여 원래의 의도를 살리지 못하고 사라져버린 경우가 하다하다. 지역에 뿌리내린 문화적 가치를 상실한 단순 소재나 콘텐츠로 활용되는 경우 지역이 가진 고유성을 왜곡하는 경우까지도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단순 소재나 콘텐츠로 활용되는 지역의 가치 발굴사업들은 이제 지역민의 삶과 연계된 고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정립하여 지역의 지속 가능한 생존의 문제로 전환되어 인식할 필요가 있다.

지역의 이해를 전제로 한 지역학은 지역을 지역의 관점에서 이해하기 위한 출발이자 지역 지속 가능성의 원동력이다.

지역의 정체성을 탐색하는 과정으로서의

지역학

지역의 정체성은 도시가 가진 고유한 가치와 다른 도시와의 차별화되는 본질적인 특성이다. 지역의 정체성은 지역민들이 만들어 온 문화와 축적되어 온 역사, 공간 등에서 발견되는 그 도시의 이미지를 포함한 총체적인 인식이다. 흔히들 지역 정체성의 확립 또는 지역 정체성의 형성이라고 말하고 쉽게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향은 마치 지역의 정체성이 고정되어 있거나 과거의 특정 사건들로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화석처럼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실제 지역학에서 탐색하는 정체성은 과거에서 미래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지역의 어떤 정신이나 가치가 현재에 (재)구성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그것은 고정된 것도 과거의 사실에 기초하여 현재에 단순히 드러나는 것도 아니다. 지역이라는 공간에서 살아가고 있는 지역민들이 삶 속에서 살고 있는 공간과 타인들과의 끊임 없는 상호작용의 틀에서 작동되거나 일상생활의 매커니즘에 의해 구성되는 것이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정체성은 그 지역만이 가지는 고유한 특성들이 형성되고 변형되는 연속의 과정들에서 드러나는 특징이 된다. 이렇게 형성된 정체성은 그 지역만의 색깔로 드러나 아주 다양한 형상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지역의 정체성을 탐색하는 지역학은 지역의 고유성과 다양성을 발견하는 작업으로 지역 가치와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학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지역문화의 가치와 의미를 탐색하는 과정과 맥을 같이하게 된다.

지역문화는 삶의 구체성을 표현하는 생명체와 같다. 삶의 구체성은 지역이라는 공간에서 살아가는 시민들의 일상적 삶에서 재구성된다. 이는 하찮은 일상의 삶에서 발견되는 구체적인 현상 하나하나의 가치와 의미의 축적이며, 삶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전환시대의 미래이기도 하다. 전환시대의 가치는 자연과의共生, 생명과 공존의 가치를 가지며, 이의 가치가 중심이 되는 경제적 논리가 아닌 인간의 가치가 우뚝 서는 문화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을 만들어 갈 것이다. 이는 경쟁이 지배적이었던 근대적 삶을 벗어나고, 자신을 발견하고, 존재의 가치를 인식하고 행동하게 하는 탈근대적 삶으로의 전환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러한 전환의 시대 주목하게 되는 것이 바로 지역문화이며, 지역민들의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일상의 가치를 탐색하게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지역문화는 이제 일상생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상문화의 본질과 현상들에 주목해야 한다. 부산은 2020년 ‘부산시민현장’을 제정하였다. 부산시민 현장에서는 “문화는 우리 삶의 토대이자 생활양식이다. 인간다운 삶을 지탱하는 힘이며, 시민의 행복한 일상과 조화로운 공동체를 일구는 밑거름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부산문화현장에 담겨 있는 문화의 의미는 지역문화의 가치와 범위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 지역 중심의 문화분권과 시민 주도의 문화주권을 선언하고, 시민의 일상적인 삶과 공동체를 만드는 뿌리가 바로 문화이며, 지역문화의 가치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처럼 지역문화에서 문화적인 삶을 일상에서 실천하기 위해 다양성의 원칙하에 도시의 고유한 특성을 발견하고, 이를 통한 지역문화의 가치를 제고시켜가는 것이 지역학이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



사진 1. 왜관산업단지 내 외국인 가족, 어린이집, 노동자들과 예술을 매개로 이웃이 되어가는 활동을 통한 예술제 개최(출처=칠곡군 문화도시지원센터)

해 지역에 내재된 문화자원을 발굴하고 문화적 가능성을 모색하는 지역학이 되어야 하며, 문화를 통한 지역의 발전과 지속가능성의 실천적 작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역학은 지역의 고유한 문화자원의 발굴을 위해 공간이나 장소의 역사, 일상 생활과 삶의 흔적이 담긴 지역의 고유성과 정체성이 물어나는 무·유형의 자산들의 가치를 (재)발견해야 할 것이다.

지역의 고유성과 다양성의 가치실천으로서의 문화도시

지역학이 지역문화에 내재한 가치를 실현하는 밑거름이 되기 위한 노력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특히 지역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을 극복하고, 지역문화의 가치 실현을 위해 만든 법률이 바로 ‘지역문화진흥법’이다. 2014년 제정된 이 법은 지역 간의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의 고유성에 기초하여 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문화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역문화진흥법은 생활문화 활성화와 문화도시 조성사업, 문화지구지정 사업으로 크게 구분될 수 있다.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 사업들은 지역학의 새로운 관점을 통해 지역문화와 지역민, 그리고 지역자원 간의 유기적인 결합을 통한 지속가능한 문화적 실천사항들을 포괄하고 있다. 지역문화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문화,

생활문화, 문화도시의 정의에는 정체성, 고유성, 다양성, 자율성, 창의성 등 문화적 가치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지역문화진흥법에서 강조하고 있는 문화도시는 참여와 분권, 다양성의 가치가 일상적 삶의 영역에서 발현되도록 하는 것이 주된 사업이다. 문화도시 사업은 민간과 시민 주도의 참여를 기반으로 지역의 고유한 가치 실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를 수 있는 지역 분권의 원칙이 작동되어야 한다. 아울러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다양성의 원칙도 고수되어야 한다.

이러한 가치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문화도시사업’에서도 잘 반영되고 있다. 현재 추진 중인 문화도시사업은 지역의 공동체 플랫폼의 강화, 소모임 활동을 통한 주민문화공동체 형성, 지역민의 참여를 통한 일상적 문화 활동의 지속성을 강화해가는 것 등을 포함하고 있다.

올해 문화도시 2.0을 선언한 문화도시사업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제1차 문화도시 7곳, 제2차 문화도시 5곳, 제3차 문화도시 6곳 등, 총 18곳의 문화도시를 지정했으며, 제4차 예비문화도시 11곳, 5차 예비문화도시 8곳이 지정되었다.

문화도시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의 문화도시 사업을 통해 지역문화의 지속가능성과 생태계 조성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부산의 영도구는 1차 법정문화도시에 선정되었고,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지역으로 지목된 지역이다. 영도는 부산이라는 도시에서 섬으로 남겨진 내륙과 단절된 고립된 소외의 섬이라는 이미지가 강했다. 그러나 벼랑 끝 절경의 마을로만 알려졌던 ‘흰여울마을’이 문화마을로 탈바꿈하며 부정



사진 2. 부산 영도문화도시(출처=영도문화도시센터)

적 이미지를 극복할 수 있었다. 아울러 조선소 아지매들의 망치 소리가 울려 퍼졌던 일터 역시 ‘깡깡이 예술마을’로 변모하였다. 지역의 고유성을 기반하여 창조적 문화예술의 섬으로 변모한 것이다. 영도는 출향 해녀들의 삶의 근거지였으며, 일제 강점기 대륙 진출의 배후 공업지역, 광복 후 귀환 동포들과 피란민들, 근대화의 물결을 타고 들어온 타지역에서 들어 온 이주민들까지 유입되어 문화의 혼종성이 내재된 부산문화의 압축판인 곳이기도 하다. 문화도시 영도는 여러 문화가 뒤섞이면서 정체성의 이중성, 경계성이 모호한 혼종의 문화를 간직한 역사 문화의 태생적 특징을 살려 내일의 영도유산과 도심 해양생태문화 라이프 스타일을 확산하고 있다. 나아가 다양성이 공존하고 공동체 문화가 있는 문화도시로 재탄생하고 있다.

부산의 수영구는 5차 예비 문화도시에 선정된 지역이다. 시민 문화향유와 참여를 위해 ‘10분 내 문화권’을 활용한 일상문화의 향유와 지역문화자원을 활용한 특성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지역문화자원을 활용하기 위해 지역의 문화자원들을 분류하고, 주민들의 삶과 유기적으로 연계된 수영성 일대의 전통문화자원을 현대화하는 작업들도 병행하고 있다. 수영구 문화도시 조성계획의 목적을 보면, 일상에서 시민들의 생활양식을 만드는 문화로 규정하고, 문화가치의 중요성을 증대하는데 있다. 특히 전통과 현대의 공존을 위해 해녀와 포구, 무형문화재인 수영야류와 어방놀이, 지역의 천연기념물을 탐색하고, 지역의 커뮤니티와 책방, 채식, 환경의 고민을 담은 라이프 스타일에 주목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의 고유한 정체성 위기를 극복하는 과제로 문화를 통한 시민성의 회복을 주요 방향으로 설정

하고 있다. 이처럼 지역자원의 분석을 통해 지역이나야가야 할 미래지향적인 방향성과 적극적인 실천으로 사업의 성과를 만들어 지역 정체성을 형성하려는 지역민의 의지를 담고 추진하고 있다.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군산에서도 확인된다. 시민들의 문화역량을 향상시키고 지역 곳곳의 문화자원을 탐색하여 함께 공유하고 있다. 시민들의 문화공유와 공동체의 경험 확장을 위한 공유대학 운영으로 지역 문화인력 양성사업을 병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동네 단위 문화사업을 특성화하기 위해 27 문화스테이, 동네문화 추적단, 동네문화 카페 등의 사업으로 지역 단위의 지속가능한 문화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지역의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하여 특색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여러 팀이 구성, 운영되고 있다. 예를 들면 미군기지로 인해 사라진 하제마을의 팽나무를 동화로 담아낸 ‘하제마을 팽나무’ 팀, 군산의 도시 숲이 가지고 있는 스토리를 카드 뉴스로 소개한 ‘군산의 숲세권을 찾아서’ 팀, 팔마산의 생태를 지도로 제작한 ‘팔마산의 생태’ 팀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활동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지역의 문화자원 조사로 이루어진 성과이며, 주민들의 일상문화는 다양한 형태의 아카이브로 구축되어 군산 문화도시 사업의 중요한 콘텐츠로도 활용되고 있다.

결국 문화도시사업은 지역 문화자원을 통한 지역 가치를 발굴하고 이해하면서 미래 지역발전의 원동력인 지역학의 과제를 지역에서 실천적으로 활용하고, 지역과 문화를 통한 지속가능성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일상적 문화실천으로서의 지역문화와 지역학

문화민주주의는 시민의 문화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민의 문화 참여는 워라밸을 실현하는 첫걸음이다. 각자의 일과 삶에서의 균형을 이룬다는 것은 시민이 자기 삶의 주체이자 동시에 문화의 주체로 살아감을 뜻한다. 시민이 주체적으로 일상생활을 누리면서 일상 속 문화 창조자로 우뚝 서는 것이다. 이제 시민은 단순히 문화를 수동적으로 소비하는 소비자가 아니라 직접 문화를 만들어 가는 생산자로 흔히 말하는 프로슈머²⁾프로슈머 (Prosumer) 또는 생비자(生費者)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역할을 동시에 하는 사람을 나타내는 말이다. ‘생산 소비자’ 또는 ‘참여형 소비자’라고도 한다.로서 자리매김해야 한다. 지역에서 발현되는 문화의 다양성을 통해 지역문화 콘텐츠를 소비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콘텐츠를 주체적으로 생산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문화의 일상적 실천이 가능한 창조적인 문화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문화시설이나 공간 등 생활 속 문화 인프라뿐만 아니라 지역의 고유한 문화인 소프트한 콘텐츠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하다. 문화가 발현되는 물리적 환경과 일상적 활동인 먹고 마시고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을 통해서 새로운 지역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공간이 (재)구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특히 일상적인 공간의 (재)구성이 필요하다.

생활 속 작은 공간의 복합적인 활용을 위해 지역학은 공간탐색을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다. 문화를 통한 지역의 지속가능성은 거대한 공간을 기획하여 건설하거나 새로운 문화타운을 만드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우리 곁에 늘 있는 공간을 재발견하는 작업이다.

독일의 올덴베르그(Oldenburg)는 ‘제3의 공간’의 중요성에 주목했다. 제3의 공간은 집과 직장을 넘어서, 사람들이 개인적 차원에서 규칙적, 자발적, 비공식적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모이는 곳으로 카페, 바, 레스토랑, 쇼핑몰, 서점 등이 대표적인 사례³⁾Oldenburg, R., *The Great Good Place*, Da Capo Press, 1989 들이다. 일상생활과 가까운 장소에 시민 누구나 공감하고 즐기는 플랫폼을 마련하는 것이다. 생활 속에서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어울릴 수 있는 다양한 기준의 공간을 변형하여 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제3의 공간에서는 지역의 예술가, 디자이너, 시민 등이 주체가 되어 계획을 수립하거나 실행에 참여하여 새로운 문화콘텐츠를 생산하는 일상적 문화실천들이 행해진다.

지역은 더 이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 단순한 장소가 아니다. 지역은 ‘지금 여기’의 가치가 내재된 다양한 주체들이 밟 딤고 하루하루 주체적으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장소이다. 주인 된 삶을 살기 위해 자아를 형성하고, 우리의 삶을 이해하기 위한 주체적 공간인 것이다.

지역학은 지역의 정체성이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탐색하기 위해 시민들의 일상적 행위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구조 간의 상호작용을 탐구하고, 일상생활의 의미를 찾아내어 지역문화를 보다 풍부하게 이해하도록 우리를 견인한다. 지역학은 우리에게 오늘보다 ‘더 나은 미래의 삶’, ‘지속가능한 삶’을 예전할 수 있는 혜안을 제시한다.

I. 콘텐츠 시대, 우리의 삶터

'콘텐츠', 이 단어가 쓰이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초반이다. 우리가 '내용물', '목차' 정도로 알고 있는 이 단어가 디지털 기술, 문화예술 영역과 결합하여 다양한 의미로 파생되었고, 이제는 우리 삶의 모든 분야에 녹아들어 활용되고 있다. 이 단어가 공식적으로 사용된 것은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이 설립되는 2000년대 초반으로, 이후 콘텐츠는 다양한 분야의 연계·융합·결합을 통해 생산되는 다채로운 결과물을 의미하게 되었다. 초기의 콘텐츠는 가요(K-POP), 드라마, 영화 등 대중공연예술 및 디지털 분야에서의 내용물을 의미하였지만, 다양한 분야와 꾸준하게 연계·융합되면서, 그 의미는 특정한 공간과 건축물, 마을과 지역의 내용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확장되었다.

콘텐츠라는 용어가 지역과 마을 등 우리 삶터와도 결합하면서 일상을 영위하는 공간이 문화를 향유하는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 과거 마을 혹은 지역과 같은 공간은 단순히 생업과 일상을 영위하기 위한 공간이었다면, 최근에는 다양한 스토리텔링 기법을 적용함으로써 콘텐츠를 머금은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 이 같은 과정을 통해 구현된 지역문화 콘텐츠는 지역문화의 특수성을 유지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 발전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¹⁾

이재민·김진희, 「지역문화 주체공원으로서 유교랜드 특성」, 『글로벌문화콘텐츠』 제20호, 글로벌문화콘텐츠학회, 2015, p.170

이처럼 한국사회에서 콘텐츠가 도입된 지 20여 년이 흐르면서 대학에서는 콘텐츠학과가 개설되고, 학계에서는 학회가 출범되어 이에 관한 연구가 무수히 이루어졌다. 하지만 현재에도 콘텐츠에 관한 명확한 개념 정의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게다가 연구대상과 연구방법론이 부재하여 분과학문적 연구로서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콘텐츠와 문화는 확장성이 매우 넓고, 다양한

영역과 결합되어 새로운 분야를 생산하는 등 그야말로 다이나믹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콘텐츠에 대한 이론적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소위 콘텐츠 분야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이를 구명하기 위해 다양한 사례와 연구방법론을 적용하여 나름 논의하였다. 이처럼 여러 연구자의 논의가 있었지만, 이 중에서 태지호(2014)의 논의가 참 인상 깊다. 태지호는 레이먼드 윌리엄스(R. Williams)의 개념을 적용하면서, 문화를 모든 삶의 행위를 의미한다고 했을 때, 문화콘텐츠와 콘텐츠가 유사한 맥락임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콘텐츠를 '문화적 소재가 구체적으로 가공되어 매체에 체화한 무형의 결과물'이라고 정의하면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콘텐츠와 결합하는 '매체'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태지호(2014)의 논의에 미루어볼 때, 지역문화 콘텐츠는 '지역'을 매개로 구현되는 문화적인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지역, 마을, 거리, 시장 등 일상을 영위하는 공간을 구별하지 않기 위해, '삶터'라는 용어를 활용하고자 한다. 삶터는 마을에서 도시까지, 지역에서 국토까지 두루 아우르는 우리말이기 때문이다.²⁾ 정석, 『천천히 재생』, 메디치, 2019, p.16 이를 통해 우리의 삶터가 콘텐츠라는 빛깔의 옷을 입고 알록달록한 문화향유 공간으로서 구현되는 과정과 사례를 틀어보고자 한다. 단, 이를 위해 '지역학'의 관점을 적용하고자 한다. 지역학은 한 지역을 하나의 관점에서 지역을 뛰어넘어 보는 것이 아니라, 총체론적인 관점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학제적 연구의 영역이다. 이 같은 시도를 통해 콘텐츠의 영역을 일상공간으로 확대할 수 있으며, 나아가 실질적으로 도움 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II. 지역을 음살답게, 지역학적 접근

서울학, 부산학, 대구경북학, 대전학, 안동학, 수원학, 용인학 등 각 지역의 지명에다가 '학(學)' 글자를 붙여놓은 플래카드를 각 지역의 문화원, 문화센터, 문화재단 등에서 보았을 것이다. 최근 각 지역의 정체성·장소성 등 특수한 문화적 성질을 구현하고 정립하며, 강화하기 위한 연구와 활동으로 지역을 총체론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연구형태를 의미한다. '연구'라고 하지만, 분과학문이라기보다는 연구와 연구가 넘나들고, 연구와 활동이 연계되기도 하는 융복합적 연구이며, 학제 간 연구를 이룬다.

지역학의 개념적 정의는 '일정한 지역의 지리나 역사, 문화 따위를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다. 즉, 지역학은 기본적으로 하나의 단일렌즈를 통해 지역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가 융합되고 중첩되어 도출되는 렌즈를 통해 틀어보는 학제적 연구이다.

이의 논의에 앞서 임재해(2004)는 마을과 관련한 민속학 분야의 연구에서 '음살답게'라는 방법론을 얘기하였다. '음살답게'라는 말은 총체론적을 의미하는 순우리말로, 지역문화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역 '안에서'와 지역 '밖에서' 등 두루 살펴보는 방법을 의미한다.³⁾ 조우제 외, 「지역문화 콘텐츠 연구방법으로서 '현장연구'의 가치와 의미: 질적연구자의 연구 경험을 중심으로」, 『인문콘텐츠』 66호, 2022, pp.1~20 이처럼 임재해(2004)가 얘기했던 '음살다움'은 지역학적인 관점에서 풀어낼 가치가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음살다운 지역학은 실로 다양한 영역에서 연구되었다. 일반적으로 지역에 대한 연구는 지역이라는 보편적 현상을 중심주제로 삼아 성립되는 지역학

(Regional science)과 특정한 하나의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연구(Area studies 혹은 Regional studies)로 구분된다. 전자가 어느 지역에도 통용되는 일반 법칙의 정립을 목표로 하는 법칙정립적(Nomothetic) 연구라면, 후자는 지역 특유의 문화와 세계관의 이해를 목적으로 하거나 지역 간 차이나 특징을 찾기 위한 목적을 지닌 개성기술적(Idiographic) 연구이다.⁴⁾ 양기근, 「경남학의 연구 동향과 정립방향에 관한 연구」, 『증점정책연구 기본연구』, 2006, p.21

우리나라에서 지역학에 대한 관심은 1960년대 이후 나타난 산업화·도시화 등의 근대화와 관계가 깊다.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나타난 이촌향도(離村向都) 현상에 따라 도시로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이로 인해 수도권과 특정 도시지역 중심으로 편중되어 지역 간 불균형이 나타나게 되었다. 도시는 인구 과밀화 현상에 따른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하였고, 농촌은 인구 유출에 따른 고령화 현상을 겪으면서 많은 사회문제가 양산되었다. 이후에도 우리나라의 근대화는 더욱 가속화되었고, 이 과정에서 소외된 지역은 문화적·경제적 침체를 벗어나기 어려웠다. 특히 농·산·어촌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사회 의 공동체는 급속히 붕괴하고 있다. 이처럼 전통사회의 공동체는 해체와 소멸의 과정을 맞닥뜨렸으며, 인구의 과소화·고령화에 의한 공동체 해체를 넘어 이제는 지역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⁵⁾ 이재민, 「공간생산이론을 통해 본 지역문화 콘텐츠의 창출과정과 의미: 칠곡군 영오리 사례」, 『글로벌문화콘텐츠』 제7권 제1호, 2020, p.2

지역이 소멸한다는 것은 지역이 함의하는 정체성의 소멸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역정체성의 기반이라 할 수 있는 장소성은 퇴색되고, 물개성화되면서 자연스레 지역문화는 위축되었고, 지역민의 삶은 점차 피폐해졌다. 지역

정체성이 상실된 지역의 현실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대표되는 회색빛의 획일화된 경관으로 대표되며, 이는 전국 어디를 가더라도 비슷한 모습뿐으로 문화적 다양성을 찾기 어렵게 되었다.⁶⁾ 한상현 외, 「대전의 미래 발전을 위한 지역학 활성화 방안 연구」, 대전세종연구원 기획연구 2019-02, 2019, p.11

근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1990년대 출범한 지방자치제는 지역과 지역성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그리고 각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나타내고 있는 지역의 작은 공간은 스토리텔링 기법의 적용을 통해 관광콘텐츠로 구현되었다. 그리고 지역 구성원들에게는 일상생활에서 행복을 찾는 문화민주주의의 가치를 바탕으로 지역 공동체성에 대한 회복과 이를 통한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역정체성을 구현하는 학문적·정신적 토대를 마련하고, 삶의 질을 제고시키기 위한 지역학이 등장하였다. 여기에서 나타나는 공간적 경계와 배경은 행정적 경계 단위를 가리키며, 그 결과로 경기학, 부산학, 인천학 등이 등장하였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자기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할 목적으로 학문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이는 곧 지역학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 조성으로 이어졌다. 이처럼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지역학은 1993년 서울학을 시작으로 활발하게 추진되어 현재 대부분의 광역 지자체에서 지역학 연구기관을 설립하여 운영 중이며, 최근에는 기초자치단체까지 확대되고 있다.⁷⁾ 한상현 외, 「대전의 미래 발전을 위한 지역학 활성화 방안 연구」, 대전세종연구원 기획연구 2019-02, 2019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이 같은 지역학의 옴살다운 관점의 적용을 통해 우리의 삶터에서 구현되는 콘텐츠를 고찰하고자 한다. 처음으로는 역사문화적인

관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 이야기를 '안동 원이 엄마' 사례를 통해 고찰하고자 하며, 다음으로는 지역의 주체이자 공동체적인 관점을 통해 구현되는 '칠곡 보람할매연극단'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도시에 적용되는 콘텐츠로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출범된 세종특별자치시의 도시 정체성 형성과정의 사례를 적용하여 이야기하고자 한다.

III. 지역학 렌즈를 통해 본 우리 삶터의 콘텐츠

1. 지역 이야기에서 관광콘텐츠까지, 안동 '원이 엄마' 이야기

1998년 안동시 정상동은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되어 다양한 개간사업이 실행되었고, 이 과정에서 무연고 묘를 지장하게 되었는데, 이 무덤에서 이응태(1556~1586)의 미라가 발견되었다. 이때 무덤 주인으로 추정되는 미라와 함께 여리 부장품이 함께 출토되었으며, 이 속에 18통의 편지가 발견되었다. 편지의 대부분은 소실되었으나, 이응태의 부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편지만이 잘 보존되어 있었고, 이를 통해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다.

'원이 엄마'의 편지는 사랑하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게 되어 절절한 슬픔이 담겨있었으며, 남편에 대한 사랑이 묻어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이 편지는 <내셔널지오그래픽>에 소개되기도 했으며, 2009년 3월에는 국제 고고학 잡지『앤티퀴티(Antiquity Journal)』의 표지 논문으로 수록되기도 하였다. 편지의 보존상태가 좋아 대부분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특히 내용도 인간의 감수성을 건드렸다. 더욱이 편지와 함께 출토된 머리로 역은 '미투리'로 인해 원이 엄마의 애절함은 스토리텔링적 가치가 매우 높아 콘텐츠로서 높은 가치를 띠게 되었다.

원이 아버님께 올림

병술년 유월 초하룻날, 집에서

당신 언제나 나에게 ‘둘이 머리 희어지도록 살다가 함께 죽자’고 하셨지요.

그런데 어찌 나를 두고 당신 먼저 가십니까.

나와 어린 아이는 누구의 말을 듣고 어떻게 살라고 다 버리고 당신 먼저 가십니까.

당신 나에게 마음을 어떻게 가져 왔고,

또 나는 당신에게 마음을 어떻게 가져 왔었나요.

함께 누우면 언제나 나는 당신에게 말하곤 했지요.

‘여보, 다른 사람들도 우리처럼 서로 어여삐 여기고 사랑할까요?’

‘남들도 정말 우리 같은까요?’

어찌 그런 일들 생각하지도 않고 나를 버리고 먼저 가시는가요.

당신을 여의고는 아무리 해도 나는 살 수 없어요. 빨리 당신께 가고 싶어요.

나를 데려가 주세요. 당신을 향한 마음을 이승에서 잊을 수가 없고

서러운 뜻 한이 없습니다. 내 마음 어디에 두고 자식 데리고

당신을 그리워하며 살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이 내 편지 보시고 내 꿈에 와서 자세히 말해 주세요.

꿈속에서 당신 말을 자세히 듣고 싶어서 이렇게 써서 넣어드립니다.

자세히 보시고 나에게 말해 주세요. 당신 내 뱃속의 자식 낳으면

보고 말할 것 있다 하고 그렇게 가시니, 뱃속의 자식 낳으면

누구를 아버지라 하라시는 거지요. 아무리 한들 내 마음 같겠습니까.

이런 슬픈 일이 하늘 아래 또 있겠습니까.

당신은 한갓 그곳에 가 계실 뿐이지만 아무리 한들 내 마음같이 서럽겠습니까.

한도 없고 끝도 없어 다 못 쓰고 대강만 적습니다.

이 편지 자세히 보시고 내 꿈에 와서 당신 모습 자세히 보여 주시고

또 말해 주세요. 나는 꿈에는 당신을 볼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몰래 와서 보여주세요. 하고 싶은 말 끝이 없어 이만 적습니다.

절절하면서도 안타깝고, 슬픈 이 사연은 스토리텔링을 통해 다양한 콘텐츠로 구현되었다. 다큐멘터리, 출판, 공연, 음반, 영상, 공간형 콘텐츠 등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로 구현되었으며, 지금도 그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2021년에 관광콘텐츠로서 개발된 문보트⁸⁾(나루에 의해 개발)는 여성발명왕 EXPO(2020, 2021), 부산국제보트쇼에서 올해의 보트상(2021),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상(2021), 경북도지사상(2021) 등 많은 수상실적을 보유하게 되었으며, 2022년에는 서울 롯데월드 보트체험장 직영점을 오픈하여 대한민국의 대표 콘텐츠로서 시작을 알리고 있다.

안동의 문보트는 원이 엄마의 이야기와 뱃놀이를 즐기던 양반의 풍류 문화를 문화적 소재로 활용하고 낙동강과 월영교를 공간적 배경이자 콘텐츠의 매체로서 적용한 관광콘텐츠이다. 낮에는 뱃놀이하며 풍류와 아취(雅趣)를 즐겼던 양반문화를 체험하고, 저녁에는 월영교의 야경이라는 공간적 배경 위에 이응태 부부의 사랑 이야기를 즐길 수 있는 콘텐

츠로 제작되었다. 경북 안동(6대)을 시작으로 하여 경기 김포(10대), 인천광역시(10대), 서울 롯데월드(6대)로 확대되었으며, 각 지역당 매월 15,000여 명이 향유하는 콘텐츠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 지역 노인 문제의 대안, 칠곡 ‘보람할매연극단’ 이야기

경북 칠곡군의 어느 마을에는 할머니들이 연극을 하는 연극단이 있다. 이들은 칠곡군의 평생학습 도시 정책 중 하나인 성인문해교실에서 한글, 산수, 미술 등을 배우는 할머니 학생들로 구성된 연극단이다. 이들의 연극단 활동은 고령사회에서의 노인 문제에 대해 많은 고민 지점들을 던져주고 있다.

‘보람할매연극단’의 시작은 칠곡군에서 진행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인 성인문해교실 ‘보람학당’을 기반으로 조직되었으며, ‘칠곡인문학마을’이라



사진 1. 안동대학교 박물관에서 소장 중인 미투리
(출처=안동시 공식 블로그)



사진 2. 문보트(출처=안동시 공식 블로그)

는 공동체 활동을 통해 많은 주목을 받았다. 과거 보람학당은 칠곡군 어로리 할머니들께 산수, 한글, 그림 등을 가르치는 마을 평생교육기관이라 할 수 있다. 보람학당에서는 매년 겨울 성인문해교실 성과발표회를 준비했는데, 2013년에는 강사 선생님의 제안으로 연극을 시작하게 되었다. 당시만 하더라도 단순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지나지 않았으나, '연극'이라는 종합예술을 통해 '공동체'가 구성된 것이다.

보람할매연극단은 2013년 10월 성인문해 성과 발표회에서 권정생의 동화『훨훨간다』를 각색하여 만든 5분짜리의 짧은 연극으로 첫 무대의 막을 올렸다. 창단 인원은 15인이었으나, 사망 및 부상 등 의 이유로 4인이 하차하고, 신규 1인이 가입하여 13인이(2016년 기준) 활동하고 있다. 2016년 가을에는 1기 단원이 은퇴하고, 비교적 젊은 60대 후반 70대 초중반의 할머니들이 합류하여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있다.



사진 3. 행복연극교실 공연 중 자작랩 '어로라 언니들의 하루' 장면

지금까지 공연했던 작품으로는 <훨훨간다>, <흉부네 박터졌네>, <흉부네 경사났네>, <거울 속에 누구요?> 등 네 작품이 있으며, 1년에 한 작품씩 연습과 공연을 지속하고 있다. 단원들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시간에는 일상생활의 한 일과처럼 지속적으로 평생학습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이들에게 화요일과 목요일의 연습시간은 무언의 약속이자 의무사항으로 작용하고 있다. 마을회관에서 오후 2시부터 3시까지는 한글공부, 오후 3시부터 5시까지는 연극연습을 하고 있다. 그 이후에는 저녁 식사를 함께 준비하고 나누며 일상 속의 소소한 즐거움을 공유하고 있다.

마을 할머니들은 보람할매연극단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의미 있는 관계 맺기로 중요한 타인을 만들어가고 있었고, 배움으로서의 가치를 인지하며 함께 성장하고 성취하는 재미를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이 같은 활동을 통해 사회적으로 인정받으며 자신감과 자존감을 가지게 되었고, 연극단원으로서의 사회적 역할을 부여받아 공동체에 대한 책임의식을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사진 4. 어로리 마을축제 중 보람할매연극단 공연(출처=필자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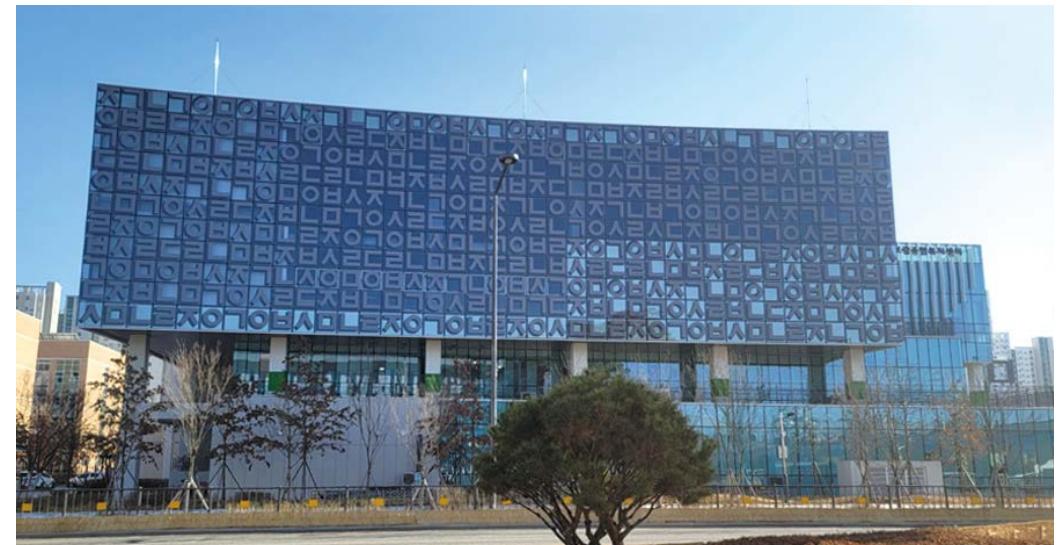


사진 5. 한글을 디자인으로 적용한 보람동 광역복지지원센터(출처=필자 제공)

마을에서도 보람할매연극단을 중심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구현하고 있었으며, 이의 지속가능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실천하고 있었다. 마을에서는 보람할매연극단 조직 이후 이들을 주인翁으로 하는 '실버연극 마을축제'를 개최하였다. 그리고 미래 세대로 원활한 전승을 실천하며 나름의 동력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행정기관과의 효율적인 소통 체계를 마련하여 소규모 공장의 진입을 막아 안정성을 확보하였고, 문화예술 마을로서 정체성을 더욱 공고히 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문화시설을 조성하고 주변 마을과 연계협력 활동을 통해 지역문화 콘텐츠를 구현하였다.

3. 새로운 신생 도시의 브랜딩, 세종시의 한글사랑 이야기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는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을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실천하며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출범하였다. 2002년에는 노무현 대통령의 '충청권 신행정수도' 공약이 있었고, 2004년에 이를 실천하기 위한 행정수도로서 연기군 지역이 선정되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는 '신행정수도특별법'을 위헌으로 결정하였고, 이듬해 2005년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의 과정에서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기본방향이 정립되었다. 이후 2012년 연기군을 중심으로 공주시 장기면, 의당면, 청주시(청원군) 부용면 지역을 통합하여 세종시가 출범하게 되었다.

도시 출범 후 세종시는 도시의 완전한 완성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문화적 정체성의 정립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세종시는 세종대왕의 최대 업적인 ‘한글’을 문화적 소재로 삼아 가공하고, 공간적 영역을 매체로 활용하여 지역문화 콘텐츠를 구현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 정체성을 구현하고 정립하는 것은 물론, 장소 마케팅을 통한 도시 브랜딩의 효과를 꿈꾸고 있다. 이 글에서는 세종시가 ‘한글’이라는 옷을 입는 과정을 (1단계) 지역문화 콘텐츠 인식의 형성, (2단계) 지역문화 콘텐츠 기반의 조성, (3단계) 지역문화 콘텐츠 인식의 확산으로 구분하였다.

‘인식’의 형성(1단계)에서는 ‘세종’이라는 명칭이 부여되면서 세종대왕의 이야기를 문화적 소재로 활

용할 조건을 만들었으며, 시민이 참여한 감동특별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한글도시’로서 인식이 형성되었다.

다음으로 ‘기반’의 조성(2단계)에서는 한글사랑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적 안정을 추구하고, 한글진흥담당을 신설함으로써 행정적 효율성·전문성을 제고시켜 ‘한글’ 문화콘텐츠에 대한 기반을 구축하였다.

마지막 ‘인식’의 확산(3단계)에서는 한글의 심미적 요소를 활용한 건축물, 한글사랑거리 등 공간형 콘텐츠와 정책아카데미와 같은 교육프로그램, 한글날 경축식 행사 등 축제 등을 진행하며 한글도시로서의 정체성을 시민들에게 확산했다.



사진 6. 한글사랑거리 대상지인 한솔동 훈민길(출처=필자 제공)

IV. 새로운 콘텐츠 시대의 지역학을 꿈꾸며

콘텐츠가 도입될 무렵 한국사회는 이 같은 파급력을 예상하지 못했다. 이 무렵에는 영상과 예술 분야에 국한되었지만, 이제는 우리의 삶터와 콘텐츠는 시간이 지날수록 연계되고 융합되어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관점에서 콘텐츠의 매체로서 ‘삶터’는 단순히 문화적 소재를 담는 그릇이라는 역할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문화적 의미가 있다. ‘삶터’는 마을공동체 운동의 기제로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는 최근 공동체성이 무너지고 있는 현실에서 공동체 의식 회복의 단초로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삶터에서의 콘텐츠 구현을 통해 지역 브랜딩의 형성과 지역 정체성 정립에도 영향을 미치며,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글에서 첫째로 다룬 안동 원이 엄마 이야기는 과거에 숨어있던 우리의 문화유산이 어렵사리 발굴되고, 보존상태가 양호했던 유일한 편지 한 통에서 시작되었다. 이 편지 한 통이 우리 가슴의 심금을 울렸으며, 문화예술인과 활동가들의 창조적인 기획력을 통해 다양한 콘텐츠로 구현되었다.

둘째로 다룬 칠곡 보람할매연극단의 이야기는 단순 평생학습 조직이 마을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는 공동체로 거듭나는 과정을 보여주었다. 이는 개인적으로는 삶의 질 제고를 비롯한 정성적 가치의 제고를, 사회적으로는 공동체 의식의 회복을 비롯하여 지역 정체성 구현의 단초를 마련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무엇보다 도시보다는 농촌 노인들이, 남성보다는 여성 노인들의 삶의 만족도가 높지

않다는 점을 볼 때, 지역 노인문제의 훌륭한 대안으로서도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다룬 세종시의 한글사랑 이야기는 지역의 콘텐츠가 새롭게 창조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대부분 지역 콘텐츠는 그 공간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 즉, 역사적 사건, 저명한 인물, 천혜의 자연환경 등을 중심으로 구현된다. 하지만 세종시는 국가균형 발전이라는 주요 아젠다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도시면서, 새롭게 조성된 실험실과 같은 도시이기 때문에 위에서 언급했던 역사적 사건 등이 부족하다. 따라서 ‘세종’이라는 지명에 착안하여 ‘한글’에 방점을 두었고, 주민들이 한글 사랑을 실천하면서 도시의 정체성을 켜켜이 쌓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의 정체성이 새롭게 창조될 수도 있음을 나타내었고, 앞으로 새로운 도시의 정체성이라는 부분에서 시사점을 주었다.

이 글에서는 세 가지 사례를 지역학적 관점으로 옮살답게 바라보았다. 지역에서 출토된 문화유산에서 파생된 콘텐츠, 지역의 할머니들이 구성한 마을 공동체 실천을 통해 구현된 콘텐츠, 새로운 도시 정체성 형성에 있어 새로운 문화적 소재를 적용한 콘텐츠 등 다양한 측면의 사례를 통해 지역학적 관점에서 얘기하였다. 한국사회에서 지역은 도시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팽창하였지만, 인구의 데드크로스(Dead-cross) 현상이 나타났고, 지역은 소멸하기까지 한다는 이론이 나온 요즘 지역학적 관점을 적용한 우리 삶터의 콘텐츠에 대한 관심은 더욱 깊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I. 필젠판(Pilsen), 유럽문화수도가 되다

2015년 체코의 작은 도시 필젠판은 1년 동안 유럽문화수도(European Capital of Culture)로서의 면모를 대외적으로 알리는 데 성공하였다. 그렇다면 필젠판은 과연 어떤 독창성으로 유럽문화수도에 선정이 되었으며 어떤 콘텐츠를 바탕으로 1년간의 긴 행사를 치렀을까?

도시 발전을 위해 새롭게 디자인하고 기획하여 콘텐츠로 채워나간 작은 도시의 이야기를 따라가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전혀 다른 시각의 창의성과 독창성을 살펴봄으로써 도시 발전의 새로운 지혜를 만나보고자 한다.

유럽문화수도는 현재 유럽연합(EU)이 진행하고 있는 문화도시 프로젝트로서 매년 1~2개의 도시를 선정하여 유럽문화수도라는 명칭을 부여한다. 선정된 도시에서는 1년 간 다양한 문화 행사들이 진행되며, 도시 홍보는 물론 도시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유럽문화수도에 선정되려면 크게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첫 번째는 유럽적 차원에 대한 기여이다. 이는 유럽통합의 심화를 위해서 선정된 도시가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가에 대한 평가이다. 두 번째는 도시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자신만의 독창성을 얼마나 잘 보여주고 있는가이다. 도시가 가지고 있는 유무형의 문화유산을 활용함은 물론이고 자신들만의 색깔을 보여줄 수 있는 창조적인 도시 디자인과 슬로건을 실제 콘텐츠와 함께 제시해야 한다. 그렇다면 체코의 작은 도시 필젠판은 어떤 문화도시 전략을 통해 유럽문화수도에 선정이 되었을까?

체코에서 4번째로 큰 도시 필젠판은 맥주의 도시로 잘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필젠판은 표면상으로는 조용하고, 안정되어 보이지만 사실 도시 안에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을

안고 있었다. 특히나 도시의 폐쇄성과 불안정성은 유럽문화수도 선정을 위한 극복 과제였다. 필젠판 아니 더 크게 보아 체코는 유럽문화수도라는 기회를 통해 자신들 안의 내적인 장벽을 무너뜨릴 기회를 얻고자 했다. 그렇게 도시를 변화시켜 유럽으로 다가가는 것은 물론 유럽의 문화적 중심지 역할까지도 기대하고 있었다. 물론 이러한 과정이 1~2년 안에 일어날 수 없는 것임을 잘 알고 있었기에 장기적인 안목에서 자신들의 도시와 시민의 미래를 준비했다.

이 도시는 필젠판이라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맥주를 뜻하는 도시의 이름을 긍정적으로 활용하고 싶어 했다. 유럽문화수도를 통해 맥주의 팬들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관광지로 더 발전시켜 유럽 및 다른 대륙의 사람들에게도 매력적인 도시가 되고자 했다. 과거 구소련 연방체제 이후 체코 사람들이 겪었던 경험으로 인한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그때 손실된 전통 가치와 문화적 자산들을 유럽문화수도라는 계기를 통해 새롭게 정비하고자 했다. 필젠판이라는 작은 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1년간의 행사이지만 체코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폭제의 역할을 하리라 믿었기 때문이다.

II. 필젠판, Open Up!

유럽문화수도에 선정된 도시를 대할 때 첫 번째로 궁금한 것은 과연 슬로건을 무엇으로 제시했느냐이다. 슬로건은 도시의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보여주는 듯하다. 슬로건을 곰곰이 들여다보면 자신의 고유한 과거와 자산 그리고 새로운 미래와 희망, 비전을 합쳐 놓은 듯하다. 그렇다면 필젠판의 슬로건은 무엇이었을까?

바로 “Pilsen, Open Up!”이었다. 여기에는 필젠판이라는 도시를 존중받는 문화적 도시로서 지속 변형해 문화, 인종, 국가를 초월한 대화의 장소로 만들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 우선 어떠한 문화적 배경에서 이러한 메인 컨셉이 도출되었는지 살펴보자.



사진 1. Pilsen, Open Up! 2015년 유럽 문화 수도 대회 신청 팜플릿
(출처=필젠판 공식 사이트)

필젠피는 필스너(Pilsner)라는 세계적인 맥주 브랜드로 유명한 도시이다. 1842년의 양조장 건립은 필젠피 산업화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독일 못지않은 맥주 강국인 체코는 세계에서 개인 맥주 소비가 가장 많은 나라라고 한다. 그래서 체코인의 식사에는 맥주가 빠지지 않는다. 필스너는 체코를 대표하는 라거 계열의 맥주인데 필스너 맥주 공장과 박물관은 필젠피 중요한 관광 자원이 되고 있으며, 이를 말해주듯 도시 곳곳에서 필스너를 광고하는 간판을 흔하게 볼 수 있다. 따라서 “Open Up”이라는 슬로건은 자연스럽게 필젠피를 대표하는 이미지를 반영하고 있으며, 맥주 팬들을 넘어 모두에게 열린 문화도 시로 발전하고자 하는 필젠피의 의지를 잘 드러내고 있다. 특히 맥주병을 딸 때의 제스처와 소리를 중의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슬로건은 매우 참신해 보인다.

결국 “Open Up”이라는 도시 브랜딩의 메인 컨셉은 단순히 맥주라는 소재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필젠피는 체코에서 4번째로 큰 도시로 행정과 산업의 중심지로서 체코 인구의 약 5%가 거주하고 있다. 이 도시는 점점 문화기관들과 행사들이 증가하고 있었으며 유명한 연극, 오페라, 발레, 극작 등 의 허브가 되고 있었다. 필젠피는 계속해서 양질의 문화적 인프라를 제공하려 하고 있다. 이렇듯 필젠피 표면상으로는 조용하고 안정된 도시로 보인다. 그러나 사실 무시할 수 없는 주요한 사회적 문제들을 품고 있었다. 아울러 유럽과 새로운 것에 대한 강한 불안감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도시가 가진 장벽을 유럽문화수도를 통해 허물고자 했다. 이러한 희망과 의지를 “Open Up”이라는 슬로건을 통해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필젠피는 슬로건에서 제시되고 있듯이 개방성(Openness)을 도시전략의 핵심으로 부각했다. 왜 필젠피의 슬로건이 “Pilsen, Open Up!”인지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나누어 요약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체코가 이전의 전체주의 체제의 역사적인 경험으로부터 나오는 사회의 폐쇄된 전통적 특징에서 벗어나 보다 열린 사회로의 변화라는 열망을 담고 있다. 즉, 과거 공산주의 역사에서 벗어나 자신의 폐쇄적 특성을 극복하고 도시를 문화적으로 강화하여 개방하겠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필젠피 유럽, 나아가 세계를 향해 자신을 열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내부의 의구심들과 약점들을 드러내고 불신을 극복시키기 위해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과 관점 등을 수용하며 그것을 도시 발전의 기회로 승화시키고자 함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을 열어야 하며, 특히 소수의 의견 및 소수 집단을 위한 열린 마음으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 “Open Up”이라는 것은 사람과 상황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데 자기 자신의 상황에 최적화시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람마다 각각의 상상력, 환경, 생각에 따라 이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 그러기에 다양한 의미의 수용과 활용을 권장 시켜 모두의 관심사에 맞게 이 의미를 폭넓게 활용하고자 했다.

2015년 한 해 동안 필젠피에서는 600여 개의 문화행사와 체험들이 열렸다. 연극, 음악, 공연, 축제는 물론 학술적 회의까지도 말이다. “Open Up”이라는 메인 컨셉에 대한 다양한 전략들을 반영하기 위해 문화프로그램을 4개의 세부 주제로 구체화했다. 이는 필젠피 주변의 4개의 강을 중심으로 하는 도

시의 지리적 위치에 영감을 받은 것이라고 한다. 예술적, 사회적, 생태학적, 과학적, 교육적, 기업적 가치를 아우르는 아이디어를 4가지 주요 주제로 표현했다. 유럽문화수도 필젠피의 메인 컨셉은 다양한 섹터, 장르를 넘어서 상호 연결과 협력을 극대화했다. 또한, 점진적으로 유럽 네트워크에 연결되고 통합됨으로써 세계를 향해 오픈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들은 “Open Up”이라는 메인 컨셉을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하고 반영하고 있다. 앞에서도 필젠피 지향하는 개방성에 대해 얘기해 보았지만, 세부적 문화프로그램들이 담고 있는 개방성의 의미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자. 가장 먼저 외부세계를 향한 열림을 상정해볼 수 있다. 이는 유럽문화수도에서 강조되는 유럽적 차원을 반영하나, 나아가 세계인을 대상으로 도시를 드러내며 교류하고자 하는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두 번째는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열린 태도이다. 이를 위해 도시의 고유한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기획되었고, 소수 그룹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들도 마련되었다.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개방성은 또한 유럽연합의 중요한 아젠다(Agenda)인 창의성과 혁신에도 연결되고 있다. 유럽연합은 창의성을 문화 다양성에 대한 개방과 관용에서도 발현된다고 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창의성의 고무이다. 곧 “Open Up”이라는 슬로건은 기저에 깔린 개방성과 함께 상승의 이미지를 반영하고 있다. 마지막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이다. 위에서 아래로의(Top down) 방식이 아닌 아래에서 위로의(Bottom up) 방식으로 이루어진 기획과 운영방식 역시 상승의 이미지와 연결되고 있다.

III. 네 방향을 향한 일 년의 여정

1) 세계를 향한 열림

‘관계성과 감성(Relationships and Emotion)’이라는 하부 주제의 문화프로그램들은 외부세계로의 열림을 부각하고자 했다. 이 주제는 대중들을 그들의 개인적이고 국가적인 정체성에 대한 논의 및 토론에 참여시켜 필젠피 대중적인 공간으로 오픈하여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담고 있다. 대표적 프로젝트인 ‘공공의 공간(Public Space)’은 이 의도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공공의 공간 세부행사로 ‘빛의 페스티벌(Festival of Light)’이 있었는데 8개의 전시들이 상보적으로 운영되어 다른 행사들을 더욱 돋보이게 하였다. 또한, ‘유럽 이웃들의 날(European Neighbour's Day)’을 기념하기 위해 필젠피에 5,000명이 넘는 타지역 거주자들이 이벤트에 참여했으며, 이웃을 위한 음식 준비와 같은 활동들을 하였다. 이 주제는 ‘숨겨진 도시(Hidden City)’라는 또 다른 프로그램과도 연계되었다. 필젠피는 새로운 공공장소들을 발견하기 위해 후미진 곳의 거주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활동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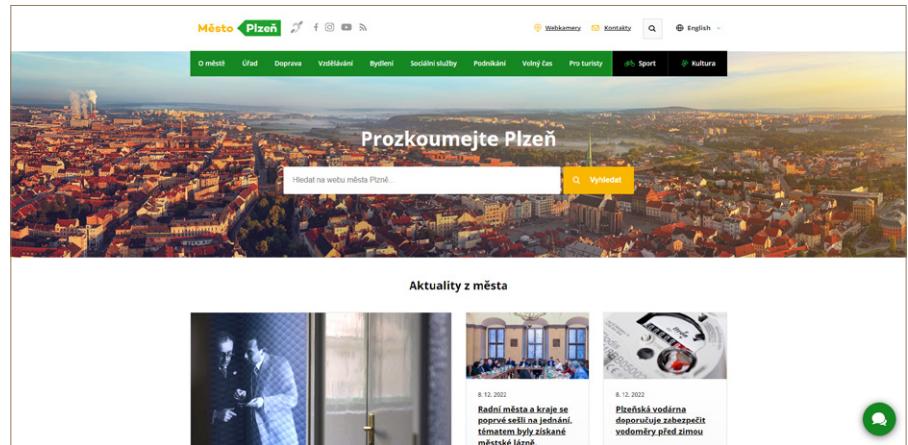


사진 2. 필젠판 홈페이지(출처=https://www.plzen.eu)

2) 문화다양성에 대한 열림

유럽연합은 유럽문화수도 개최지의 프로그램 구성에 있어서 유럽적 차원을 강조하며 기획 단계에서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유럽 내 도시 간 네트워크 구축과 지속적인 협력을 중요하게 보고 있었다. 유럽의 시민들 입장에서 본다면, 매년 새로운 곳에서 개최되는 문화 이벤트들을 통해 일차적으로는 개최지 고유의 문화를 만날 수 있지만, 결국은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문화적 다양성이 존중받으며 공존하고 있음을 경험하고 자국의 정체성을 넘어서 유럽적 정체성에 대한 이해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유럽적 차원에 대한 고려는 문화다양성에 대한 개방성과 관용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유럽연합은 국가나 지역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차이들을 존중하면서도 동시에 유럽적 소속감을 증대시키기 위한 문화 간 대화를 중요한 요소로 지원하고 있다.

3) 창의성의 고무

유럽연합의 문화정책 아젠다에서 중요하게 제시되고 있는 하나가 바로 창의성에 기반한 혁신이다. 그래서 유럽문화수도 프로그램에서도 풍부한 유럽의 문화유산을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콘텐츠로 재탄생시키는 예술의 역동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창의성은 문화다양성과도 매우 깊은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유럽연합의 문화정책 아젠다와의 일관성을 읽어낼 수 있다. 리처드 플로리다(Richard Florida)는 경제발전의 3T 이론을 통해 창조적 인력을 유인하는 지역의 원동력 중 하나로 ‘관용(Tolerance)’을 꼽고 있다. 곧 다양한 문화적 차이에 대한 관용과 개방성은 창의성에 영감을 불어넣는 환경적 요소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유럽문화수도 필젠판에서 문화다양성에 대한 열린 시각과 더불어 창의성을 고무하는 프로그램들을 구성시킨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4) 시민 참여 : 아래에서 위로

유럽문화수도 선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이 유럽적 차원과 더불어 도시의 시민들에 대한 평가 부분이다. 지역 시민들의 참여도는 매우 중요한 평가 대상이라 할 수 있으며, 나아가 도시가 다른 나라의 시민들에게도 관심과 흥미를 어디까지 끌어낼 수 있는가도 중요하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도시의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속성도 고려된다. 체코 사회가 가지고 있다고 고백하는 폐쇄성에서 벗어나 개방적인 태도로 변모해가는 과정도 필요했다. 이러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히 위에서 아래로의 방식보다는 아래에서 위로라는 시민들로부터의 자발적 참여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필젠판의 문화프로그램들은 시민들이 가지고 있던 내적인 장벽을 넘어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기회의 장들을 마련했다.

IV. 열린 도시를 향해

지금까지 필젠판의 역사적 배경과 함께 유럽연합의 요구를 충족시키면서도 자신의 독창성을 최대한 활용하고 동시에 새롭게 열린 도시로 거듭나고자 하는 필젠판의 전략에 대해 대략적으로 살펴보았다. 도시는 하나의 생명체와도 같아서 탄생과 소멸을 겪는다는 것은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다. 작은 도시 필젠판은 다시 활력이 넘치는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자신들을 열어야 한다는 자각을 실천에 옮기고 있다. 세계가 좁아지고 있는 지금 문화적 다양성의 환경이 심화되고 있는 도시 공간이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하는 화두를 필젠판이 슬로건을 통해 제시하고 있어 보인다. “Pilsen, Open Up!”으로 말이다.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위의 슬로건은 필젠판을 2인칭으로 놓고 명령형의 화법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도시 스스로가 거울 속 자신을 마주하듯이 스스로에게 말을 걸고 있다. 다른 유럽문화수도 프로그램들과 비교했을 때 필젠판이 목적하는 바는 다소 달랐다. 도시재생 차원이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넘어서 문화도시로서의 열린 정체성 확보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취지를 담아내고 있는 다양한 문화프로그램들과 행사들은 필젠판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의 주도적 참여와 함께 자신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터전에 대한 미래지향적 비전을 자연스럽게 공유하게 했다.

결국, 유럽문화수도 프로그램을 통해 필젠판은 자신들이 새롭게 지향하고자 하는 유럽과 세계에 대한 개방성을 강력하게 실천에 옮기고 있고 그 여정은 유럽문화수도 이후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K-콘텐츠? D-콘텐츠!



문화예술거리 '이태원길' 소설가 이태원 동상

1. 지역학의 탄생

공간의 불평등은 이미 전면적이다. 위성 사진에서 바라본 한반도는 불빛의 남방한계선이 확연히 두드러진다. 수도권에서 멀어질수록 불빛은 희미하다. 물론 몇몇 지역 대도시의 불빛은 아직 강렬하지만, 불빛의 세기는 점점 약해지고 있다. 물론 불빛이 모든 것을 설명하지는 않지만, 지역 간 공간의 불평등이 지금 우리들의 삶을 결정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주지하다시피 이러한 불평등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와 농촌을 승자와 패자로 구분한다. 승패는 지역의 생산성, 혁신과 삶의 질, 경제 수준, 그리고 문화적 삶을 규정한다. 패자는 불만과 분노를 내재하고 지리적 열등감으로 공간 이동을 욕망한다. 당연히 청년 세대에게 그 욕망은 더욱 강렬하다. 그럴수록 지역은 더욱 황폐해져 간다. 그리고 지역 고립과 지리적 열등이 일상적 감정을 만들어 가고 있다.¹⁾ 박승희, 「창조융합문화도시, 대구경북을 제안한다」, 영남일보, 2022.3.1.

지역학의 탄생은 필연적이다. 아니 필사적이다. 지역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미래 가능성과 비전, 문화적 일상이 사라지면 지역 또한 사라진다. 위기감은 지역학을 등장시켰다. 지역학은 일반적으로 한국 내 일정한 행정구역이나 지역(지방) 또는 세계권 내의 국가 단위나 권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예술 등 다양한 분야를 전문적으로 분석하고 종합적으로 연구 또는 이해하는 학문을 말한다. 즉, 지역학은 특정 지역이나 공간의 특수성과 보편성을 총체적으로 아우르는 융합적 사고에 기반하여 다양한 분과학문 간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지역사회와 문화적 가치를 창출하는 융합학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학은 지역 및 공간, 문화와 역사와 관련된 객관적이며 과학적인 분석을 수행하는 학제적(Inter-disciplinary)인 학문이라 정의하고 있다.²⁾ 정삼철, 「지역학 활성화의 동향과 미래발전 과제」, 『월간 공공정책』



사진 1. <달성을 상상하다 '상상볼'>공연 진행 사진(출처=달성문화재단 문화도시센터)

책, 164, 한국자치학회, 2019 그러나 무엇보다도 지역학은 지역-중앙, 국가-지역, 수도권-비수도권 사이 삶의 불균형과 불평등 과정에서 탄생한 현실 학문이란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한편, 지역학은 지역에 대한 다면적이며 융합적인 연구 결과를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과 새로운 문화 가치 창출을 위한 로컬(Local) 크리에이션(Creation)의 의미를 강하게 내재하고 있다. 지역문화 콘텐츠 발굴과 공간재생, 도시와 마을의 역사적 정체성 형성 등 지역에 대한 창의적 기획과 문화창조적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지역학의 시작은 1990년 초 지자체의 복원과 함께 지역 자치가 현실화되면서 지방과 중앙의 기형적 양대 구조를 극복하고, 국가 중심의 획일적인

사회구조에서 벗어나는 지역 정체성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연구의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는 지역적 삶과 정신을 되찾거나 다양성과 유일성, 보편과 특수, 통합과 다원 등이 사회적 복잡을 구성하고 있는 우리 시대의 변화와도 연결된 새로운 학문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³⁾ 김영화·김태일, 「대구경북학」의 모색, 『사회과학 담론과 정책』, 2014

도시문화에 대한 관심과 연구 또한 지역학의 새로운 방향으로 등장하고 있다. 세계화와 국가 간 대립 과정에서 훼손되거나 분할된 인간 삶의 핵심적 단위인 도시의 새로운 보편적 가치와 가능성을 살피는 도시학이 지역학의 새로운 영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지역학은 한국학의 토대 역할도 하고 있다. 단순

한 지역 중심주의적 사고의 파편이 아니라 거시적이고 풍부한 한국학의 토대이자 뿌리이며, 지역 인문·사회 콘텐츠의 기반으로서의 지역학은 한국학의 구체성을 확보하는 의미가 크다. 더욱이 지역 자료와 기억 망실로 지역에 대한 흔적 및 지역사의 소멸로 귀결되는 현재 상황에 대응하는 학문이라 점에서 지역학은 이후 한국학의 방향과도 깊이 관련된다. 나아가 다원사회의 개방적 사고를 중심으로 지역의 포용 가치를 기반으로 미래사회를 연구하고 기획하는 미래학의 의미도 내재하고 있다. 이처럼 지역학은 시대와 지역의 역학적 관계 속으로 지역의 새로운 가치 창출과 탐색, 연구를 위한 현장 중심의 학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우리가 어떤 도시를 원하는가 하는 문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려고 하는가, 사회와 어떤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가, 어떤 미학적 가치관을 품고 있는가 등의 문제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하비(David Harvey)의 말은 지역적 삶과 도시문화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지역학의 또 다른 과제는 여기에 있다. 모든 유기체는 필연적으로 특이점(Singularity)에 도달하면 파멸하거나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이를 피하려 한다. 도시는 기업이나 생물과는 달리 ‘차원(Dimensionality)’을 확대하는 가운데 열린 성장을 위해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끊임없는 자기혁신이 필요하다. 또한, 부정적 락인(Lock-in)현상에 직면한 도시는 ‘시계를 리셋(Reset the clock)’하여야 하고 모든 것을 ‘새롭게 출발(Start over again)’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도시는 차이에 근거한 독자적 도시성(Urbanity)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보장받아야 한다. 도시는 ‘차별화된 공간(Differentiated space)’으로

서 독자적 도시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의 하위 단위로서가 아니라 ‘도시’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선언할 필요가 있다. 도시의 역사를 고쳐 쓰는 일이 중요한 것은 도시의 시계를 리셋하여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한 매우 유효한 하나의 방식이기 때문이다. 지역학에 기반한 D-콘텐츠를 고민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러한 관점 위에 지역학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무엇을 할 것인가. 지역문화 발굴, 지역 아카이브와 지역 정책 아젠다(Agenda) 개발, 지역 이슈에 대한 정리와 답변, 그리고 지역 콘텐츠 기획 및 교육 등 다양하다. 그 중에서도 지역 콘텐츠 개발 및 기획은 지역학의 응용이자 주요한 과제 중 하나다. 우선, 지역학에 대한 기본적인 정리부터 해보자.

지역학 정립을 위한 몇 가지 전제를 생각해 본다. 첫째, 지역학은 개별 지역에 대한 연구가 아니다. 국가나 민족, 영토와 공간 등으로 구획되는 지역학은 일종의 제국적 발상이자 근대자본의 논리에 가깝다. 식민지 제국의 점령과 자본 증식을 위한 지역 우선과 지역 개발의 지역학을 근본에서 반성해야 한다. 그리고 국가의 내부를 가로지르며 민족이라는 우월적 경계를 벗어나는 지역학, 도시와 독자적 삶의 실체로서의 지역학에 대한 재발견 즉, 탈지역학이다.

둘째, ‘지역의 세계화’라는 기능적인 목표를 제고해야 한다. 지금의 글로컬리즘(Glocalism)은 지역의 우수성을 세계와 연결시켜 기능적으로 지역의 세계적 위상을 확보하자는 것으로 보인다. 지역과 세계의 관계형성은 체제나 질서로의 국가 편입, 그리고 국가 위상의 확보라는 기준의 국가 층위와는 다른 층위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지역학으로서의

글로컬리즘은 지역과 세계의 차이에 대한 긍정과 공유적 가치의 발견, 이를 통한 지역의 세계적 존재론을 찾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의 세계적 가치, 예를 들면 지역의 공유 방식과 사회구성체, 도시화와 지역의 생산 양식, 지역의 문화심상 등 지역 속의 세계적 가치나 세계적 주제의 지역적 분석 등이 지역학 연구의 한 부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지역의 문화 아젠다를 확보해야 한다. 개별 지역의 경계와 긴장 속에서 지역을 연결하는 새로운 문화 아젠다를 개발하고 연구해야 한다. 소재주의에서 벗어나 지역적 공유 속에서 지역 특수성을 담는 새로운 문화 아젠다가 필요하다. ‘문화적 이질성(Heterogeneous)과 지역문화의 탄생’, ‘지역을 가로지르는 문명사’, ‘지역의 문화적 쇠퇴’와 ‘문화 불평등’, ‘지역의 문화적 회복탄력성과 지역 연대’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넷째, 지역적 소재의 활용에 앞서 지역과 지역을 잇는 지역학 연구 방법론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할 것이다. 국가적 범위 혹은 기능적인 지역 세계화에 묶여 있는 연구 대상과 과정, 범위, 그리고 결과물로부터 획단과 이탈의 도시연구 방법론도 필요하다. 지역은 국가를 중심으로 하는 점층(漸層)이나 점강(漸降)의 어느 지점이 아니라 독립된 그러나 끊임없이 또 다른 지역과 연결되는 과정 속에 있는 특수한 영역이다. 그러므로 지역학은 지역 혹은 도시의 독자성과 지역 간 상호구조를 전제하면서 보편 세계와 연결된 방법적 고민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도시문화의 리좀(Rhizome)적 만남’이다 도시와 도시의 우발적 만남, 국가라는 계보 밖에서의 도시 만남과 마주침 등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지역학의 방향성은 대구 콘텐-

츠, D-콘텐츠의 발굴과 기획, 방향과 그대로 연결되어 있다.

2. 지역학과 부가가치



사진 2. 달성문화도시축제(출처=달성문화재단 문화도시센터)

전통적 의미의 부가가치는 경제적 의미에서 생산과정에 투입된 요소들에 대한 값(보수)의 합계로, 노동에 대한 임금, 토지에 대한 지대, 자본에 대한 이자, 기업 활동들에 대한 이윤으로 분배된다. 지역학에서 지역 자료 혹은 자원은 보존할 가치가 있고 역사적 문화유산에 대한 소설과 파괴를 막아내는 것, 실제 사실을 반영한 새로운 가치를 발굴하는 기반이 된다. 지역학 기반의 이 가치는 일정한 부가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지역 자원이 도시의 지속성과 새로운 가치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가치 창출의 과정에 있는 자원의 수집과 정리가 일차적인 과제이다. 더 나아가 다양한 사건, 장소, 사람들의 활동이 상호작용

하는 과정에서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응용하여 제2의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지역학의 가치를 높이는 과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것은 곧 지역의 콘텐츠와 지역문화의 부가가치 창출로 이어진다. 지역이 지역사나 생활사에 대한 정리가 아니라 지역의 상품, 콘텐츠로 연결될 때, 지역학은 지역의 현실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자원의 발굴과 콘텐츠 기획 즉, D-콘텐츠는 지역학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⁴⁾

이재호,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지역학의 응용과 과제」, 『한국지역학포럼』, 2017.

3. 지역학과 D-콘텐츠의 가능성

지역학과 D-콘텐츠는 직접적인 관계다. 지역의 문화예술은 물론 역사와 공간, 인물과 경관 등 지역학의 대상이 곧 D-콘텐츠의 핵심이다. 특히, 지역의 생활사는 지역 정체성을 고스란히 내재한 D-콘텐츠의 중심에 있다. 생활은 개인의 존재감이자 일상적 공유가 시작되는 지점이다. 생활사는 개인의 역사를 넘어 지역적 감각의 결정(結晶)이며, 가장 보편적이면서도 대중적인 콘텐츠들이다.

생활사 중 D-콘텐츠로서 대표적인 것은 일상의 공간이다. 삶의 흔적과 과정이 켜켜이 담겨있는 일상 공간은 그만큼 대중적이며 다양하다. 근대 골목에서 시작된 일상 공간의 탐색과 기획, 도시재생과 청년들의 크리에이터(Creator) 감각이 공간을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다. 이러한 공간은 지역 곳곳에 산재해 있다. 남산동 성모당 주변, 대봉동에 펼쳐진 전태일 열사와 조영래 변호사의 시절 공간, 수성못의 역사적 가치의 재발견, 남구의 미국부대 인근의 고미술 거리, 불로막걸리로 대표되는 동구의 막걸리 벨트 등 공간 콘텐츠의 기획과 개발을 기다리는 곳은 풍부하다.

오래전부터 대구의 ‘누들(Noodle)문화’를 이야기하고 있다. 음식문화이면서 공간과 산업, 역사를 동시에 지니고 있는 것이 대구의 누들문화이다. 대구의 내부이며 일상이자 새로운 가치와 매력으로 등장할 수 있는 시대의 콘텐츠 중 하나가 누들일 수 있다. 대구의 누들을 창업 콘텐츠로, 엔터테인먼트로, 대구의 역사로 재발견할 필요가 있다.

또한, D-콘텐츠의 대표적인 대상은 역사문화일 것이다. 이미 콘텐츠로 구축되었거나 진행 중인 것

들을 놓아두고 몇 가지 거칠게 떠오르는 것을 생각해 보자. 지역의 역사예술을 예로 들면, 대구의 ‘서화(書畫)’이다. 석재 서병오 선생과 죽농 서동균의 이야기는 이미 소설 『금시조』의 배경이 된 지는 오래다. 대봉동 일대를 중심으로 한 대구의 서화는 영남의 사상과 정신, 예술의 경계를 보여준 역사이다. 특히, 대봉동과 계산성당 일대, 그리고 대구의 곳곳에 흔적처럼 남아 있는 서화의 역사는 D-콘텐츠의 가능성을 품고 있다. 다시 말해 대구의 서화는 대구의 정신과 예술, 공간과 역사를 응축한 예술 콘텐츠로서 성장 가능성을 강력하게 내재하고 있다.

그리고 북구 금호강 유역의 ‘서원’과 ‘강안문화(江岸文化)’ 역시 D 역사 콘텐츠의 주요 과제이다. 금호강의 역사성을 예술적으로 전면화한 강안문화를 새로운 생태 콘텐츠로 전환함으로써 대구의 새로운 도시 콘텐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로컬 크리에이터(Local Creator)에 대한 관심이 높다. 지역의 문화자산과 생활 생태계를 기반으로 새로운 도시 가치를 만들고 있는 창업 및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하고 있다. 그들을 ‘D-콘텐츠 크리에이터’라 불러도 좋을 것이다. 이제 지역은 지역 콘텐츠의 발굴과 발견, 새로운 가치 증폭을 통해 대구라는 도시 혁명을 준비해야 할 때다.

D(대구)-콘텐츠는 살아있다

2-2

‘대구콘텐츠(이하 D-콘텐츠)는 살아있다’라는 주제를 받았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은 ‘D-콘텐츠가 살아있다’고 굳이 말해야 하는가이다. D-콘텐츠는 살아있는 게 분명하고, 이제까지 우리에게 전해져 왔고, 지금도 D-콘텐츠를 직접 생산하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소비는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왜 우리는 살아있다고 주장해야 하는가? 이는 지방에 휘몰아치고 있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이라는 이슈와 연동되는 듯하다. 마스다 히로야의 저서 『지방 소멸(地方消滅)』은 인구감소로 지방자치단체가 소멸한다는 내용을 담아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이후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의 문제를 ‘지방소멸(地方消滅)’이라는 단어로 통칭한다.

인구감소는 경제활동, 거주환경 등 정주여건의 악화로 이어져 농촌 및 지방중소도시 침체와 과소지역화 등의 문제를 야기함으로써 지방소멸 위기를 증대시키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는 없어질 수 있으나 지방이 소멸(사라져 없어짐)되는 것은 있을 수 없고, 단지 서서히 쇠퇴해갈 뿐이므로 ‘지방소멸’보다는 ‘지방쇠퇴’가 적절한 용어이다.¹⁾혹자는 이러한 쇠퇴 위기를 보다 극적으로 표현하여 위기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쇠퇴(地方衰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최정수, ‘지방쇠퇴시대 경북의 지역적 응력 제고방안’, 2020)

지방의 인구감소는 콘텐츠를 창출하는 크리에이터들의 모집단과 콘텐츠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콘텐츠 시장의 축소로 콘텐츠 감소는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콘텐츠 감소는 또 다른 형태의 지방쇠퇴이다. 지역콘텐츠가 만들어지지 않는 상태야말로 진정한 지방소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일은 있을 수가 없다. 지역콘텐츠는 지역민에 의해 계속 만들어져 왔고 제품, 상품이라는 형태로 성장과 쇠퇴를 반복하고 있다. 지역민이 지역에서 생활하고 살아가는 한, 유형이 다양할 뿐 지역콘텐츠는 지속적으로 생성되기 때문이다. 단지 이것이 어느 정도의 매력을

갖는지, 사람들이 이 매력에 얼마만큼 매료되는지, 그래서 얼마나 팔리는지 차이가 있을 뿐, 지역은 콘텐츠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다.²⁾문화산업 관점에서 제품·상품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기 전의 텍스트를 ‘문화원형’, 이 텍스트를 토대로 의미와 상징을 재해석하여 제품·상품화한 것을 ‘문화콘텐츠’로 구분하기도 한다.

얼마 전 대구문화재단, 대구관광재단, 대구오페라재단, 문화예술회관, 콘서트하우스, 대구미술관의 6개 기관을 통합하여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이 새롭게 출범하였다. 진흥원은 ‘글로벌 첨단 문화콘텐츠 도시를 선도하는 컨트롤타워’를 비전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한 5대 전략과 15개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추진과제로는 대구국제오페라축제의 ‘세계 5대 오페라축제’ 도약, 대구간송미술관·대구미술관 부속동 완공을 통한 세계적 수준의 시각클러스터 조성, 기관별 유기적 네트워크·기능적 협력 시스템 구축, 250만 대구시민 참여 메세나(Mecenat) 운동 전개를 제시하면서 효율성을 기치에 둔 전반적인 조직 경영혁신, 문화예술관광의 창의적 융복합을 바탕으로 한 경쟁력 있는 D-콘텐츠 개발, 시립예술단의 강력한 체질 개선, 문화도시 메세나 운동 전개에 집중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지역의 문화예술과 관련한 중요한 기관이 비전으로 글로벌 첨단 문화콘텐츠 도시를 지향하고, 문화예술관광의 창의적 융복합을 바탕으로 경쟁력 있는 D-콘텐츠 개발에 집중하겠다고 천명하는 점에서 지역의 콘텐츠 즉, D-콘텐츠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지방소멸시대에 대응하면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D-콘텐츠의 ‘살아있음’을 다시 한번 들여다볼 필요는 매우 충분하다고 본다.

D-콘텐츠, 대구사람이 만들고 지역창작자들이 다듬어 키워간다

D-콘텐츠는 무엇일까? D-콘텐츠는 ‘대구’라는 지역성 측면에서 타지역 콘텐츠와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D-콘텐츠는 대구라는 지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 의해 생성되는 문화콘텐츠이다. 문화는 공간의 스케일과 상관없이 누구라도 공감할 수 있는 공공재의 성격을 띠면서도 그 공간에서 살아온 사람들만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 제한적인 특성을 띠고 있다.³⁾최정수, 『북성로 100년 거리 조성방향』, 대구경북연구원, 2017 따라서 D-콘텐츠는 대구라는 특정 공간을 토대로 역사적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이루어놓은 유무형의 자취, 넓은 의미의 문화를 토대로 의미와 상징을 재해석하여 문화상품화한 것이다. 여기서 ‘문화상품화’란 사람들에게 지역성을 은연중에 인식하게 하는 과정으로, 문화상품화를 통해 D-콘텐츠로 호명된다. 이런 측면에서 지역학⁴⁾지역학은 사람들이 생성한 유무형의 자취를 학제적 접근과 현재, 과거, 미래를 포함하는 종합적 관점으로 분석 및 고찰함으로써 대구 지역을 보다 나은 삶의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는데 기여하는 학문이다. 지역학 연구의 결과로 지역주민은 지역주민으로서의 고유한 지역 정체성을 인식·강화하고, 나아가 지역의 문화다양성을 풍부하게 한다.(최정수, “대구학과 지역문화진흥”, 『대문』 26호, 2018)과 지역콘텐츠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도 하다. 지역학은 ‘대구’에 기반한 콘텐츠를 만들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 정체성 강화와 문화다양성 제고에 기여한다. 이에 대구시에서는 지역학 강좌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등 관심을 기울여 왔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이처럼 개념적 측면에서 D-콘텐츠를 정의하기보다 실제적·구체적인 D-콘텐츠 사례를 살펴보는 것이 D-콘텐츠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듯하다. 개인적으로 가장 최근에 접한 D-콘텐츠는 창작뮤지컬 <모하당 김충선-그가 꿈꾸는 세상>과 대명공연예술센터의 ‘대명동엔 작가가 산다’이다. 이들 두 콘텐츠는 D-콘텐츠라는 지역적 범위에 대한 사고의 확장을 가져다주었다.

먼저 <모하당 김충선-그가 꿈꾸는 세상>은 ‘2022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의 일환으로 달성문화재단이 김충선 장군을 소재로 제작한 창작뮤지컬이다. 모하당 김충선(일본명 야가)은 이른바 ‘항왜’의 대표적 인물로, 임진왜란 당시 일본 장수 가토 기요마사(加藤清正)의 선봉장으로 조선 정벌을 위해 참전하였다가 명분 없는 전쟁에 회한을 느끼고 수하 3,000명을 거느리고 조

선에 투항하였다. 이후 조선 군병으로서 임진왜란 뿐만 아니라 이괄의 난, 병자호란 등 여러 전쟁에서 공을 세워 충절보국(忠節保國)의 삶을 살았고, 선조(宣祖)는 그 공로를 인정하여 김해김씨의 성씨, 충선(忠善)이라는 이름, 모하당(慕夏堂)이라는 호를 내려 주었다. 그가 정착하여 사망한 달성군 가창면 우록리에 그의 위업을 기려 정조 18년(1794년) 준공된 녹동서원이 있다. 창작뮤지컬을 보고 남긴 후기에 의하면, 역사적 인물의 이야기를 단순히 흥보물, 책 등의 텍스트가 아닌 뮤지컬 공연으로 봄으로써 다양한 연령대가 함께 접하고 공유할 계기를 마련했고, 이로 인해 우록마을과 녹동서원에 대한 관심이 생겼다고 한다. 이처럼 <모하당 김충선-그가 꿈꾸는 세상>은 지역 고유의 역사성을 이야기한 점을 높이 평가받아 선정된 만큼 역사적 인물을 재조명하고 지역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을 유인하고 있다.



사진 1. <모하당 김충선-그가 꿈꾸는 세상>의 팜플렛
(출처=팜플렛 스캔)



사진 2. <모하당 김충선-그가 꿈꾸는 세상>의 무대인사 전경
(출처=필자 제공)

사실 지역문화콘텐츠 제작 지원사업에서 선정되는 대부분의 콘텐츠들이 이처럼 지역 인물이나 역사적 장소, 사건 등을 원천으로 한 것들이다. 일례로, 대구문화재단이 대구 문화예술인 가치확산을 위해 근현대 문화예술 인물 12인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는 ‘문화인물 콘텐츠 제작 지원사업’⁵⁾을 해 지역 문화예술인을 발굴·현장사업에 선정된 사업은 ‘최계복 사진작품 연구 및 활동의 역사적 의의(대구사진연구소)’, ‘독립운동가이자 서화가 궁석 김진만 작품전과 학술세미나(대구서학회)’, ‘대구 피아노 대모 피아니스트 이경희를 만나다(반율문화예술협동조합)’의 3개다.(대구문화예술진흥원 공지사항, 지역 문화예술인을 발굴·현장사업 선정 결과 공고, 2022.5.30.)을 들 수 있다. 또한, 대구문화재단 및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의 지역콘텐츠 지원사업을 통해 전태일, 홍해성, 이장희, 왕건, 약전골목, 진골목, 국채보상운동, 2,28 민주운동, 공산전투 등을 소재로 만들어진 작품도 있다.⁶⁾ 최근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의 지역특화콘텐츠 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제작된 메타버스 창작뮤지컬 <태조 왕건 공간에 겪을 묻다>가 메타버스 뮤지컬 씨어터 ‘아르스’에서 공연하였다.(안컴퍼니 블로그) 이처럼 지역 인물이나 지역

에서 일어나 역사적 사건을 소재로 한 작품이 많은 것은 누구도 이것이 지역콘텐츠인지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지자체의 지원을 유도하기 쉽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향은 지역콘텐츠에 고정관념을 고착화해 지역적 범위에 대한 편협한 시각을 키울 수 있다.

반면, ‘대명동에 작가가 산다 : 대본쓰기 프로젝트’는 지역콘텐츠의 창작과 활성화를 위한 선순환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면서 지역콘텐츠의 범위를 확장시키고 있다. ‘대명동에 작가가 산다 : 대본쓰기 프로젝트’는 대명공연예술센터에서 진행하는 전문인력 육성 프로젝트로, 2019년부터 시작해 올해 4년째에 접어들고 있다. 이 대본쓰기 프로젝트는 말 그대로 기성 작가를 멘토로 모시고 강의를 통해 피드백을 받으면서 직접 글을 쓰고 작품을 완성해 나가는 과정이다. 강의가



자료 1. 지역인물이나 역사적 사건 등을 소재로 한 지역콘텐츠 사례(출처=대구문화예술진흥원 블로그, 딤프, 공연예술통합전산망, NewDaily)
전태일-네 이름이 무엇이냐
(전태일)
비 갠 하늘
(권기옥)
55일
(진동강전투)
들불
(2.28민주운동)
태조 왕건 공간에 겪을 묻다
(왕건과 공산전투)

끝나고 완성된 작품은 지역 배우들이 참여하여 낭독회를 가지고 작품의 무대화 가능성을 탐색한다. 심사를 통해 무대화 가능성이 보이는 작품을 선정하여 쇼케이스 공연으로 제작하여 지역연출가와 함께 무대에 올린다.

지난 11월에는 소극장 길에서 <밤낚시>의 쇼케이스와 올해 완성된 작품의 낭독회가 있었다. 낭독회를 거쳐 작품을 수정한 후 대본집을 발간하여 서점을 통해 판매도 하고 도서관, 연극 관련 학과 등에도 전달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탄생한 희곡은 실제 연극 무대에 적잖게 올랐다고 한다. <OLT>, <아무개>(이상 박세향 작), <마지막 편지> (우호정 작), <호아티의 행복한 인생>(이지언 작), <대구장 가는 버스>(강신욱 작), <찬란한 여름>(박

소영 작)은 공연으로 관객과 만난 바 있다.⁷⁾ ‘대명동엔 작가가 산다’ 낭독극 발표회, 『매일신문』, 2021.11.04. 박세향 작가⁸⁾ 대구에서 배우와 극작가로 활동하고 있다.의 <노을이 너무 예뻐서>는 2021년 부산일보 신춘문예 희곡부문에 당선되어 2022년 4월 7일부터 10일까지 극단 수작에 의해 골목실험극장에서 상연되는 등 대구공연콘텐츠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이처럼 ‘대명동 작가가 산다’의 작가 발굴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공연콘텐츠 레퍼토리를 확보함으로써 연극, 뮤지컬 등 창작공연 활성화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선순환적 창작생태계는 지역콘텐츠의 지속적 창출을 지지함으로써 D-콘텐츠 생산과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대명동에 작가가 산다 : 대본쓰기 프로젝트’는 지역인물이나 역사적 사건 등의 제한

적 소재에서 벗어나 지역작가에 의해 창조된 지역콘텐츠의 지속가능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지역작가로 하여금 로컬의 요소와 감성 등을 작품에 녹여내어 지역콘텐츠 원천이 되는 대본을 창작하고, 대본이 담긴 작품집을 출간하여 지역창작자들에게 연극을 제작하게 하고 있다. 이처럼 지역콘텐츠의 OSMU(One-Source Multi-Use)를 유도함으로써 지역콘텐츠 창작생태계 구축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콘텐츠를 지역인물이나 역사적 사건을 소재로 한 콘텐츠에서 벗어나 지역에서 활동하는 창작자들에 의해 창조된 모든 콘텐츠로 폭넓게 볼 필요가 있으며, 지역콘텐츠 창출 차원에서 지역예술인들의 작품활동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치’를 만들어내는 창업가이다.⁹⁾ 네이버 국어사전 신조어 (2021.06.02.) 즉, 로컬크리에이터는 지역자원을 기반으로 문화적 상품인 지역문화콘텐츠를 개발하여 사회문화적 가치뿐만 아니라 경제적 가치도 창출하는 이들이다.



사진 3, 4. FACTORY09 전경과 공구빵(출처=필자 제공)



자료 2. ‘대명동에 작가가 산다 : 대본쓰기 프로젝트’의 창작생태계와 D-콘텐츠화 과정(출처=대명공연예술센터 블로그, 대작가 페스티벌 팜플렛, 직접 발췌)

대구의 로컬 크리에이터, D-콘텐츠를 생활 속에 녹아내다

광의(廣義)의 지역콘텐츠도 지역민의 일상과 삶을 스토리화하여 모든 이들이 이를 공감할 수 있게 그려내어 작품성과 대중성을 확보한다면, 지속가능성을 담보 받을 수 있다. 소위 ‘로컬 크리에이터’에 의한 로컬 콘텐츠가 대표적이다. 일반적으로 로컬 크리에이터란 지역을 뜻하는 로컬(Local)과 콘텐츠를 제작하는 사람이라는 뜻의 크리에이터(Creator)를 합성한 단어로, 지역에 남거나 혹은 지역으로 돌아와 지역의 생활문화(Lifestyle) 및 유휴자원에 비즈니스모델을 접목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가

일례로, 북성로 공구골목의 기술과 스토리를 입힌 ‘북성로 공구빵’을 개발한 최현석 대표를 들 수 있다. 그는 북성로¹⁰⁾ 1990년대 인교동 공구상가와 연결되면서 1km 남짓한 거리가 대구 최대의 산업공구 골목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북성로 공구상들이 ‘이 골목 한 바퀴 돌면 텅크도 만들니다’는 말을 자신 있게 할 정도로, 북성로는 기계, 선박, 차량, 건축에 이르기까지 온갖 부품을 갖춘 만물상 거리이다.(김기홍, 이애란, 정혜진 글, 이지용 사진, 「골목을 걷다 : 이야기가 있는 동네 기행」, 서울:이매진, 2003, p.74)를

상징하는 볼트, 너트, 몽키스파너 등 공구를 빵에 접목시켜 공구빵을 개발하였다. 북성로에서 유일하게 남은 주물공장인 ‘선일포금’과 협업하여 제작한 빵틀로 공구 모양 빵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다. ‘made in 북성로’ 공모전 선정으로 공구빵틀을 제작하였고, 문화콘텐츠의 산업화를 돋는 ‘대구콘텐츠코리아랩’이 대구 대표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진행한 ‘브랜딩 프로젝트’ 공모전 선정을 통해 현실화하였으며, 현재 ‘FACTORY 09’라는 빵집을 운영하고 있다.¹¹⁾

티브로드 대구방송(2017.2.23.) 2021년에는 ‘대한민국 관광기념품 공모전’에서 ‘문화체육부장관상’을 수상하며 지역 특산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았다.¹²⁾ 대구신문(2022.5.23.)

2012년 대구 문학 대중화를 위한 인문예술공동체를 지향하여 설립된 ‘시인보호구역’은 ‘로컬 브랜드 리뷰 2022’ 프로젝트¹³⁾ 네이버 기술과 서비스의 사회적 가치를 조망하고 그 임팩트를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NAVER Agenda Research’에서 로컬 브랜드에 관심을 갖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머물고 싶은 동네가 뜬다’와 ‘골목길 자본론’의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모종린 교수와 연구팀이 함께

진행한 프로젝트이다.(아시아뉴스통신, 2022.5.18.)에서 대구·경북 지역의 유일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선정되었다. 시인보호구역 자체가 대구의 로컬 브랜드가 된 것이다. 시인보호구역은 북카페(독립 서적 판매), 독립문학예술잡지(시인보호구역) 발행, 북토크나 창작교실, 축제기획 등의 문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청년여행작가 양성학교나 시읽기, 시창작교실, 전시회 등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대구문학콘텐츠 창조 기반을 만들어가고 있다.

그 외 사회적기업 (주)지웍스가 동구 평광동 왕건사과마을의 사과를 활용해 만든 ‘왕건사과빵’, 대구를 기반으로 지역이 가지고 있는 인물, 사건 등 역사적 자원과 이야기를 국악으로 재해석하는 국악밴드 ‘나릿’, 북성로를 기반으로 도시문화 연구와 기술예술 융합을 추구하는 업사이클링 밴드 ‘훌라’ 등 많은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다양한 D-콘텐츠를 창출하여 비즈니스화하고 있다.

이처럼 로컬 크리에이터들은 지역 고유의 자원을 활용한 지역만의 라이프 스타일을 창조하면서 새로운 로컬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들의 로컬 생활이 전국적 인지도를 만들어가면서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로컬콘텐츠의 힘이 드러나고 있다.¹⁴⁾ 경북매일(<http://www.kbmaeil.com>) 중소벤처기업부는 로컬 크리에이터의 힘에 주목하여 2020년부터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사업을’ 처음으로 도입하여 지역가치 창업가¹⁵⁾ 지역가치 창업가는 지역의 자연적·문화적 특성을 소재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결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스타트업을 말하며, 지역가치 창업가 7대 분야로는 ① 거점브랜드 ② 지역가치 ③ 로컬푸드 ④ 지역기반제조 ⑤ 자연친화활동 ⑥ 지역특화관광 ⑦ 디지털문화체험이 있다.를 발굴하고 ‘로컬크리에이터 페스타’를 개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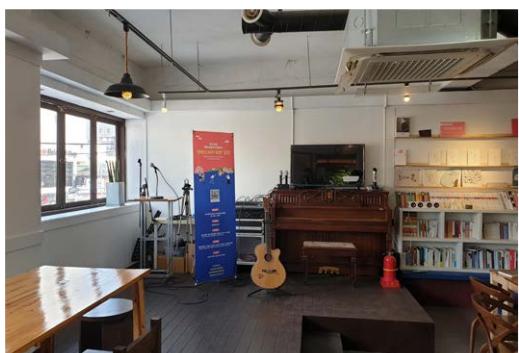


사진 5, 6. 시인보호구역(출처=필자 제공)

D-콘텐츠는 교육, 사회적혁신, 관광, 도시재생 등으로 영역 확장 중

또한, 지역콘텐츠는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의도로 교육, 관광, 도시재생 등의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 지역학콘텐츠는 지역이해교육^[16] 지역이해교육은 아동, 청소년, 성인 등 지역민들이 현재의 시점에서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특색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역에 대한 소속감과 자부심을 가진 주체로 성장하여 건전한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의 발전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관해 이해하고 실천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이다.을 위한 지역콘텐츠로서, 지역을 통한 학습, 지역에 의한 학습, 지역을 위한 학습^[17] 지역을 통한 학습은 특정 지역의 자료가 아니라 임의 지역의 자료를 활용하여 교과 내용을 이해하는 학습이며, 지역에 의한 학습과 지역을 위한 학습은 임의 지역이 아니라 특정 지역의 '지역특수적 지역콘텐츠'를 활용하는 것은 동일하나 지역에 의한 학습은 교과내용을 이해하는데, 그리고 지역을 위한 학습은 특정 지역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 것에서 차이가 있다.에 활용될 수 있다. 특히 지역을 위한 학습에는 지역을 이해하기 위해 지역 특수적인 콘텐츠가 필수적이다.

일례로, 대구에서 처음 시작된 '국채보상운동'은 대구에 특수적인 '지역콘텐츠'로서 대구시민의 진취적 시민정신에 대한 이해를 제고한다. 이처럼 D-콘텐츠는 대구시민뿐만 아니라 타지역민들에게 대구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도 학생들에게 지역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내 고장 대구·경북 다시보기' 교재를 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영상콘텐츠를 비롯하여 학생과 교사들이 만든 다양한 학습콘텐츠를 담은 웹사이트와 모바일앱을 운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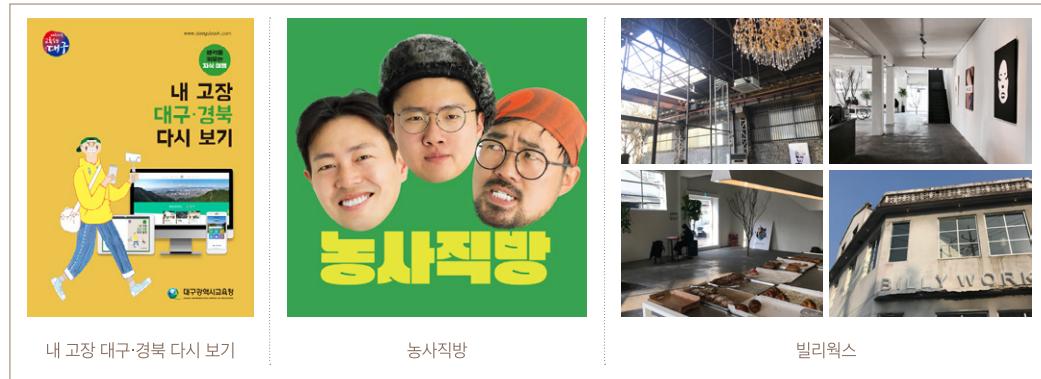
그리고 대구의 강남이라 불리우는 수성구에서 거주지역과 농업지역이 상존하는 지역성을 기반으로 도시농업을 확산시키고 있는 농사직방^[18] 희망토는 유튜브 채널 '농사직방'을 운영하면서 농사의 중요성과 친환경 먹거리에 대한 인식 전환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다양한 주제의 영상콘텐츠를 제작하여 방영하고 있다.은 농업을 통한 사회적혁신을 지향하는 D-콘텐츠로 확장되고 있으며, 근대산업의

중심지였던 대구시 북구 고성동의 오래된 철강공장과 교회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식문화·전시·공연·패션·예술 등이 공존하는 복합문화공간 '빌리웍스', 기존의 폐공장을 친환경 도시재생의 일환으로 기획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창출하는 복합문화공간 '2GARDEN' 등 카페와 같은 상업공간에서조차 지역의 로컬성을 입혀 본질적으로 지역을 계속 찾게 함으로써 지역 활성화나 도시재생 등에 기여하고 있다.^[19]빌리웍스와 2GARDEN은 대구관광재단의 천년 대구를 거닐다 대구건축문화기행의 대표코스 '대구 르네상스'에 포함되어 있다.

우리는 D-콘텐츠를 만들고 있다

우리는 살아있다. 고로 D-콘텐츠는 살아있다 우리는 이미 D-콘텐츠를 만들고 있는 크리에이터일지도 모른다. 우리는 현재 대구에서 살아가면서 의도하든 안 하든 D-콘텐츠를 만들고 소비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 D-콘텐츠를 굳이 지역인물이나 지역스토리에 기반하여 창조한 콘텐츠로 한정할 필요도 없다. 작품성과 대중성을 인정받아 인지도가 쌓이는 어느 순간 D-콘텐츠로 호명되고 있을 것이다. 대구의 여러 다양한 지역콘텐츠 중 D-콘텐츠로 인정받고, D-콘텐츠가 세계적 인지도를 쌓아 브랜드를 구축하면 소위 K-콘텐츠가 되는 것이다.

의도가 있든 없든 대구사람은 대구에서 살아가면서 D-콘텐츠를 만들고 있다. 또한, D-콘텐츠를 소비하면서 재생산하고 있다. 대구사람이 존재하는 한 D-콘텐츠는 계속된다.



자료 3. 지역 특수적인 콘텐츠 사례(출처=내 고장 대구·경북 다시 보기 웹사이트, 유튜브 농사직방, 직접 촬영)

K-문화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주가를 높이는 가운데, 지역의 문화자원(인물, 역사, 환경, 생활 등)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 스토리 콘텐츠도 전성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우리 (대구)지역도 지역 스토리 콘텐츠 개발에 가속도를 내면서 그 역할이 두드러지고 있다. 오페라, 연극, 뮤지컬, 생활연극 등 다양한 장르에서 지역 스토리를 테마로 삼으면서 지역 소재는 비싼 몸이 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작가, 연출가, 소극장 문화들이 연동되며 지역의 고유한 문화생태계를 복원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세계에서 K-콘텐츠에 주목하고 있는 지금, 대구의 스토리 콘텐츠는 세계 속 D-콘텐츠로 성장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필자는 ‘지역 스토리 콘텐츠의 전성시대’ 현상을 대구지역 소극장, 작가, 스토리 개발에 중점을 두고 살펴보고자 한다.

‘지역 스토리 콘텐츠’의 전성시대

대구는 지금 소극장 열풍시대

대구지역 전문 소극장은 14개 정도로 ‘아트플러스시어터 예술극장’과 ‘예술극장 온’을 제외한 12개 소극장이 ‘대명공연거리’를 중심으로 다양한 창작 작품들을 생산적으로 공연하고 있다. 공연극장과 극단 운영을 통해 지속적인 레퍼토리를 개발하고 있으며, 지역의 스토리(역사, 인물, 도시공간, 생활 풍경과 소시민들의 삶과 애환)를 다루는 보편적 소재들이 증가하는 추세다. 생산적인 스토리 개발의 사례 역시 연극, 오페라, 뮤지컬, 축제 등에서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예술도시로서의 변화와 정착은 지자체의 문화정책과 육성으로 그 방향이 정해진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대구는 문화재단의 설립과 창작 지원제도가 매우 안정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 지역 특성화 콘텐츠 발굴, 대명공연거리 활성화, 대구시립극단의 지역 소재 발굴,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이하 디프)등이 공연예술도시로서 창작 환경 기반을 형성하고 있어 다양한 지역 스토리 콘텐츠들이 개발되고 있다. 작가를 중심으로 공연이라는 생산적인 결과로 확장되어 지역문화가 정착되어 간다고 볼 수 있는데, 대구는 등단을 통해 활동하는 작가군이 넓은 것이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故 이만택, 故 이영규, 최현묵, 안희철, 신철우, 박세향 등이 있으며 김재석, 김재만, 윤정인, 김하나, 박선희, 정민경, 이나경, 손호석, 이재용, 김미정 등은 전업 작가와 연출을 통해 활동하고 있다.

특히 지역 소재는 대중적인 작가와 극단을 중심으로 창작되어 왔지만, 민예총(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계열의 극단과 작가 그리고 작품에서도 활용되어왔다. 이러한 분위기로 인해 작가들의 창작

활동과 지역공연문화 활성화 및 지역 소재 스토리 발굴도 안정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지속적인 지역 소재 콘텐츠 발굴과 높은 작품성과 무대 미학이 함께 할 수 있는 환경이 가능한 이유는 몇 가지로 추려서 생각해 볼 수 있다. ① 지자체와 문화재단의 지원사업 확대 ② 대명공연거리의 활성화 ③ 대구 지역극단과 창작활동의 증가 ④ 대명공연예술센터의 작가양성 프로그램 ‘대명동에는 작가가 산다’를 통한 지속적인 지역 스토리 콘텐츠 개발 ⑤ 20대 후반에서 30대 젊은 연극 창작자들이 지역을 이탈하지 않고 실험적인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라 할 수 있겠다.

대구시립극단 지역 소재 발굴

대구시립극단이 지역 소재 콘텐츠 개발로 시도된 첫 사례는 이상원 감독(2002~2007)의 ‘지역 연극 시리즈’라고 할 수 있다. 이 시리즈를 통해 지역민의 삶과 정서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소재들이 발굴되었는데, 이를 통해 지역 소재에 대한 문화계의 관심이 점화되기 시작했다.

대구를 무대로 한 토종연극 1호로 개발된 작품은 2003년 대구시립극단 정기공연으로 오른 안희철 작, 이상원 감독의 <동화 세탁소>라 할 수 있다. 대구지역의 역사 인식을 환기할 수 있는 2.28민주 운동과 같은 역사 소재 작품들이 공연된 사례들이 있었으나, 지역 인물과 삶을 보편적인 연극 소재로

다루기 시작했다는 점이 이전의 사례와 두드러지게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안희철 작가는 <동화 세탁소>의 발표를 시작으로 지역 인물, 역사, 도시의 스토리를 소재로 22편의 연극과 뮤지컬을 제작하였고, 작품성을 인정받으며 역사극으로만 소비되던 지역 소재 콘텐츠의 한계성을 작품성과 예술성을 통해 회복했다. 이를 통해 현대적인 지역의 풍경과 삶을 희곡화한 1세대 작가로서 인정받고 있다.

<동화 세탁소>는 무허가 성공매업소가 모여있던 대구 도원동 자갈마당의 '금수세탁공장'에서 벌어지는 삼류 인생들의 애환을 그린 작품이다. 이 작품은 대구의 역사 소재에서 지역의 생활 풍경과 삶, 소시민들의 애환을 그려낸 첫 시도의 작품이다. 당시 공연에서는 대구 사투리를 극 중 일부 인물을 통해 그대로 무대화해 실제 지역 정서와 공감을 얻었고 쌍절곤과 스포츠댄스를 활용한 '세탁소 쇼'와 애니메이션 영상까지 무대 소재로 동원되었다. 극 중 인물인 안젤라와 진석의 꿈속 결혼장면에서는 무대

전면을 활용하기 위해 드라이아이스와 바닥 전구를 이용한 조명효과를 사용했고, 6명의 리본 체조단장면도 환상적인 장면으로 연출되었다. 이 작품을 연출한 이상원 감독은 "그동안 대구연극에서 볼 수 없던 스펙터클한 무대가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상원 감독의 말처럼 <동화 세탁소>는 그동안 무거운 연극 일색이었던 시립극단의 레퍼토리에서 파격적인 작품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작품은 기존에 발표되었던 창작극, 번역극, 고전극을 현대극으로 재창작하여 무대에 올렸던 대구시립극단의 관행을 깨고 지속가능한 작품성으로 관객들에게 공감과 지지를 얻었다. 안희철 작가는 이 작품의 성공과 가능성으로 연극 <동화 세탁소>를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이하, 딤프)이 유치되기 이전 2004년에 뮤지컬 작품으로 각색해 발표한다. 그리고 대구문화재단 설립 이전인 2007년에는 대구의 대표거리인 약전골목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창작 뮤지컬 <히브로드>를 발표한다.



사진 1. <동화세탁소>, 2003(출처=극단 초이스시어터 안희철 작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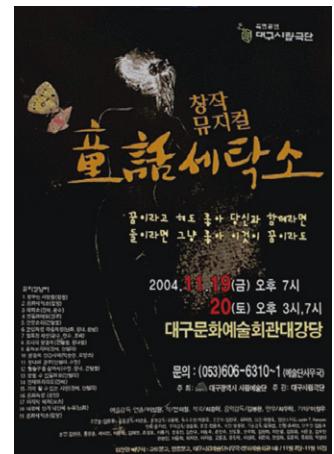


사진 2. <동화세탁소>, 2004(출처=극단 초이스시어터 안희철 작가)

무거운 주제와 소재로만 다루어지던 대구의 이야기가 안희철 작가의 등장을 기점으로 도시를 배경으로 한 사건과 시민들의 삶, 애환을 중심으로 한 지역의 보편적인 소재가 지속적으로 무대화되었다.

<동화세탁소>의 성공을 발판 삼아 대구시립극단은 대구 출신 천재 화가 이인성 작가의 일대기를 '지역 연극 시리즈'의 두 번째 테마로 선택한다. 이 작품은 2003년 대구시립극단 정기공연 <노을 앞에서>로 신철욱 극본, 이국희 연출로 공연되었다. 이 작품이 주목받은 이유는 지역 콘텐츠를 무대화한 희곡의 대부분이 지역 고유의 역사 인식을 활기 할 수 있는 극적인 장치와 드라마가 미흡한 채로 인물과 역사를 나열하는 방식으로 조명하였는데, <노을 앞에서>는 배우들의 비중을 줄이고 몸짓, 소리, 음악, 빛 등의 오브제를 활용해 실험적이면서도 대중적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려냈기 때문이다. 대사보다 신체 언어를 통해 이인성의 삶과 예술세계를 보여주고자 했으며, 이를 통해 지역 관객과 새로운 공감을 시도한 작품이었다. 이 작품의 발표 이후 뮤지컬 도시로의 탈바꿈과 함께 대구시립극단은 활성화 전략의 일환으로 지역 소재 창작 뮤지컬을 선택하게 된다. 지역 소재 특성화를 시도하면서, 소재 발굴과 스토리 콘텐츠의 가능성으로 연극 소재에서 창작 뮤지컬로 제2기의 전환을 시도한다는 점이 두드러진 변화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대구 소재 창작 뮤지컬은 역사 소재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이다. 최주환 예술 감독 이후부터는 지역 역사와 인물 소재를 창작 뮤지컬로 개발해 유료 관객 증가 및 시민들의 공연 관람 참여도가 높아져 대중적인 시립극단으로 전환하는 시도를 했다. 우리나라 최초의 비행사이자 독립운동가인 권기옥의 삶을 뮤지컬로 다룬 <비 갠

하늘>(작 안희철, 연출 최주환)을 2016년도에 선보이면서 총 2회 공연 객석 점유율 중 유료 관객이 92%로 관객 2천8백여 명(팔공홀)이 유료로 관람했다. 대구시립극단 유료 관객 비중이 평균 70%대를 넘어서면서 지역 소재 창작 뮤지컬이 대중적 관심을 유도한다는 것과 지역 소재가 지속 가능한 성공 콘텐츠로 활성화되어 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성공적인 결과로 2018년도에는 대구사범학교 학생들의 항일운동 역사성을 소환한 창작 뮤지컬 <반딧불>(작 박선희, 연출 최주환)을 대구 수성아트피아 용지홀에서 초연(初演)하면서 시민들의 높은 관심을 유도했다. <반딧불>은 총 3회 공연으로 1천5백 명이 관람했고, 그중 85%가 유료 관람객이었다. 지역 역사를 소재로한 창작 뮤지컬의 흥행 가능성을 증명하는 작품이 되었다.

이 작품은 당시 개국 23주년을 맞은 지역 민영 방송 TBC와 공동 제작되어 뮤지멘터리¹⁾뮤지컬과 다큐멘터리의 합성으로 방영되어 방송통신위원회가 선정하는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으로 선정되었다. 지역 소재를 바탕으로 하는 대구시립극단의 창작 뮤지컬 특성화로 연극문화 불모지였던 대구는 공연예술의 대중성을 회복하고 관객 및 유료 관객 증가, 창작 뮤지컬 전문 인력(작가 및 작곡가, 뮤지컬 배우, 지역 소재 발굴) 양성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결과가 가능한 배경에는 대구가 '국제적인 뮤지컬 도시'를 표방하고 있고, 시(市)의 문화육성 정책, 문화재단의 출범으로 문화관련 지원예산의 증대로 인한 공연문화 생태계 활성화 등이 있다.

대구시와 대구문화예술진흥원(舊 대구문화재단)이 지역 예술단체의 지원 확대, 문화재단의 민간극단 소극장화, 공격적인 지역 역사 소재 수용과 지

원제도, 근대 인물 발굴 등 도시문화 환경의 변화 기틀을 마련해 지속가능한 지역 스토리 발굴이 이루어졌다는 점과 작가가 스토리 창작을 할 수 있는 공연예술도시로 변화되었다는 점이 지역 소재 발굴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 창작환경의 변화와 지역 문화정책 지원을 받은 작품들이 생산적으로 발표되면서, 안희철 작가도 지역 소재를 테마로 한 작품들을 꾸준하게 발표하고 있다. 특히 연극, 뮤지컬, 오페라 장르까지 지역 소재의 적용성을 확장하고 있다. 그리고 작품의 대중성과 예술적인 성과로 이어진 작품 중 다수가 그의 작품이라는 점에서 지역 작가 중 가장 많은 소재를 발굴하고 성공시킨 작가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

작가 안희철의 지역 소재 작품성

안희철 작가는 1988 계간 『오늘의 문학』 희곡 부문 신인상으로 등단한 뒤 『부산일보』, 『전남일보』 신춘문예 희곡 부문에 2001년 당선되었다. 대구를 거점으로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앞서 서술한 것처럼 지역 소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공연 콘텐츠에 적용하며 대중적 성공을 거두어왔다. 그의 작품은 특정한 장르에 국한되지 않으며 연극, 뮤지컬, 오페라, 지역 공간 스토리텔링까지 장르가 광범위한 것이 특징이다. 대구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작가 가운데 탈 연극 장르를 포함해 지역 소재를 가장 많이 발표해온 작가이다. 역사, 시대의 삶과 풍

경, 시민들의 애환, 도시 이야기 등 그의 소재는 보편적인 소재를 다루면서도 작품성, 예술성, 대중성을 고루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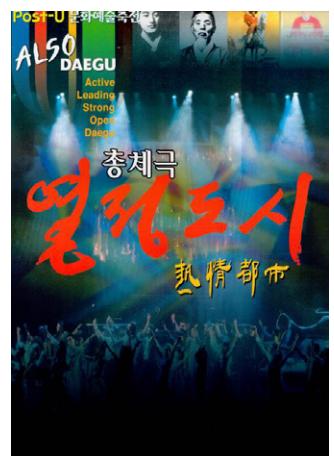


사진 3. <열정도시>, 2004(출처=극단 초이스시어터 안희철 작가)

안희철 작가 이전 지역 연극 환경은 번역극, 창작극, 고전극, 현대극과 실험극으로 연극 환경의 무대를 이탈하지 않고 보편적 작품활동으로 공연이 이어졌다면, 안희철 작가의 지역 소재 개발과 성공으로 작품의 소재가 지역 관객들의 삶과 밀착되는 소재로 변화되었다는 점이다. 안희철 작가는 <동화 세탁소>(2003) 성공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지역 소재를 다루기 시작한다. 임진왜란과 일제 강점기 지역의 근현대사에 이르기까지 대구에서 살아가는 역사적 인물과 소시민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열정도시>(2004)는 대구의 갓바위가 기울었다는 허구적 모티브를 배경으로 이야기가 펼쳐진다. 총체극으로 결합 된 작품에서는 합창, 판소리, 라이브 연주로 지역 소재를 입체감 있게 살렸으며, 대구를 상징하는 이상화, 서상돈, 곽재우, 김충선 등의 역

사적 인물은 영상을 통해 표현하고 무대는 갓바위가 기울고 있는 형상으로 수직화했다. 역사적 인물의 소환은 무당의 접신(接神)을 통해 양식화시키고 굿의 원형보다는 재현적 특징으로 무대화했다. 무대는 상징과 기호로 허구적 모티브를 총체적으로 시도하면서 지역의 역사적인 소재를 보편화해 관객의 관심을 높이는 작품이 되었다. <동화 세탁소>와 <열정도시>의 무대화가 지역 소재 가능성을 인식시키는 작품이 되면서 이후 지역 소재 콘텐츠의 무대화를 본격적으로 시도한다.

역사 소재에서

대구 근현대 생활 풍경으로 전환

안희철 작가는 뮤지컬 버전 <동화 세탁소>, 총체극 <열정도시>에서 발견한 가능성을 바탕으로 대구의 근현대사에 얹힌 한 가족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여기는 대구다>(2006)를 발표하였다. 그 후 극단 초이스시어터 최주환 연출과 함께 팔공산 부인사 초조대장경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연극 <데자뷰>(2011)를 이듬해 창작 뮤지컬로 각색하여 연극의 한정된 장르를 이탈해 전 방위적인 지역 소재를 다루기 시작한다. 작품은 부인사에 문화재 도난 범죄가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이규환 형사가 사건 해결을 위해 찾아오는 것으로 시작된다. 고려시대 초조대장경을 만들 당시와 현재 부인사의 얹힌 데자뷰들이 과거와 현재로 오마주되면서 '윤회(輪

廻)'를 극적으로 그려냈다. 연극으로 발표했던 작품을 총체극과 창작 뮤지컬로 탈바꿈하고 그것이 성공을 거두면서 안희철 작가는 지역 소재를 다양한 장르로 재창작 발표하거나, 원작 희곡을 뮤지컬화는 새로운 방식을 시도한다.

작품에서 발견된 문제들을 수정 보완해 발표하는데 연극과 뮤지컬 버전의 <동화 세탁소>는 창작 뮤지컬 <화이트데이>로 공연하고, 지역 소재를 발굴하여 창작 뮤지컬화 하는 시도를 하게 되는데 그 시도를 통해 나온 첫 작품이 <허브로드>(2007)이다.

<허브로드>는 대구 약전골목에서 살아가는 인물들의 이야기를 다루며 지역 소재 창작 뮤지컬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350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진 약전골목은 예전부터 질 좋은 한약재를 구할 수 있는 한방약재 구입의 통로였다. 약전골목을 중심으로 형성된 인근 공간은 <허브로드>에서 나오는 것처럼 과거와 현재가 모두 담겨있는 곳이다. 과거 관덕당(觀德堂) 옛터와 유신과 80년대를 풍미했던 운동권 학사주점 곡주사, 민족시인 이상화 고택, 영남지역 최초의 서양식 건축물 계산성당, 극에서도 등장하는 대구·경북 최초의 개신교 교회 구 제일교회 등 대구의 산 역사를 담은 수많은 곳이 산재해 있다. 이처럼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약전골목이 '허브로드'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이야기는 지역의 역사적 전통성을 현대의 창작 뮤지컬로 담아 발전·보전하자는 취지가 있으면서도 지역 관객들한테 친숙한 배경으로 자연스럽게 공감할 수밖에 없는 무대였다. 이후 안희철 작가는 대구문화재단의 설립(2008)과 제1회 '대구국제뮤지컬 페스티벌'이 개막되면서 연극, 뮤지컬의 지원 활성화와 지역문화의 환경변화로 지역 소재 발굴을 적극적으로 다루

게 된다. 뮤지컬로는 일제 강점기 대구 진골목의 건 달들과 독립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진골목 용진 당파>, 한국 산업화 시대 대구 고모령에 얹힌 한 가족의 이야기 <비 내리는 고모령>(2013), 경상북도 영주 소수서원에 배향된 안향 선생의 이야기 <구름에 마음 태우고>, 대구 수성못 등을 배경으로 하는 <미쓰코리아>(2015) 등이 있다. 한국 최초의 여성 비행사이자 독립운동가 권기옥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비상>(2016)은 연극과 뮤지컬 버전 <비 간 하늘>로 공연되었다.

연극 <비상>은 권기옥이 평양송의여학교 재학 시절 3·1 만세운동 시기를 기점으로 점화된 그녀의 민족애와 독립운동, 비행사의 꿈, 그리고 평남도경 폭파사건으로 중국으로 밀항, 운남비행학교 시절, 중국에서의 항일 독립운동, 선전 비행을 통한 일본 총독부 폭파계획을 다루고 있다. 이상정과의 만남과 결혼, 민족시인 이상화의 만남, 중일전쟁(1937) 이 일어나기 직전 일본에 중국의 기밀을 넘겼다는 협의로 체포돼 8개월간의 옥살이를 하고 무혐의로 석방되던 해까지 역사의 시간을 무대로 소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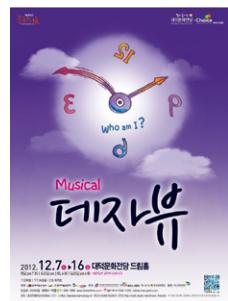


사진 4. 뮤지컬 <데자뉴>, 2012
(출처=극단 초이스시어터 안희철 작가)



사진 5. 뮤지컬 <비 내리는 고모령>, 2013
(출처=극단 초이스시어터 안희철 작가)



사진 6. 뮤지컬 <미쓰코리아>, 2015
(출처=극단 초이스시어터 안희철 작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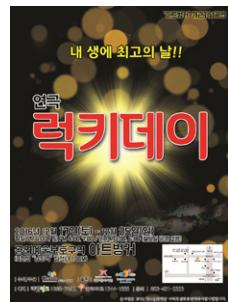


사진 7. 연극 <럭키데이>, 2016
(출처=극단 초이스시어터 안희철 작가)



사진 8. 뮤지컬 <비 간 하늘>, 2018
(출처=극단 초이스시어터 안희철 작가)



사진 9. <만나지 못한 친구>, 2018
(출처=극단 초이스시어터 안희철 작가)



사진 10. 연극 <비상>의 한 장면(출처=극단 초이스시어터 안희철 작가)

이 밖에도 안희철 작가는 현진건 소설 <운수 좋은 날>을 모티브로 해 일제 강점기부터 2.28까지 이어지는 한 가족의 역사를 다루는 <럭키데이> (2017)와 대구 출신의 영화감독 이규환의 삶을 다루는 <이규환, 나는 조선의 영화감독이다>(2016), 대구 출신의 전태일 열사와 조영래 변호사 이야기 <만나지 못한 친구>(2018), 한국 최초의 창작희곡집 저자이자 영남일보 사장을 지낸 김영보 선생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나의 세계로>(2019)를 발표했다. 음악학자이자 가곡 작곡가인 김진균 선생의 이야기를 다룬 연극 <김진균, 산 너머 저 하늘이>는 성악과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활용한 새로운 형식의 콘서트 연극이었다. 대구 달성군 도동서원의 이야기<도동서원, 황금 나무>(2021) 등 연극으로 지역 소재를 다루고 있는 작품은 14편, 뮤지컬로 재창작되거나 창작되어 발표한 작품은 11편으로 안

희철 작가는 지역 소재를 25편의 연극 및 뮤지컬로 발표하면서 지역 스토리 콘텐츠를 활발히 무대화하였다. 또한, 작품성면에서도 지역 소재의 예술적 가능성을 보여주며 작품 대다수가 고른 평가를 받았다. 이 밖에도 지역의 소재를 도시의 이야기로 스토리텔링 하여 공연한 작품과 축제 행사를 포함하면 발표된 작품은 40여 편 이상이다. 이러한 안희철 작가의 지역 소재의 탐구와 성공 가능성은 기존 역사와 인물의 한계적인 창작에서 탈피해 지역 소재를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보편적인 친근한 소재로 발표하고 있다. 지역 역사, 도시 이야기, 근현대 인물, 대구의 생활 풍경, 시민들의 삶과 애환을 다루면서도 스토리의 한계, 불안정한 무대 미학을 탈피해 공감하고 지속 가능한 대구 지역 소재 발굴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주목받는 로컬시네마, 대구독립영화

지난 3월 한국영상자료원의 로컬시네마 기획전에 대구 경북 영화들이 소개되었다. “좋아서 찾아보니 그 지역 영화더라”라는 소개 글과 함께 지역적 특색을 가지고 한계를 넘어서 작품을 만들고 있는 로컬 영화를 살펴보는 기획, 그 첫 번째 순서로 대구경북 기획전이 열린 것이다.



사진 1. 김정원 감독 <희수> 스틸컷(출처=대구경북독립영화협회)



사진 2. 박재현 감독 <나랑 아니면> 스틸컷(출처=대구경북독립영화협회)

2021년 전북독립영화제 대상작인 김정원 감독의 <희수>를 포함 총 8편의 장편영화와 2021년 전주국제영화제 단편 부문 감독상을 수상한 박재현 감독의 <나랑 아니면>을 포함한 10편의 단편영화 온·오프라인 상영이 진행되었

다. 지역적 한계를 넘어서 본연의 메시지와 만듦새로 주목받은 영화들이 대구경북 지역에서 만들어지고 있음을 소개하는 자리였다. 로컬 영화 지역전의 첫 번째 순서로 ‘대구X경북’ 영화가 선정된 소식에 적지 않은 기쁨을 느끼며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D-콘텐츠 대구독립영화 그리고 대구독립영화 씬에 대해 소개해 보고자 한다.

대구 독립 영화의 시작과 현재

한국영상자료원의 로컬시네마 기획전에 상영된 대구 경북 영화들의 제작연도는 2016~2021년까지로 모두 최근 5~6년 사이 제작된 영화들이다. 기획전에 상영되지 않은 영화들까지 함께 헤아려보자면 최근 5~6년 사이에 대구경북 지역에서 제작된 영화들은 총 260편 정도이다. 단지 제작의 편수를 넘어 유수 영화제의 수상까지 이어졌던 대구영화들의 성적을 살펴보면 “아니 대체 최근에 지역에서 대체 어떤 영화를, 어떻게 만들었기에?”라는 질문으로 자연히 이어진다. 대구는 언제부터 어떻게, 주목할 만한 독립영화를 만드는 지역이 된 것일까?

물론 활번 전부터 대구에서 영화, 좋은 독립영화들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1989년 ‘서구 국제영화제’ 대상을 처음으로 수상한 한국독립영화라는 어마어마한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배용균 감독의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로 거슬러 가보자. 당시 한국을 발칵 뒤집었다던 파격적이고 놀라운 성과는 충무로에 집중된 구조 속에서도 지역에서 영화 제작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증명해 내었다. 하지만 현재 대구가 가지고 있는 영화 제작 환경과 교육 환경을 곱씹어 보자면 이러한 성과가 대구의 영화 제작 환경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불모지’가 애칭이 된 ‘대구영화계’는 ‘영화학과 하나 없는’, ‘영상위원회가 없는’, ‘열악한 제작 환경을 가진’이라는 수식과 늘 함께하고 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주목할 만한 영화’와, ‘영화제 수상의 쾌거’라는 구절이 솟아 나오는 것이 더 요상한 상황이다. 현재의 환경적 기반이 갖추어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영화 제작이 활발하게 이루



사진 3. 오오극장(출처=필자 제공)



사진 4. 대구영화학교 4기 졸업생(출처=대구영상미디어센터)



사진 5. 대구영화학교 실습현장(출처=대구영상미디어센터)

어지고 있을까?

이 불모지의 영화는 갖추어진 환경과 제도의 지원 속에 생겨난 것이 아닌 지역 영화인들의 움직임으로 탄생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2015년, 대구 독립영화인들과 대구 시민들이 함께 건립한 독립영화전용관 오오극장을 개관하였다. 지역에서 제작한 영화들을 상영할 수 있는 공간을 가지게 된 것은 가장 중요한 환경적 개선이었을 것이다. 독립영화전용관 오오극장을 만들기 위한 노력의 바탕에는 극장을 만들기 위해 애써온 사람들이 있었다.

현재 대구경북영화영상사회적협동조합의 구성원들이 그 역할을 하였으며 2000년 지역 영화 제작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지역 독립영화 창작자의 활동 기반을 마련해온 대구경북독립영화

협회¹⁾ 2000년 창립한 대구경북독립영화협회는 척박한 지역 영화 생태계 개선 및 제작 활성화를 목표를 가지고 지역 내 영화 제작 및 다양성 영화 저변 확대를 위한 활동을 활발히 이어 나가고 있다. 역시 그 도움의 중심에 있었다. 조합과 협회, 시민들의 움직임을 통해 오오극장²⁾ 대구 최초의 독립영화전용관이며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서 최초로 설립된 독립영화전용관으로 대구 중구에 위치하고 있다. 설립과 함께 지역의 유일한 단편영화제인 ‘대구단편영화제’³⁾을 끌어 데 23회를 맞이한 대구단편영화제. 제23회는 ‘파동, 영화의 물결’이라는 슬로건으로 다양한 시선을 담은 단편영화와 대구경북지역의 단편영화를 상영했다. 매년 여름, 8월 말 정도에 대구 중구에 위치한 독립영화전용관 오오극장을 중심으로 개최되는 단편영화 제작 워크숍을 지속하였다. 2006년부터 운영을 시작한 대구영상미디어센터⁴⁾ 대구에서 영화 및 영상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기관이다. 영화 시나리오 워크숍, 제작 워크숍, 촬영조명 강의 등 다양한 영화 제작 및 이론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온라인 강의와 오프라인 강의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으니 이 글을 읽으면서 ‘영화를 나도 배워보고 싶다!’ 하는 독자 분들께 적극 추천한다. 의 교육과정은 더욱 체계화되며 독립

영화 제작의 접점을 더욱 확장하였다. 올해까지 4기 졸업생들을 배출해낸 대구영상미디어센터의 대구영화학교(Daegu Film School)⁵⁾ 대구지역 영화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대구영화학교(Daegu Film School)’는 올해 4기 졸업생을 배출하였으며 현재까지 총 48명의 신규영화 인력을 발굴하였다. 영화학과가 없는 대구에서 제작, 연출, 촬영 분야의 신규 영화인들을 발굴해 내었으며 졸업생들은 실로 대구영화 현장에 엄청난 에너지를 북돋아 넣게 되었다.

이러한 영화 제작 및 교육 기회의 확장과 함께 신규 영화인들의 영화가 오오극장 스크린을 스쳐가게 되고 벽참과 열정으로 뚫고 뛰어난 초보 영화인들이 적극적으로 현장에 녹아들기 시작했다. 대구 다양성 영화 제작지원을 통해 감독의 꿈을 가진 창작자들의 시나리오가 영화화 되었고, ‘대구단편영

화제’의 피칭포럼을 통해서도 지역 영화의 제작 환경이 활성화되었다. 이 모든 기회를 거쳐 ‘지역에서 영화를 만들겠다는 선택’을 한 사람의 작품이 탄생하고 지역에서 영화를 만드는 지역 영화인들이 모이게 된다. 이렇게 현재까지 총 318편이라는 영화와 총 915명의 영화인이 생겨났다. 이들이 만든 영화는 매년 1,000편이 가뿐히 넘는 독립영화 중에 선정되어 상영되고, 수상의 성과를 가져오며 독립 영화계의 주목을 받게 된다.



대구영상미디어센터에서 운영하는
대구영화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대구영화와
관련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현재는 사라졌지만, 단편영화제 중 가장 대표적이었던 '미쟝센 단편영화제'는 심사위원 5명이 만장일치를 이루어야 대상을 받았다. 그렇게 5년 만에 결정된 대상 수상작은 대구영화감독인 김현정 감독의 <나만 없는 집>이었다. 대구지역에서 최초로 '부산국제영화제' 뉴커런츠 부문에 상영된 고현석 감독의 <물속에서 숨 쉬는 법>, '전주국제영화제' 한국경쟁 부문에 진출한 대표적인 지역 배경의 영화 유지영 감독의 <수성못>, '대구단편영화제' 대상 후 '전주국제영화제' 한국단편경쟁 감독상을 수상한 김용삼 감독의 <혜영>, '전주국제영화제' CGV 아트하우스 창작지원상을 수상한 최창환 감독의 <내가 사는 세상>, '아시아나 국제단편영화제' 국내 경쟁 대상을 수상한 장병기 감독의 <맥북이면 다 되지요>, '전북독립영화제' 대상을 수상한 감정원

감독의 <희수>, '전주국제영화제' 한국단편경쟁 감독상을 수상한 박재현 감독의 <나랑 아니면>, '평창국제평화영화제' 한국단편경쟁 심사위원상을 수상한 박찬우 감독의 <국가유공자>, 유수 영화제에서 주목받고 활발한 작품활동을 이어 나가고 있는 김선빈 감독의 <고백할 거야>, 장주선 감독의 <장학생>도 있다. 2022년에는 지역에서 감독 본연의 색을 유지하며 오랫동안 창작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는 김은영·황영 감독의 <눈을 감고 크게 숨 쉬어>도 여러 영화제 상영되는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다. 이 밖에 몇 페이지를 더 할애하고 싶을 만큼 수많은 좋은 작품들이 있다. 대구에서 대구영화인들을 통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생생하고 활기찬 현장이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는 곳이 현재의 대구영화, 그 자체이다.



사진 6. <나만 없는 집> 스틸컷(출처=김현정 감독)

D-콘텐츠 대구독립영화의 가치, 의숙함 속의 특별함

내가 매일 산책하던 수성못, 자주 가던 동성로의 골목이 영화의 배경이 된다는 것. 그것은 익숙한 곳을 생경하게 느끼는 신기한 경험이다. 대구에서 만드는 독립영화는 주로 대구경북지역에서 촬영된다. 분지로 둘러싸인 이 지역만의 억양이 그대로 녹아 있는 영화들도 꽤 있어 익숙한 곳에서 익숙한 어투로 촬영된 영화들을 보는 맛은 더욱 특별하다.



사진 7. <직선은 구부려질 수 있는가>(출처=대구영상미디어센터)

반대로 기억이 가물가물해진 공간과 시간으로 관객들을 회기 시킬 수도 있다. 대구에서 제작된 단편 다큐멘터리 영화 <직선은 구부려질 수 있는가>를 보았을 때의 일이었다. 14분의 러닝타임 중 한 장면, 북적이는 반월당역 환승 출구에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다. 술 새 없이 '삑', '삑' 교통카드 소리와 함께 사람들로 북적이는 지하철의 모습. 그 모습이 너무나 생경하여 오래 놔리에 남았던 기억이 난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 속에 있었던 내가 그립기도 했다. 새로 들어선 랜드마크의 자리, 원래의 풍경을 기억하는가? 코로나19 사태 이전의

대중교통 안의 모습은? 대구의 순간이 담겨있고 당시 사회의 분위기 그리고 창작자의 고민이 담겨있는 이야기가 대구독립영화에 있다.



사진 8. <고백할 거야> 스틸컷(출처=김선빈 감독)

유난히 심각한 고립감으로 잠식되었던 대구에서 코로나19를 겪었던 사람이라면 <나랑 아니면>의 '김수', '박원' 부부에게, 특유의 보수적인 지역의 분위기 속에서 싫은 걸 싫다고 이야기하기 어려웠던 여고시절을 보낸 뒤 성인이 된 누군가에게는 <고백할 거야>의 '성지원'이. 비슷한 시기를 겪어낸, 대구에 살던 어떤 영화인의 영화적 순간은 결코 개인적이지 않다. 섬세하게 표현된 순간의 감정과 공간의 냄새까지 상기시키는 작업이기에 '대구에 사는 나'를 다른 방식으로 기록했다고 할 수도 있다. 익숙해서 좋은 때로는 생경해서 신기한, 나와 같아서 빠져들고 나와 비슷하지만 다른 선택을 하기에 인상적인 영화 속의 주인공들. 발칙한 이야기로 전개되기도 새로운 환경 속에 주인공을 배치하기도 하지만 같은 공간과 시간과 거리를 공유한 지역 영화인들의 창작물이다.

대구독립영화의 지속가능성 :**엔딩크레딧, 사람의 힘**

“무엇보다 흥미로운 것은 크레딧이었습니다. 대구영화인의 교류와 협업의 결과가 지금의 대구 영화를 살아 있게 한 힘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23회 '대구단편영화제' 애플시네마 심사평 中

2022년 8월에 개최된 제23회 '대구단편영화제'의 애플시네마(대구 경북에서 제작된 영화가 상영되는 섹션) 심사평에는 대구영화의 엔딩크레딧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대구영화인으로서 새삼 몽글한 심사평이었는데 특이한 대구영화만의 특징일지도 모른다. 이 영화의 연출 감독이 저 영화의 미

술 스태프이고, 다른 영화의 조감독은 다른 영화의 감독이다. 도움을 주신 분들에는 후배 현장에 커피를 바리바리 사서 들고 응원을 했던 선배의 이름들이, 촬영 장소를 쫓아 동료를 응원하며 작은 역할도 함께 도왔던 영화인들의 이름이 천천히 움직인다. 대구경북독립영화협회나 대구경북영화영상사회적 협동조합 그리고 대구영상미디어센터의 로고도 자주 눈에 띈다. 각종 행사나 상영회의 인터뷰에서 필자에게 ‘불모지’에서 영화를 하는 이유와 매력에 관해서 묻는 질문은 매번 있다. 그때마다 진부하게 늘 같은 대답을 반복하고 싶지 않지만(정말 환경과 제도가 갖추어져 가장 큰 매력이 있다고 이야기해보고 싶다.), 항상 그 끝은 사람에 머문다(또 사람 태령이라 하겠지만). 정말로 한 사람의 이름 세 글자, 그 이름들이 모여 만든 엔딩크레딧을 통해 지역에서 영화하는 것에 대한 유일무이한 매력을 느낀다.



사진 9. '대구단편영화제' 개막식 모습(출처=대구단편영화제)



사진 10. 황영 감독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촬영 스틸컷(출처=대구경북독립영화협회)

지역에서 극장을 만들고 독립영화 생태계를 위해 가쁘게 움직여온 사람들, 쉬지 않고 목소리를 내고 성과를 알리며 행정적인 제도 마련을 위해 나서 준 선배들. 지역을 떠나지 않거나 혹은 떠났던 경험을 녹여 대구로 돌아와 준 많은 선배 감독들의 묵직한 존재 덕분에 엔딩크레딧이 가득 차 있다. 장편영화는 그 촬영 기간이 길기에 스태프로 참여할 때 후배 창작자들에게 조금 더 나은 경제적 수입의 기회와 함께 영화인으로서의 성장 경험을 제공해 주기도 한다. 장편영화를 지역에서 촬영하는 선배들이 영화를 하고 있는 것을 지켜볼 수 있기에, 또 그들이 고군분투하여 마련된 곳에서 조금은 편하게 다양한 기회를 체험할 수 있기도 하다. 글을 쓰고, 배우고, 갈고닦아, 제작비를 마련하고 후배들을 가르쳐 주기도 하며 지역에 남아 영화를 찍기로 선택한 선배 영화인들의 존재는 너무나도 큰 힘이다.

결국 '사람=지속가능성=힘'이다.

그런 사람들이 좋았다. 남들이 보기엔 저게 대체 뭘까 싶은 것에 즐겁게 몰두하는 사람들. 남에게 해를 끼치거나 정치적 싸움을 만들어내지도 않을, 대단한 명예나 부가 따라오는 것도 아니요, 텔레비전이나 휴대전화처럼 보편적인 삶의 방식을 바꿔놓을 영향력을 지닌 것도 아닌 그런 일에 열정을 바치는 사람들. 신호가 도달하는 데만 수백년 걸릴 곳에 하염없이 전파를 흘려보내며 온 우주에 과연 '우리뿐인가'를 깊이 생각하는 무해한 사람들. 나는 그런 사람들을 동경한다. 그리고 그들이 동경하는 하늘을, 자연을, 우주를 함께 동경한다.

심채경,『천문학자는 별을 보지 않는다』中

이 책의 단락을 보고 대구 지역의 독립영화인들을 떠올리는 것이 내게는 당연한 일이었다.

'하염없이 열정을 바치는 사람들'을 대구독립영화 씬에서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충무로가 아닌 곳에서도영화를 이렇게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만

까만 룽패딩을 입고 경광봉 하나로 각자 맡은 골목을 관리(?), 통제하며 NG가 나지 않음에 뿌듯해 하는 겨울밤도 있었다. 골목이 세 갈래라 세 명이나눠서 골목을 지켰다. 서울의 큰 상업영화 현장에는 밤에 해가 뜬다고 하던데 밤의 해처럼 큰 조명도, '#우리동네영화촬영중' 해시태그를 달게 할 시끌벅적한 규모도 아니다. 그런데도 'S# 7. 대구 어느 어두운 골목길/밤' 골목을 지키는 영화인들이 있다. 충무로가 아닌 곳에서도 영화를 열심히 만들고 있기에 D-콘텐츠를 만든다는 자부심은 있다.

독립영화를 만드는 사람들도 있고, 다양한 시도와 움직임도 있다. 하지만 제도와 환경의 한계 역시 있다. 제작지원을 통해 단편영화나 장편영화 대부분의 예산 규모가 결정되기에 지역 내에서의 제작지원 규모나 건수가 창작자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하지만 대구의 제작지원 기회나 금액이 매우 적은 편에 속한다. 올해 인천영상위원회는 장편영화 제작지원을 통해 2억 8천 5백만 원, 총 4편(편당 최대 1억)을 지원하였으며 전주영상위원회는 총 3천 8백만 원의 예산으로 단편영화 제작을 지원하였다. 현재 대구 지역의 대표적인 영화제작지원 기회인 '대구 다양성 영화 제작지원' 사업은 2022년 기준으로 장편영화 제작지원금 7천만 원, 단편영화 제작지원금 총 3천만 원(편당 1천만 원)에 머무르는 수준이다. 금액은 물론 제작지원의 종류와 기회까지 타지역에 비해 열악한 상황이 현실이긴 하다. 하지만 마냥 열악한 상황에 머물러 있는 것만은 아니다. 2022년, 대구영상미디어센터에서 대구

다양성 영화 공모사업을 주관하며 전반적인 예산의 규모와 지원 사업 종류가 늘어났다.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처음으로 예술영화 제작지원 사업을 공모하여 2편의 단편영화 제작 기회를 늘렸다. 지역에서 장편영화 연출의 역량을 갖춘 영화인들의 성장과 함께 신진 영화인들이 지속적으로 발굴되고 있는 현황에 맞추어 예산의 규모가 증액되었으면 하는 절실한 바람이 있다. 장비 및 후반작업 역시 아쉬운 환경이었지만, 대구영상미디어센터가 영화진흥위원회의 2022년 지역 후반작업 구축지원사업에 선정되어 내년에는 대구에 영화·영상 후반작업⁶⁾ 후반작업의 대표적인 과정으로는 '색 보정(D.I.)'와 '사운드 믹싱' 등이 있다. 해당 장면은 영화의 '톤魂 매너', 감독의 의도에 맞게 색 보정이 완료된 상태이다. 이처럼 영화는 D.I. 후반작업 과정을 거쳐 관객들에게 상영된다. 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사진 11. <이립잔치> 후반작업 후 스타일컷(출처=필자 제공)

잘하는 것을 더 잘할 수 있게,"킵 롤(Keep Roll)"

(주로) "갈게요!"라고 준비 완료된 조감독이 촬영을 시작하자는 신호를 주면, "스피드!" 사운드, "롤" 카메라, "3의 1의 1" (3씬의 1컷의 1테이크) 슬레이트가 차례대로 각각의 신호를 발화하며 촬영이 시작된다. 이후 "컷" 사인이 입 밖으로 나오게 되려면 어찌 되었든 그 테이크의 촬영이 종료되어야 한다. 그런데 간혹, 여러 가지 요인 등으로 컷 사인 까지 가지 못하고 중단될 때가 있다. 잠깐 오토바이 소리가 지나가기를 기다려본다든지, 픽 쓰러진 소품을 잠깐 다시 세워야 한다든지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럴 때 무조건 카메라를 중지시키고 사운드부터 슬레이트까지의 과정을 처음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앞의 NG는 그대로 남겨두고 이 테이크 안에 다시 한번 해보기를 선택할 때가 있다. 그럴 때 "킵롤"하고 외친다. 아직 녹화 중이며 어떤 파트도 종료를 선언하지 않았기에 한 번 더 해보자는 말이다. 이 원고를 마무리하며 유독 현장의 "킵롤"이라고 외치는 선배 촬영감독의 모습이 생각난다. 허락된 해가지고 있어서, 로케이션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없어서, 빠르게 한 번 더 촬영하고 싶어 외치기도 했을 것이다. 제도와 환경적 한계에 멈춤이 있더라도 다시 영화를 지속하고 있는 현장의 대구영화인들의 모습과 잘 닮아있는 것 같다. "킵롤"은 테이크를 지속하게 하며 모두가 자신의 역할에 충실히 있도록 한다. 아직 이 테이크가 끝나지 않으니, 그러니 감독의 입에서 "진짜 오케이!!!"라는 말이 나올 때까지 모두 그 자리에 돌처럼 가만히 서서 집중하고 있다.

대구는 제도적 환경의 멈춤이 있었을지언정 지속적으로 영화인들을 발굴하고 환경을 보완해나가며 독립영화를 잘 만들고 있다. 잘 하고 있고 더 잘 할 수 있기에, 대구영화의 "킵롤"에 주목해 주시기를 바란다. 독립영화는 유독 그 자리가 좁아 이 글을 읽고 계실 독자분들과의 거리가 먼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더 좋은 환경과 제도 속에서 한 번 더 잘 만들어 볼 수 있게, 언젠가 아주 가까이에서 만날 날을 기약하며 대구독립영화에 가까운 자리를 내어주시기를 감히 바라본다.

1947년 3월, 작곡가 이병주가 대구에서 설립한 ‘오리엔트레코드사’는 6·25전쟁 발발 이후 동족상쟁의 참화(慘禍)와 그로 말미암은 고통을 담아내는 일에 주력했다. 그래서 한국대중음악사가 가장 침체기를 겪었을 때 오히려 가장 전성기를 구가하는 아이러니를 형성했다. 그 까닭은 대구라는 지역이 전쟁의 피해를 상대적으로 덜 겪었으며, 또 서울의 대표적인 대중음악인들이 상당수 대구로 피난을 왔었기 때문이다. 그들 대다수는 오리엔트레코드사를 중심으로 집결했고, 전쟁의 피해와 참상을 주요 테마로 한 가요작품의 생산에 주력했다.

설립자 이병주는 1919년 경북 성주 출생이다. 본인의 회고에 의하면 기독교 집안에서 성장했고, 1924년 대구 제일교회 유년부 주일학교에서 작곡가 박태준에게 바이올린을 배우면서 음악에 빠져들게 된다. 이후 이병주는 대구 계성학교에 입학하여 박태준을 다시 만나게 되었고, 음악에 대한 특별한 재능을 인정받았다.

음악에 남달리 심취했던 이병주는 레코드를 즐겨 들었고, 해방 직후 남인수, 장세정, 현인 등의 가수들이 대중들에게 사랑받는 모습을 눈여겨 지켜보았다. 그때부터 그는 레코드회사 창립에 대한 열망과 본인이 직접 작곡한 가요작품을 음반으로 제작 생산해보려는 포부를 마음속에 품었다.

음반 제작사의 구체적 설립 동기는 오로지 음악에 대한 순수한 열정이었다. 1947년 3월의 회사 창립과정에서 작곡가 이재호가 초대 문예부장을, 1950년 6·25전쟁 이후에는 서울에서 내려온 박시춘이 문예부장을 맡았다. 이들과 함께 이인권, 신세영, 진방남(반야월) 등도 오리엔트레코드사 초창기에 함께 협력했던 인물들이다. 음반 제작사 설립 이후에 이병주는 작곡가이자 운영자로서 여러 작곡가, 작사가, 가수들과 더불어 다양한 가요작품을 제작 발

매하게 된다. 당시 오리엔트레코드사에서 활동했던 주요 대중예술인 중 작곡가 그룹은 박시춘, 이재호, 손목인, 이병주, 이봉룡, 이인권, 엄토미, 조춘영 등이 있다. 한편 이들과 협력하여 가요시 작품을 집필했던 주요 작사가 그룹으로는 강사랑, 손로원, 김다인, 나경숙(이서구), 임영일(이인권), 유호, 김문웅, 손석우, 김웅, 나경숙, 김종현, 차경현, 김초향, 김인건 등을 손꼽을 수 있다.

오리엔트레코드사를 터전으로 자신들의 곡을 취입(吹入)¹⁾ 레코드나 녹음기의 녹음판에 소리를 넣음 했던 가수 그룹으로는 남인수, 백년설, 진방남, 이인권, 장세정, 심연옥, 현인, 백설희, 나애심, 신세영, 금사향, 이남순, 도성아, 고학성, 강남달, 남성봉, 남애월, 김금복, 방초향, 박신자, 이영숙, 권정애, 손영란 등이 주요 멤버였다. 이처럼 1950년대 초반 한국대중음악사를 대표하는 많은 가요작품들이 오리엔트레코드사를 중심으로 제작 발매되었다.

오리엔트레코드사와 그 주변은 자연스럽게 문화적 생산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1947년 창립 이후 1950년 6·25전쟁 직전까지 3년여 기간 동안 약 15매 정도(단독 작품으로 30곡 정도)의 SP음반²⁾ 표준시간 음반(標準時間音盤)은 음반의 일종으로 축음기에서 구동한다. 역대의 모든 음반 매체 가운데 가장 장수한 매체이기도 하다. Standard-Playing Record를 줄여서 ‘SP 음반’이라고도 하나, 이 명칭은 오늘날 한국과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일상적으로 쓰이지 않는다. 대개는 78회전반, 즉 “78rpm Record” 또는 이를 줄인 “78s”라는 명칭으로 통한다.을 제작 발매하였다. 오리엔트레코드사의 전체 운영기간은 1947년부터 1955년까지 약 8년 정도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 기간동안 도합 160~170여 곡이 넘는 대중음악 작품을 음반으로 제작 및 생산했다. 음반 물량으로는 약 80~90여 매를 상회한다.

오리엔트레코드사에서 제작 발매된 전체 음반의 수는 상대적으로 많은 분량을 생산한 레코드회사에 비해 그리 많은 분량은 아니다. 하지만 해방 직후의 열악한 물자와 경제난, 그리고 잇따라 발생한 6·25전쟁의 고통 속에서 제작했다는 점과 존재 자체가 미미한 레코드 제작사도 있었던 사례를 감안할 때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리엔트레코드사는 체제와 서비스를 완전히 갖춘 회사로서 다양한 음반을 제작 발매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생각할 부분은 이들이 제작한 음반 가운데 상당수가 당시의 가혹한 시대현실에 종합감을 느끼며 괴로워하던 대중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대표적인 가요작품이라는 점이다. 이병주는 대중음악 작곡가로서 자신이 설립한 레코드사를 통하여 자신을 작품을 음반으로 취입하고 대중들에 게 선보였다. 이병주가 직접 작곡한 가요작품은 도합 60~70여 곡(음반 수로는 30~35매 가량)이다.

1950년 6월 25일부터 시작된 6·25전쟁은 1953년 7월 27일의 휴전협정까지 만 3년간 무려 213만 이상의 인명이 살상되었고, 150억 이상의 전비가 소요되었다. 이러한 6·25전쟁은 국토와 민족 전체를 황폐화시키면서 동시에 민족어의 재편성, 휴머니즘의 회복, 새로운 정신사적 과제 등을 남겼다.

하지만 6·25전쟁의 여파는 피난지 대구에서 활동 중이던 오리엔트레코드사의 체제와 운영을 급속히 신장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오리엔트레코드사는 서울에서 피난 온 대중음악계의 전문 인사들의 작품 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토대를 확보했고, 전쟁이라는 메인 테마를 적극적으로 표현한 음반의 제작 및 발매로 방침을 신속히 정하였다.

이러한 여건과 배경 속에서 1951년에 제작한 <굳세어라 금순아>와 <아내의 노래> 등 두 곡은 거의 5년 동안 약 4만장 분량의 판매실적을 올려 오리엔트레코드사의 경영 수지는 흑자로 돌아섰다. 당시 음반 가격이 만만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음반은 높은 판매수익을 올렸다. 오리엔트레코드사에서 6·25전쟁을 관련 테마로 제작한 음반은 다음 25곡 정도로 전체 제작 음반 물량에서 약 30%를 상회한다.

오리엔트레코드사 6·25전쟁 시기 주요 제작 음반

<전우야 잘 자라>, <육군가>, <6·25의 노래>, <무 기애호의 노래>, <휘날리는 태극기>, <님 계신 전 선>, <신라제 길손>, <내 아들 소식>, <아내의 노래>, <전선야곡>, <전선의 하룻밤>, <전선일기>, <38선 야화>, <굳세어라 금순아>, <환희의 날>, <병원선>, <고향 편지>, <향수>, <단장의 능선>, <추억의 사십계단>, <타향일기>, <감격의 뉴스>, <미사의 노래>, <거리의 천사>, <아내의 기원>

해방 이후부터 1940년대 후반까지 한국대중음악사의 중심은 서울이었다. 하지만 6·25전쟁 직후 1950년대 중반까지 한국가요계의 판도는 부산의 피난수도 지정과 더불어 대구와 부산으로 자연스럽게 그 중심이 이동했다. 이에 따라 피난지 대구의 문화·경제적 역할은 한층 증대되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오리엔트레코드사의 활동과 위상은 더욱 강화되었다. 여전히 음반 제작 스튜디오로 '오리엔트다방'을 이용했고, 열악한 제작과정을 거쳐 만든 음반을 지역 언론사의 지면을 통해 홍보했다. 이런 관

점에서 평가해볼 때 대구는 1950년대 한국대중음악사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공간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6·25전쟁 비애와 애환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가요작품을 음반으로 제작하여 발매했다는 사실, 전쟁 테마의 가요작품들이 집중적으로 제작되었다는 사실 등은 1950년대 초중반 음반 산업의 중심이 바로 대구였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해준다.

오리엔트레코드사는 한국인이 가장 어려웠던 시기를 보냈던 전쟁 중에 전쟁의 참화를 비판하고 탄식하는 작품, 전쟁에 시달리고 지친 민심을 쓰다듬고 위로하는 작품, 참전의욕을 고취시키는 진중 가요 등의 각종 음반 작품을 제작 발표하였으므로 문화인의 시대적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오리엔트레코드사는 전쟁을 피해 피난 온 작사가와 작곡가, 가수들을 비롯한 여러 대중예술인들로 하여금 그들이 마음 편하게 의지할 수 있는 중심거점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더불어 그들이 표현에 충실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간고한 시대를 배경으로 좌절하지 않고 극복과 재기의 의지를 다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었던 사실은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

현재 서울, 부산, 경주, 울산, 목포, 김천, 영암, 나주 등 다른 지역에는 지역이 배출한 대중음악인 중심으로 건립된 가요사박물관, 혹은 기념관이 많이 있다. 하지만 대구는 그 두께 있는 전통성과 빛나는 성과 및 업적, 유명성에 비해 관련 기관이 단 한 곳도 없는 실정이다.



사진 1. 한국대중음악박물관(출처=경주문화관광)



사진 2. 한국대중음악박물관에 전시된 음반(출처=경주문화관광)

대구시 중구 화전동 14번지 소재의 옛 오리엔트레코드사 건물과 빼대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대로 남아있었다. 한국가요사의 불후의 절창과 명곡을 만들어낸 오리엔트레코드사의 옛 건물은 몹시 황폐하고 낡았으나 그 골격은 그대로 유지되어 있었다. 그 건물을 대구시에서 매입하고 전체를 새롭게 기획 설치하여 명실상부한 '대구근대가요사박물관'으로 재탄생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기회마저 사라져 버렸다. 해당 부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특정 개인에게 이미 넘어갔기 때문이다. 소유자는 옛 건물을 철거하고 현재 다른 용도의 신축 건물을 짓는 중이다.

이런 역사적 중요 유적지는 진작 대구시에서 매입했어야 했다. 이 공간에 대구 근대가요사 전모와 관련된 축음기, SP·LP 음반, 이병주 선생의 친필 약보 및 사진, 각종 저서 등 풍부한 아카이브를 상설 전시하고 대구 근대가요사와 관련된 기획행사를 수시 진행하게 되었더라면 전국적 관심을 집중시키며 명소로 재탄생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그 기회를 잃었다. 그러나 옛 오리엔트가 있던 주변 지역의 적절한 장소를 찾아 구입하고 본래의 취지와 뜻을 잘 살릴 수만 있다면 '대구근대가요사박물관' 설립은 아직 늦지 않았다. 왜 이런 좋은 기회를 자꾸만 놓치는 것일까?

현재 대중음악의 대세는 트로트이다. 이 트로트 열풍이 전체 미디어와 대중들의 이목을 장악하고 있다. 이런 시대적 분위기에 보조를 맞추며 우리 지역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대구근대가요사박물관'을 시급히 세우는 일이다. 앞서 서술한 것처럼 대구는 일찍이 지역의 저명한 작곡가 이병주 선생에 의해 1947년 오리엔트

레코드사가 창립되어 1950년대 한국가요사의 중심으로 한 시대를 풍미했다. 그래서 1950년대 초반 대구는 말 그대로 한국가요사의 중심이자 메카 (Mecca)였다. 대구는 이처럼 한국의 대중음악문화사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지역이었다. 오리엔트에서 발표된 노래 중 영화 <국제시장>의 주제 가로 쓰였던 노래 <굳세어라 금순아>를 많은 이들이 부산에서 제작 발표된 줄 아는데 사실은 대구였다. 이처럼 중요한 사실에 대한 오해를 수정하고 홍보하기 위해서라도 '대구근대가요사박물관' 건립은 반드시 결실을 보아야만 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대구가요사와 관련한 행사와 상설전시 및 기획 프로그램을 만들어간다면 전국적 명소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다. 옛 오리엔트레코드사 건물이 무관심 속에 방치되고 있다가 허물어지게 된 것은 우리가 그간 대구가요사에 얼마나 무지하고 무관심했는지를 반성하게 한다.

대구 중구 향촌문화관의 한 코너에서 전시되고 있는 빈약하기 짝이 없는 오리엔트레코드사 관련 자료를 모두 '대구근대가요사박물관'으로 이전하고, 더 많은 아카이브 자료들은 오리엔트레코드사 대표였던 이병주 선생의 2남 이재인이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현재 이재인이 소장하고 있는 귀중자료는 이병주 선생의 친필 약보와 작곡집, 도서 등 무려 1,000점이 넘는다. 필자가 기증하여 계명문화대에서 현재 소장 전시 중인 오리엔트레코드사의 SP음반 및 기타 자료들도 이관 혹은 임대 등 각종 방법으로 협조를 얻어 '대구근대가요사박물관'으로 이동 전시할 수 있다. 대구의 근대음악사와 관련된 보다 많은 관련 자료, 축음기 및 각종 음반 등을 적극적으로 수집하기 위하여 전국의 아카이브 소장자

들과 협의하고 필요하다면 이를 수시 매입할 것을 건의한다.

늦었지만 시급히 '대구근대가요사박물관' 건립이 전체 대구시민의 일치된 관심과 주목 속에 반드시 성사되는 그날이 오기를 갈망하는 바이다.

작가가 밝히는 뮤지컬 <매천시장, 새벽을 여는 사람들>의 집필 비하인드

김지식(프리랜서 연출 겸 작가)



사진 1. 뮤지컬 <매천시장, 새벽을 여는 사람들> 포스터

2017년 겨울 즈음 뮤지컬 작가인 필자는 행복북구문화재단으로부터 대구 북구 지역의 문화콘텐츠를 배경으로 한 뮤지컬 대본 집필의뢰를 받았다.

팔달시장에서 나오 자라 칠곡지역으로 중·고등학교를 다닌 필자는 그야말로 북구 토박이지만, 이제껏 우리 지역의 콘텐츠를 가지고 뮤지컬을 만들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다. 부끄러운 말이지만 내가 사는 이곳에 뭔가 특별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왔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의뢰를 받고서 지역민이 아닌 작가로서의 시선을 장착한 후 바라본 우리 지역엔 금호강, 하중도, 운암지수변 공원, 구암서원 등 무궁무진한 소재들이 숨어 있었다. 그중에서 가장 나의 마음을 끌었던 것은 바로 매천시장이었다. ‘시장이라는 무대 위에서 친절하게 살아가는 상인들을 주인공으로 이야기를 풀어내면 어떨까?’라는 호기심은 나를 무작정 매천시장으로 답사를 떠나게 만들었다.

매천시장은 북구 매천동에 소재한 비수도권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일반 시장과는 다르게 농산물과 수산물의 도매유통을 위해 1988년 대구시 주도로 설치되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농산물이 다시 소매점과 다른 시장으로 가기 위해 매천시장은 아침보다도 더 이른 새벽에 개장하는데, 시간에 맞춰 시장에 들어서니 분주히 물건을 나르고 바삐 움직이는 상인들이 나를 반겼다. 그들이 만들어내는 뜨거운 몸의 열기와 새벽의 찬 공기가 만나자 그들의 몸에서 아지랑이가 꽃처럼 피어올랐는데 소위 대박만을 바라는 젊은 세대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참 아름다운 삶이 살아 숨 쉬는 광경이었다.

그 순간 결심했다. 이곳의 이야기를, 이곳 사람들의 이야기를 뮤지컬로 써야겠다고! 그렇게 뮤지컬 <매천시장, 새벽을 여는 사람들>의 집필은 시작되었다.



사진 2. 뮤지컬 <매천시장>의 실제 여주인공

실제로 필자의 친척은 아들 형제와 함께 2대에 걸쳐서 매천시장 내에서 도매상을 운영하고 있다. 대를 이어 가업을 잇는다는 게 드물고 소중해진 요즘 참 멋진 경우라는 생각을 하곤 했었다. 실제로 농수산물 도매업이 힘들고 고되기에 젊은이들로부터 점차 소외되고 있다고 하는데 말이다. 그렇게 친척 부자에게서 모티브를 얻어 김씨청과와 아버지 김씨, 극 중 주인공인 아들 재우가 탄생하게 되었고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세대와 시대를 잇는 청년의 성장기와 도전기라는 메인 플롯을 구상하게 되었다.

그 이후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고자 몇 번 더 시장 답사를 했다. 도매상인들, 관리 공무원, 식당 상인분들을 만나 인터뷰하며 시장 전반의 상황이나 재밌는 에피소드를 알게 되었는데 생각보다 체계적인 시스템 아래에서 많은 이들의 땀과 노력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그중 도매시장 답사의 하이라이트는 다름 아닌 경매였다. 경매사가 마치 랩처럼 빠르게 농산물의 호가를 부르면 사람들이 귀신처럼 알아듣고 전자입찰을 통해 경매가 진행되는데, 이 장면을 본 순간 뮤지컬의 랩넘버로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실제 경매 현장을 담은 <No. 다같이 경매>라는 넘버로 만들어 본공연에서 가장 많은 호응을 이끌어 냈다. 그

날 답사에서는 뛸지 못했지만, 매천시장에는 대구 경북 유일의 여성 경매사 조용선 씨가 계시는데, 남성들의 세계에 불리는 경매계에서 여성 특유의 세심함으로 여성 경매사의 자리를 굳건히 하고 있는 그녀를 모티브로 뮤지컬 매천시장의 당찬 여주인공 지은수를 탄생시킬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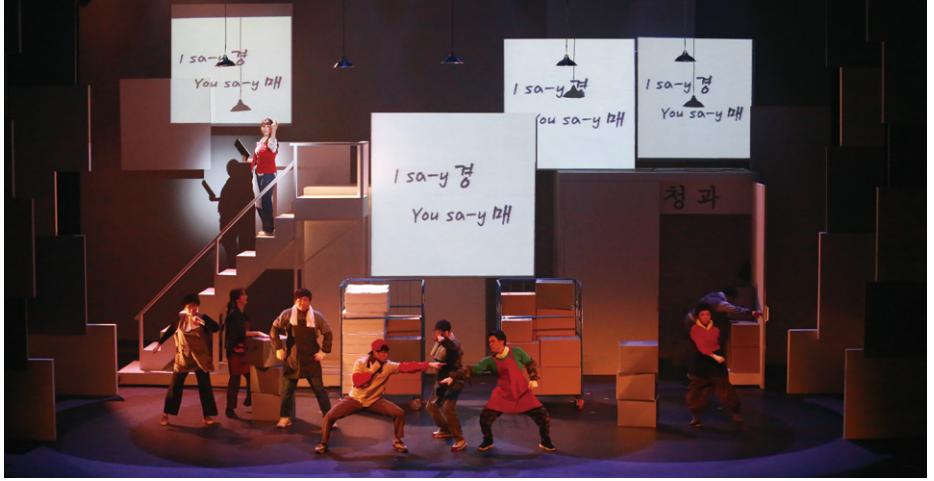


사진 3. 뮤지컬 <매천시장> 中 'No. 다같이 경매' 장면

메인 플롯과 주인공들이 정해지자 대본의 큰 구상은 다음과 같이 정리되었다. 매천시장 내에 폐업을 앞둔 김씨청과를 배경으로 부자간의 갈등과 화합을 다룬 가족 드라마, 철없던 청년 재우가 김씨청과를 물려받아 부딪히고 일어나며 인생을 알아가는 성장 드라마, 여성 경매사 지은수와 재우의 풋풋한 사랑을 다룬 청춘 로맨스, 시장 상인들의 삶을 다룬 인생 드라마가 그것이다.

큰 열개가 정해지자 대본은 속전속결이었다. 특히 시장 상인들과의 인터뷰가 대사와 가사를 쓰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작품은 기본적인 뮤지컬 작법의 틀 위에 시장 상인들의 삶을 얹고, 경매 씬에 힘을 주는 방향으로 만들었다. 그렇게 완성된 대본과 음악이 연출과 배우를 만났고, 두 달 간의 치열한 연습 끝에 2018년 11월 21일 어울아트센터 함지홀에서 역사적인 초연을 하게 되었다.

세상 모든 뮤지컬의 초연이 그러하듯 작품에 대한 아쉬움과 작가 스스로 느끼는 대부분의 부족함은 있었지만, 공연이 끝난 후, 시장 상인들로부터 자기들의 삶과 이야기가 무대 위에 올라온다는 것 자체가 신기하고 감격스러웠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감동과 동시에 묘한 기시감이 들었다. 필자가 매천시장을 집필하기 전에 우리 지역에는 특별한 이야기가 없다라고 생각했듯이 시장 상인들도 자신들의 이야기가 미처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못한 것이다. 너무 가까이 있기에 우리는 우리의 특별함을 몰라봤던 것이었다.

앞으로도 뮤지컬 <매천시장, 새벽을 여는 사람들>처럼 우리 지역의 우리의 이야기로 작품을 만들려는 시도가 계속 되었으면 한다. 오늘도 치열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 안에는 다른 이를 감동하게 하는 특별한 이야기가 우리도 모르게 살아 숨 쉬고 있으니까 말이다.



사진 4, 5. <매천시장> 공연 장면

뮤지컬

<매천시장-새벽을 여는 사람들>은...

2018년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문예회관 레퍼토리개발 프로그램지원’ 사업에 선정된 작품으로 대구 북구지역에 위치한 한강 이남 최대의 농수산물 도매시장인 ‘매천시장’을 소재로 만들어진 행복북구문화재단 기획 뮤지컬이다.

다양하고 역동적인 시장의 모습과 우리 이웃의 삶을 엿볼 수 있는 시장과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소시민, 꿈을 향해 열정적으로 달려가는 청년들, 가족으로 구성된 상인들 등 시장에서 찾아볼 수 있는 소재를 모티브로 하여 제작하였으며 대구·경북 유일의 여성 경매사(조영선 경매사)를 소재로 한 우리 시대 청년의 문제를 다룬 뮤지컬로 2018년 11월 21일~24일까지 어울아트센터에서 초연되었다.

지역성을 갖춘 D(대구) 문화 콘텐츠 프로그램

최석민(문화예술학 박사)

21세기 문화예술의 흐름은 급속한 변화 속에서 다양한 도전 및 시도를 요구하는 다채로운 예술 변화의 시기라고 본다. 이러한 변화에는 인간의 다양한 관점과 사상, 사회환경의 변화와 예술공연에 있어 하이테크놀러지 결합, 타 예술 장르와의 콜라보 및 융복합, 가상공간의 메타버스 도입 및 활용 등 다양한 요인이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배경 속에서 대구지역 문화예술을 살펴보면 시대적 흐름 속에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와 예술단체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결실(공연작품)을 통해 오늘날까지 자연스럽게 발전 및 변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얻을 궁극적 목표 및 목적은 다양하겠지만 그 중심에는 바로 지역문화예술발전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본다.

지역문화예술발전에는 다양한 사업 및 방법들이 존재하겠으나 이번 글에서 언급할 부분은 지역성을 중심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예술작품(공연) 즉, 지역의 특수성을 지닌 콘텐츠 개발 및 제작 사례를 들어 이야기를 풀어 보고자 한다.

지역성을 내포한 예술작품 창작, 개발 및 지원은 지역에 재단 설립이 되고 2000년대 중후반부터 본격적인 방향 설정 및 실행에 옮겨졌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이전에

문화예술 지원제도는 국비 및 시비를 가지고 예술인들에게 창작 예술 사업을 지원하였지만, 지역성을 담보로 표현한다라던지 그러한 목적 및 방향성 제시 보다는 예술인들의 자율적 창작의 기회와 역량강화, 이로 인한 포괄적 지역문화예술발전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고 본다. 하지만 2000년대 중후반부터 지역성을 강조하며 그 지역을 바탕으로 콘텐츠를 개발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지원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 중 2009년을 시작으로 2019년까지 꾸준히 진행되어 오던 대구문화예술진흥원(舊 대구문화재단) 사업 ‘옛 골목은 살아있다’를 살펴보자. 이 사업은 대구지역의 옛 모습이 잘 보존되어 있는 골목(진골목)을 중심으로 다양한 연극 이벤트를 시도했다. 또한, 대구의 관광 명소인 이상화, 서상돈 고택에서는 ‘국채보상운동’을 중심으로 콘텐츠화하여 길거리 야외무대(골목)에서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연극을 공연하였다. 중구청에서 추진하는 골목투어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많은 학생들과 외국인들이 관람하였는데, 이들에게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함과 동시에 대구의 대표적 정신인 ‘국채보상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연극예술을 통해 제대로 전달함으로써 지역성과 교육적 유익함을 함께 전한 좋은 지역 콘텐츠 개발의 예라 할 수 있다.

사진 1, 2, 3. <옛골목은 살아있다> 2017년 대구 공연(출처=대구문화예술진흥원)



또 2020년을 시작으로 행복북구문화재단의 문화거리 조성 및 지역문화콘텐츠 발굴사업인 ‘이태원길’ 활성화 사업이 있다.(‘이태원’ 지명은 대구 칠곡 지역 출신 천재 소설가 이태원 작가의 이름을 사용한 것이다.) 지역의 인물을 발굴하고 활성화시키며 이를 콘텐츠화하여 다양한 사업 및 문화프로그램으로 연계시켜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도모하였다. 이로인해 북구 팔거역에서 칠곡3지구 중심상권에 이르는 동천육교까지 보행자 전용도로(720m)에 ‘이태원길’이 생겼으며 기존 지역상권만 존재하던 장소가 문화예술거리로 탈바꿈을 시도하였다.



사진 4. 거리극 <은행나무는 이야기한다>

프로그램으로는 팔거광장(팔거역부근), 이태원광장(동천육교 부근, 문학관 있는 광장), 버스킹존(4개)을 활용하여 ‘토요문화골목시장’ 및 다양한 ‘버스킹 및 초청공연’ 등을 개최하여 그 지역 주민들의 문화예술 욕구 및 만족도를 총족시키고 있다. 그리고 앞서 설명한 ‘옛 골목은 살아있다’ 야외연극공연과 같이 이태원길 거리에서 이루어지는 거리극 <은행나무는 이야기한다>는 이태원 작가의 대표작인 소설『객사』를 재구성하여 광장 드라마 형식으로 연출한 공연이다. 공연목적은 북구가 배출한 천재 소설가 이태원을 기리며 그의 이름을 딴 문화예술거리를 조성하고 특색 있는 공간으로 관광자원화함으로써 북구의 대표거리를 육성하고

이태원 소설『객사』를 널리 알리며 재미와 감동, 문화 서비스를 지역 주민 및 관광객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연이다.



사진 5. 문화예술거리 ‘이태원길’ 토요문화골목시장 주민참여 공연 장면

이밖에 지역성을 대표하여 콘텐츠화된 다양한 축제들도 있는데, 금호강 일원에서 개최되는 북구 대표축제인 ‘금호강 바람소리길축제’를 비롯하여 대구 중심 도로(서성네거리~종각네거리)에서 펼쳐지는 ‘파워풀대구페스티벌’(舊 컬리풀 대구페스티벌), 약전골목에서 펼쳐지는 ‘한방문화축제’ 외 ‘대구앞산축제’, ‘수성못페스티벌’, ‘대구문화재야행’ 등 다양한 축제에서 그 지역성, 역사성, 정체성, 특수성, 당위성 등을 고려하여 축제 콘텐츠 개발 및 육성,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 및 재단, 문화회관들의 지역공연콘텐츠개발사업으로는 대구 동구 지묘동에 있는 대구광역시 기념물 제1호인 신승겸 장군유적지를 기념하여 동구청이 주최한 뮤지컬 <신승겸>, 1592년 임진왜란 시 대구 달서구 지역에서 활약한 의병장이자 상인동에 있는 ‘월곡역사공원’의 주인공인 우배선 장군을 조명한 달서아트센터(舊 웃는 얼굴아트센터) 자체 제작 뮤지컬 <월곡>, 달성문화재단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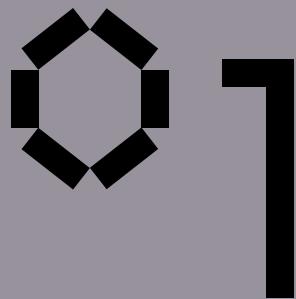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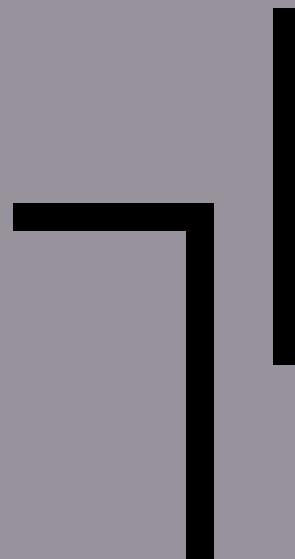
지역 고유의 문화유산인 육신사를 소재로 만든 뮤지컬 <육신사의 비밀> 등이 있다.

이처럼 다양한 예술 장르와 문화사업 등을 통해 지역 콘텐츠 개발은 활성화 단계를 넘어 성장하고 있으며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본다. 아직 발굴되지 못한 지역의 다양한 콘텐츠들이 분명 존재할 것이며 꾸준한 관심과 노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굴 및 개발, 육성하여 성장단계를 넘어 지역 문화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단계까지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우리 지역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지역문화 콘텐츠 개발을 통해 문화콘텐츠 자원 확보 및 관광자원개발로 발전시켜 경제적 수입 창출까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구지역 문화콘텐츠는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을 품고 끊임없이 꿈틀거리고 있다. 이를 잘 활용할 능력 있는 행정가, 기획자, 예술인 및 문화관계자들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지역문화콘텐츠 개발로 지역문화 브랜드 가치 제고 및 문화경쟁력 확보, 문화예술발전을 도모하여 대구가 작게는 우리나라, 크게는 세계적인 문화도시가 되길 기원한다.

SECTION 02.

기억을 담다



기억을 담다



예술인의 발자취를 담다

1953. 중앙국립극장 개관(대구문화극장 자리)
1954. 대구음악고등학원(구. 대구음악학원)
제1회 발표회(대구 문화장)
1954. 대구코러스 창단(임성길 지휘)
향성합창단 창단(강영기 지휘)
1955. 영남연극회 <인형의 집> 공연(중앙국립극장)
1955. 대구음악가협회(회장 하대웅) 발족
1956. 칸타빌레현악합주단 창단
1956. 경북문화협회 결성(유치환 중심)
1956. 제1회 경상북도 문화상 시상

지역 출신 한국 최초의 여성 영화감독을 호출하다

Interviewee

김중기(필름통 대표)

Interviewer

김상목(대구 사회복지영화제 프로그래머,
영화 칼럼니스트)

1955년 4월 2일, 서울 중앙극장에서 4일간 <미망인>이란 제목의 영화가 반짝 개봉한다. 16mm 흑백필름으로 촬영된 75분 남짓한 이 영화는 1주일도 채 되는 서울 개봉 기록 이후 몇몇 지방극장에서 추가로 상영되지만, 곧 조용히 잊혀졌다. 그리고 6·25전쟁의 상흔 위에서 35mm 필름으로 작업한 초창기 은막의 스타와 감독들의 이름이 대중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기 시작했다.

영화는 그렇게 사라졌다가 1997년 1월, 국내에서 영화박물관 역할을 하는 한국영상자료원 창고에 원판 필름이 보관되어 있다는 게 확인되면서 세상에 다시 등장한다. 그렇게 다시 볼 수 있게 되었지만 40여 년 만에 되돌아온 영화

는 후반 5분여 이상이 유실된 상태였다. 그래서 감독이 심혈을 기울였다는 영화의 엔딩은 끝내 온전히 확인할 수 없게 되고 말았다. 하지만 화룡점정의 기회를 영영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영화는 아주 독특한 분위기를 담고 있다. 내용적으로는 6·25전쟁 직후 온 나라가 잿더미로 전락한 시대상을 충실히 반영하되 주인공의 캐릭터와 이야기 전개는 도저히 그 시대라고는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이채롭다.

<미망인>이라는 영화를 들어보셨나요?

주인공이자 전쟁 미망인인 '신자'는 6·25전쟁의 당시 남편을 잃고 어린 딸과 함께 어려운 경제여건에 처해진 상태다. 그녀는 속된 말로 '과부'다. 다행히 신자에게는 남편의 친구이자 회사를 운영하는 '이 사장'이라는 기댈 구석이 있긴 하다. 이사장이 종종 경제적 도움을 주는 덕분에 신자와 어린 딸은 생계를 잇는 중이다. 남편을 의심하며 자주 투기를 부리는 아내에게 정이 별로 없는 이 사장은 신자에게 은연중에 호감을 드러내곤 한다.

사진 1. <미망인> 포스터
(출처=영화진흥위원회 한국
영화DB)



여기까지라면 그 시절 어렵게 완성되어 당시 세태를 반영하는 일군의 영화들과 한데 끓이는 정도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영화의 재현도가 특기할 만한 정도는 아니다. 하지만 <미망인>의 위력은 주인공 캐릭터의 행보에서 비롯되

어 보는 이를 깜짝 놀라게 만든다. 이 사장이 바치는 정신적 애정을 신자는 그저 외로움이라고만 치부하기엔 석연찮은 태도로 반기는 행색이 역력하다. 둘은 다정한 연인처럼 종종 데이트를 즐긴다. 누가 봐도 그저 친구와 사별한 미망인을 위로하는 차원을 넘어서는 관계다. 그런 조짐을 포착한 이 사장의 아내도 가만있지 않는다. 신자를 찾아와서 면박을 주거나 사람을 시켜 감시하는 등 예민하게 반응한다.



사진 2, 3. <미망인> 스틸컷
(출처=영화진흥위원회
한국영화DB)

신자가 기분전환 겸 소풍을 간 뚝섬 강변에서 한눈을 판 사이에 어린 딸이 물에 빠진다. 하지만 정작 신자는 딸의 행방도 주시하지 않고 있었다. 근처에 있던 청년 '택'이 아 이를 구해서 다가오기 전까지 신자는 자식이 죽을 뻔한 위기를 겪었는데도 인지조차 못하고 있었다. 한국영화에서 현재까지도 찾아보기 힘든 기이한 풍경이 아닐 수 없다. 이 사건을 계기로 둘은 가까워지는데 그렇게 로맨스가 펼쳐지면서 더욱 특이한 상황이 이어진다.

신자는 택과 만나기 위해 수시로 자리를 비우면서 세 들어사는 집 홀아비가 아이를 좋아한다는 이유만으로 거의 보모처럼 활용한다. 그리고 택과의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기 위해 이 사장에게 금전적 지원을 얻어내 가게를 연다. 명백히 자신에게 호감을 가진 걸 알면서도 두 남자 사이에서 갈등하는 전형적 캐릭터와는 거리가 멀다. 자신의 마음이 끌리는 대로 선택하고 최적의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후원자로 이 사장을 활용하려는 태도를 분명히 한다. 하지만 전쟁 와중에 죽은 줄 알았던 택의 애인 진이 돌아온다. 그리고 택은 신자의 곁을 떠나 다시 옛 연인에게 돌아가려 한다. 그와의 재회를 앞두고 행복에 젖어있던 신자는(시나리오 설정에 의하면) 택을 찾아가 칼부림을 벌이는 결말을 맞이한다. 아쉽게도 유실되고만 결말부 때문에 온전한 감독의 의도를 확인할 길은 사라져버렸다.

'박남옥'이란 이름의 감독을 아시나요?

이런 유별난 설정의 영화를 만든 감독은 누굴까? '박남옥'이다. 이 글을 읽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생소한 이름일 테다. 이름을 들어본 소수의 이들이라면 대개 '한국 최초의 여성 영화감독'이란 타이틀로 머릿속에 각인하고 있을 테다. 1955년에 세상에 선보였던 단 1편의 연출작을 남기고 감독은 영화판을 떠났다. 이후 오랜 세월 잊힌 존재였지만 40여 년 만인 1997년, 제1회 서울국제여성영화제에서 감독의 영화가 복원 상영되면서 재조명 된다. 그렇게 맨 처음으로 박남옥 감독을 대중적으로 복권(復權)시켰던 서울국제여성영화제는 이후 '박남옥 상'을 제정해 감독을 기리는



사진 4. <아름다운 생존> 스틸컷
(출처=한국영상자료원)

것과 함께 여성 영화인들을 격려하는 이벤트를 이어가는 중이다. 그리고 현재 활동 중인 여성 영화감독 중 최고참격인 임순례 감독(<와이키키 브리더스>,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리틀 포레스트> 외)이 2001년 연출한 중편 다큐멘터리 <아름다운 생존: 여성 영화인이 말하는 영화> 이후 박남옥이란 이름은 영화를 넘어 여성들의 사회진출 역사의 일부로 자리매김한다. 임순례 감독의 다큐멘터리 작업 이후에 후속편 성격의 작업이 이어진다. 2018년에는 한국영상자료원이 기획하고 김일란 감독(<두개의 문>, <공동정범> 외)이 연출한 단편 다큐멘터리 <아름다운 생존>에서 다시 한번 최초의 여성감독으로 존재감을 각인시킨다. 이렇게 1950년대라는 암울한 시절에 선구자로서 족적을 남긴 박남옥 감독의 상징성은 적어도 여성계와 영화계에선 확고부동하게 자리를 잡은 상태다.



사진 5. <미망인> 스틸컷
(출처=영화진흥위원회 한국 영화DB)

아마도 박남옥 감독을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미지는 <미망인> 완성 후 배급과 상영으로 바쁜 와중에 외동딸 이경주를 업고 있는 사진일 테다. (이 사진은 감독 사후에 고인의 원고를 정리해 출간한 자서전인『박남옥: 한국 첫 여성 영화감독』(마음산책, 2017)의 표지로도 사용되었다.) 흔히 촬영현장에서 찍힌 사진으로 알려져 있는데 감독의 여러 인터뷰에서 밝힌 것처럼 실제로는 영화 완성 이후의 사진이다. 그렇지만 지금처럼 분업화 및 체계화된 영화제작현장과는 거리가 멀었던 당시 상황에 너무나 절묘하게 부합되기에 감독의 악전고투를 자연스레 떠올리는 아이콘 격이 되었다. 이 한 장의 사진은 시대의 선도자가 짊어져야 했던 사회적 제약을 온전하게 압축해낸다. 그렇게 ‘박남옥’이라는 세 글자는 작은 신화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그런데 박남옥 감독은 사실 대구와 인연이 깊다. 1923년, 경상북도 하양 출생으로 8살 때 대구로 이사해 동인동에서 성장했기 때문이다. 경북여학교를 졸업한 뒤 집안의 요구로 이화여전(현 이화여대) 가정과에 진학했으나 중퇴 후 대구로 돌아온다. 학창시절 투포환 등 운동선수로 활약하고 영화에 흥뻑 빠졌던 활달함이 현모양처와는 거리가 멀었기 때문이다. 고향으로 돌아와서는 대구일일신문 기자로 활동하던 중 해방을 맞이한다. 신문사에서도 주위 권유로 영화평론을 맡았을 정도로 취미를 넘어서는 애착이 엿보였다고 한다. 해방 직후 서울로 올라가 영화학도의 길을 걸으며 몇 편의 영화에 스태프로 참여하던 박남옥은 한국 전쟁 직후 인연을 맺어왔던 영화인들의 지원으로 전후 사회문제이기도 했던 미망인 문제를 다룬 작품으로 한국 최초의 공인된 여성 영화감독이 된다.

하지만 영화는 그 역사적 의의와 비범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묻혀버린다. 1955년 4월 2일, 서울 종양극장에서 개봉했지만 상영은 단 4일, 하루 2회로 그쳤다. 하필 개봉 당시에 이제 막 전쟁의 상처를 회복하면서 한숨 돌린 관객이 열광할 만한 스타 배우와 감독의 대중적 인기작들이 개봉해버렸기 때문이다. 그런 최악의 대진 운 때문에 서울 한복판 극장에서 채 일주일도 버티지 못한 셈이다. 비록 일부 지방에서 후속 상영이 이뤄지긴 했다지만 지금처럼 통합전산망 같은 게 존재할 리 없는 시절이라 서울 외엔 제대로 남은 상영기록과 반향조차 없는 상태다.

감독은 <미망인> 단 1편을 연출한 후 후속작품을 이어가지 못했다. 재정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악재가 거듭 겹쳤기 때문이다. 영화의 시나리오를 작업한 남편 이보라 극

작가와 헤어졌고 영화가 흥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제작 과정에서 일인다역을 맡느라 지쳐버린 심신의 피로도 만만찮았다. 그렇게 1960년대 이후 감독은 언니 내외가 운영하던 출판사 일을 맡으면서 출판계에 몸담는다. 그리고 1980년대에 미국으로 이민해 그곳에서 말년을 보내게 된다. 하지만 출판사에서 일할 때도 『시네마 팬』이라는 영화 잡지를 펴낼 만큼 영화에 대한 애정은 가시지 않았다는 걸 확인하면 너무나 아쉬운 영화경력이 아닐 수 없다.

1955년에 이런 파격, 상상해 보셨나요?

<미망인>은 열악한 6·25전쟁 직후 사정과 사실상 독립영화에 가까운 제작여건 등으로 인해 만듦새만 놓고 보자면 아주 정교한 완성도라 보기엔 애매한 수준이다. 감독의 회고 등을 봤을 때도 완성한 게 대단해 보일 정도다. 하지만 영화가 선보이는 풍경, 전란 통에 벌어진 극심한 빈곤과 가족의 붕괴 와중에 벌어지는 윤리규범이 붕괴되던 사회상의 투영은 동시기 대표작들과 비교해볼 때도 진일보한 측면이 많아 보는 이를 놀랍게 만든다.

이런 평가는 그저 일방적인 게 아니다. 이 작품이 세상에 등장한 후 1년이 지난 1956년 선보인 한형모 감독의 <자유부인>과 비교해보자. <자유부인>은 소설가 정비석의 베스트셀러 원작을 영화화해 사회적으로 센세이션을 불러온 화제작이었다. 저명한 대학교수의 부인이 춤바람 때문에 불륜을 저지른다는 설정으로 오늘날 '막장'의 시초로 꼽히기도 한다. 하지만 여전히 가부장제가 팽배하던 시절이라 영화의 결말은 권선징악의 전형으로 귀결되고 타락한 여자는 다시 가정으로 귀환하고야 만다. 원작의 파격적 묘사를 꽈 순화했는데도 불구하고 영화는 도덕적 지탄을 받으며 논란이 될 정도로 당시 정부당국의 검열은 서슬 퍼런 수준이었다. 하지만 <미망인>의 이야기 전개와 비교해보면 <자유부인>은 '순한 맛'일 정도다. 흥행 실패로 묻힌 개화를 면한 절대적 이유가 아닐까 넘겨짚을 뿐이다.

파격적인 지점에서 또 다른 비교대상을 들어본다. 5년 후인 1960년 등장한, 역시 센세이션을 사회적으로 일으킨 김기영 감독의 <하녀>가 있다. <하녀> 역시 당대 흥행영화인 동시에 급변하는 사회상을 반영한 내용으로 현재에도 그 선도적 면모를 널리 인정받는 작품이다. 이 영화에선 무능력한 가장을 집안 살림을 책임지며 가정을 이끄는 아내에게서 빼앗으려는 젊은 가정부의 욕망이 전위적으로 폭발한다. 하지만 4.19 혁명 이후 한층 자유화된 시대상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급진적 이야기의 결말은 가장의 꿈인 것처럼 처리된 액자 형태 구성으로 적당히 타협하고 만다.

물론 작품 완성도 측면에서 <미망인>은 이 두 작품에 비길 바 못되지만, <자유부인>의 주인공은 결국 도덕적 한계에 갇혀 속죄하는 결말, <하녀> 역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에 영감을 줄 만큼 경제적 신분격차와 여성의 욕망을 전면화하는 진보적 지점에도 불구하고) 기존 사회의 도덕적 기준을 수용하는 결말로 그치는 것과는 확연히다른 선을 긋는다. 현재도 해당 시대에 등장하리라고 상상하기 힘들다는 평가를 얻는 김기영 감독조차 사회적 사실주의보다는 상징과 암시로 은유하는 형태에 가까운 접근법을 취한 것은 물론, 강렬한 개성을 뽐내는 여성 주인공을 앞세웠지만, 결국 남성 감독이 여성 주인공을 대상화시키는 관점을 온전히 벗어나지 못한다.

반면에 박남옥 감독의 영화는 시대를 뛰어넘은 선도적인 단면을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분적으로는 <미망인>이 오늘날 독립영화와 통하는 제작과정을 거쳤기 때문이다. 이 영화는 제작비를 기존 영화자본에서 지원받기 힘들어 자주제작 형태를 취한다. 제작사로 표기된 '자매영화사'는 실은 동생의 어려운 상황을 돋기 위해 출판사를 하던 언니가 자금을 지원했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다. 그러고도 모자라 감독은 제작과정 내내 사방으로 부족한 제작비를 마련하려 동분서주해야 했다. 그런 고초와 맞교환한 자율성이 이 영화가 일정부분 시대의 한계를 초월하는데 으뜸 요인이 되었다는 점은 쉽게 상상할 수 있겠다.

로컬 영화로서

<미망인>의 복권과 재조명을 꿈꾸며

그런 놀라운 성취와 아쉬운 흥행성적을 안은 채, 박남옥 감독과 그의 영화 <미망인>은 7년 후인 1962년, (감독의 절친이기도 한) 홍은원 감독의 <여판사>가 탄생하기까지 유일무이한 여성 감독 연출작이자 '최초'의 여성영화로 역사에 기록되었다. 이제는 인터넷 검색만 하면 <미망인>이란 작품의 기본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유튜브를 통해 영화를 뒤늦게나마 언제든 관람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아쉬운 점은 이런 충분히 기념하고 자랑할 만한 사실이 지역내에서는 별로 알려지지도, 활용되지도 못한다는 것이다.

2020년, 한국이 자랑하는 세계적 거장인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미국 아카데미상을 석권하자 당시 총선을 앞둔 지역의 국회의원 예비후보들이 앞을 다투어 봉준호 감독 생가 박물관 복원이나 '봉준호 거리' 조성 등의 급조된 공약을 언론 플레이하다 빙축을 산 적이 있다. 봉 감독이 대구 남구 봉덕동에서 태어나 10살까지 살았다는 게 유일한 이유였다. 하지만 대구에서 살았던 짧은 유년시절에 감독이 지역 극장이라도 한번 가봤을까, 그의 영화편력에서 대구라는 도시가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을까 알려진 건 사실상 없는 형편이다. 문화예술의 지역성, '로컬리티'에 대한 지역사회 일반의 고민 역시 그런 해프닝을 크게 뛰어넘진 못한다.

박남옥 감독과 그의 작업은 비록 당대에 상업적으로 크게 성공하거나 사회적 반향을 불러오지는 못했을지언정, 작품에 담긴 사회적 발언이나 여성의 사회진출 측면에서 불멸의 발자취를 남겼다. 지역 출신의 문화예술인이 지역의 자원으로 작업한 <미망인>은 우리 지역사회가 자랑스럽게 여기며 부각시킬 소요가 충분한 자산이다. 감독이 영화의 꿈을 키우며 자양분을 얻은 게 서울로 모든 게 집중되기 이전, 일제 강점기 시절 한국영화의 상징이던 춘사 나운규가 활약하던 대구의 영화공간이라는 점을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

굳이 지방분권을 강조하지 않더라도 지역의 로컬문화예술 생태계를 고민할 때 이렇게 오랫동안 망각되어왔던 소중한 유산을 '지역화'해 홍보하고 활약해야 할 의미는 넘쳐난

다. '박남옥 극장', '박남옥 영화박물관', '박남옥 영화제' 이름이 붙은 지역 문화예술거점과 행사는 왜 모색조차 되지 않는가. 관련해서 한국영화역사에서 우리 지역이 점유하는 가치를 연구하고, 현재 지역에서 활동하는 젊은 영화인들을 지원하는 사업이 활성화될 때에 보다 풍성한 순환과 장기적 결실을 기대해볼 만하다. 미래를 내다보며 지역을 알리고 상징하는 이정표 될 만한 게 진정 어떤 것인지 찾아보자.



사진 6. 김종기 대표, 김상목 인터뷰 모습

참고자료



<미망인>, 박남옥 연출, 자매영화사 제작, 1955



<아름다운 생존>, 김일란 연출,
한국영상자료원 기획/제작, 2018

박남옥,『박남옥: 한국 첫 여성 영화감독』, 마음산책, 2017

윤복진과 그의 노래를 찾아서

Interviewee

류덕제(대구교육대 교수)

Interviewer

남지민 (대구시 문화예술아카이브팀,
영남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

사진 1. 청년시절의 윤복진
(출처-대구시 문화예술아카이브 소장 '윤복진 유족 기증 자료')



지난 9월 대구시가 아동문학가이자 작사가 고(故) 윤복진의 유족으로부터 윤복진의 친필 노트를 비롯한 그의 문화예술 활동을 기능할 수 있는 자료 350여 점을 기증받았다. 윤복진의 월북으로 인해 대구에 남겨진 가족은 그간 가족의 존재를 알릴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자료조차도 쉽게 내놓을 수 없는 아픈 사연을 품고 있었다. 그러나 대구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문화예술아카이브에 대한 기대와 일제 강점기 아동문학의 선구자로서의 아버지의 이름과 작품의 가치가 제자리를 찾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증을 결심하게 됐다. 유족의 고심 끝에 강산이 10번 바뀔 동안에 세월의 켜가 쌓인 자료가 드디어 세상 밖으로 나온 것이다.

일제 강점기와 해방기를 통틀어 윤석중과 함께 동요 창작의 양대 산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작품과 다양한 활동을 펼쳤던 그가 잊혀지고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유족의 큰 결심으로 대구시에 기증된 윤복진의 육필 원고와 그가 소장했던 많은 동요집, 서적 등은 일제 강점기와 해방기에 그가 펼친 문학활동과 문단에서의 교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값진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1. 윤복진의 생애

먼저, 그의 생애를 통해 예술 세계의 실마리를 풀어가 보자. 윤복진은 1907년 1월 1일 대구시 중구 궁정(弓町, 현 사일동)에서 6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그의 호적상 본명은 윤복술(尹福述)이었으나, 희원학교 졸업증서부터는 윤복진으로 남겨져 있다. 1914년 희원학교에 입학하여 1920년 3월에 졸업했다. 이어 그해 4월 계성학교에 입학해서 1924년 우등생으로 졸업했다. 당시 5년제 학교였지만 4년 만에 졸업한 것은 5학년에 진급할 학생이 없어 조기 졸업한 것이라고 한다. 그는 1933년 니혼대학(日本大

學) 전문부 문과를 거쳐 호세이대학(法政大學) 법문학부 문학과를 졸업했다.

1925년 잡지『어린이』에 동요 <별따라 가세>가 입선됐다. 이후 많은 작품을 발표했고 대구 소년회 회원으로 김천 소년회 주최 남선소년소녀현상문예전람회에 참가하여 동요 부문 1등과 3등, 작문 부문 등에서 수상했다.『시대일보』를 비롯한 잡지 현상 응모에서 수상하며 활발하게 작품 발표를 했다.

1930년 김귀환이라는 필명으로『동아일보』신춘문예 동요 부문에 <동리 의원>이 1등 당선되었고,『조선일보』신춘문예 동요 부문에는 <스무하로 밤>이 역시 1등으로 당선됐다. 윤복진은 등대사, 가나리아회 등의 소년문예단체를 결성하고 작품집을 발간하기도 했다. 계성학교 재학시절 남성정 교회 성가대로 활동했고, 이때 계성학교 교사였던 박태준과 교류를 이어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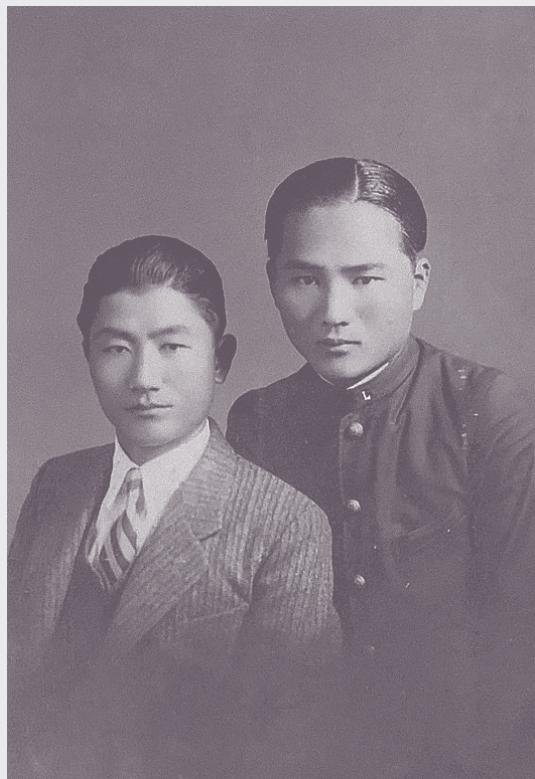


사진 2. 왼쪽부터 박태준과 윤복진
(출처=대구시 문화예술아카이브 소장 '윤복진 유족 기증 자료')

사진 3. 윤복진, 박태준 동요곡보집
『물새발자옥』 표지(1939년)
(출처=대구시 문화예술아카이브 소장 '윤복진 유족 기증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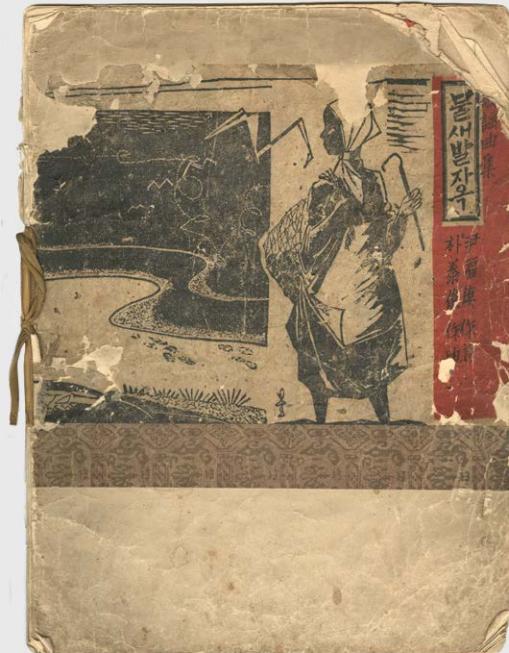


사진 4. 윤복진, 박태준 동요곡보집
『물새발자옥』 속표지(1939)
(출처=대구시 문화예술아카이브 소장 '윤복진 유족 기증 자료')



그 결과 동요작곡집으로 『중중때때중』, 『양양범버궁』, 그리고 이 두 동요작곡집에 실린 작품을 발췌하여 『돌아오는 배』를 간행했다. 1939년에는 동요곡보집 『물새발자옥』(교문사)을 펴냈는데, 표지는 이인성의 판화 작품이었다. 그는 보모 강습회, 율동 유희 관련 방송 등의 활동을 하며 어린이들의 교육에 관심을 가졌고, 해방 후에는 조선문학가 동맹에 참여하여 아동문학 분과위원의 초대 사무장을 맡았다. 그러나 건강 악화로 대구로 낙향해 조선문화단체총연맹의 경북지부 부위원장단으로 활동했다. 정부수립 후 좌익으로 몰려 곤란을 겪다가 1950년 월북했다. 월북 후 1953년 <아름다운 우리나라>, 1954년 <시내물>을 발표했고 1991년 7월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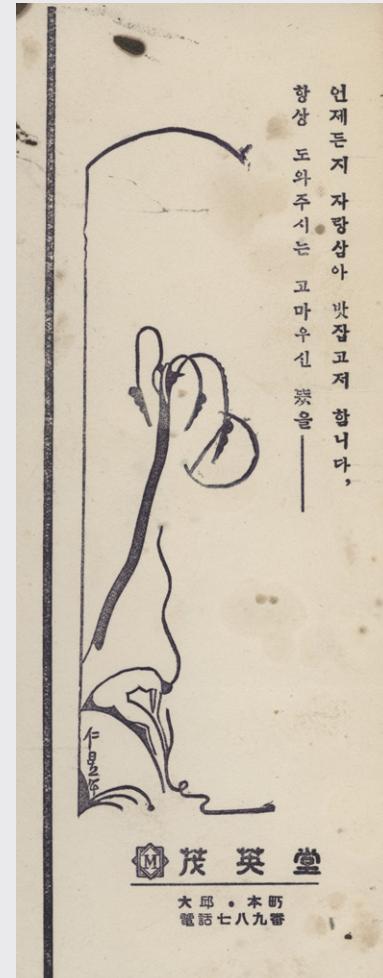
2. 류덕제 교수를 통해 본 윤복진과 그의 작품

지역에서 꾸준히 윤복진과 그의 작품을 근대 시기 신문에서 자료를 찾아내고 연구하고 있는 류덕제 교수를 통해 아동문학가, 문화예술인으로서의 윤복진과 그가 남긴 작품, 그리고 일제 강점기 문화예술의 상황에 대해 이해를 돋기로 한다. 이근무가 설립하고 박태준, 윤복진, 이인성 등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오고 간 무영당에서 류덕제 교수와 윤복진의 발자취를 밟아가기로 했다.

“개성 사람 이근무가 서점, 문구점 등을 하다가 장사가 잘 됐나 봐요. 증축을 해서 1937년 무영당 백화점을 문을 엽니다. 일본 사람이 경영했던 미나카이 백화점 등이 있었지만 조선 사람이 만든 백화점으로는 유일했지요. 이근무는 당시 장사 수완이 좋았을 뿐만 아니라 신뢰도 있었나 봅니다. 남성로에 있는 남성정교회(현 제일교회)와 개성학교에 적을 두고 있던 박태준과 윤복진은 교회와 학교를 오가며 서점에도 들렀을 것입니다. 윤복진이 쓴 많은 동요(시)에 박태준이 곡을 붙였죠. 그리고 그 동요집을 무영당서점에서 발간했습니다. 철필을 긁어 등사판으로 발간한 『중중때때중(중중떼떼중)』(무영당서점, 1931년), 『양양범버궁』(무영당서점, 1932년)과 이 두 동요집에서 13곡을 골라 엮은

『돌아오는 배(도라오는 배)』(무영당서점, 1934) 이렇게 세 권이 무영당에서 발간한 윤복진, 박태준 동요곡집입니다. 그러나 『중중때때중』과 『양양범버궁』의 실물은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중중때때중』은 코베이(Kobay)라는 경매사이트에 올라온 것을 본 적이 있는데, 개인 소장가의 손으로 들어간 듯합니다.

사진 5. 유족이 소장한 윤복진의 소장자료 가운데 발견된 무영당광고지로 이인성이 그림을 그렸다.
(출처=대구시 문화예술아카이브 소장 '윤복진 유족 기증자료')



1950년 3월에는 일본 저널리스트 모리 쇼조(森正藏, 1900~1953)의 『전략의 역사』를 김수향이라는 필명으로 번역해 모던출판사에서 발행하기도 했습니다. 모던출판사는 이근무 동생이 운영한 출판사라고 전해지니까, 이근무와 윤복진은 당시 상당히 친분이 있었다고 할 수 있지요.”라고 말한다.

알려지지 않은 동요(동시), 동화(소년소설), 문학평론, 음악평론, 영화평론 등 윤복진의 작품을 500여 편 찾아서 정리했다는 류덕제 교수가 윤복진의 작품을 연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일까?

류덕제 교수는 1995년 대구교대에 부임하면서, 전공이었던 한국 현대문학(카프 문학)과는 무관한 국어교육을 가르쳐야 했다고 한다. 초등교사 양성대학인 교육대학에서 카프 문학을 연구하고 가르칠 수는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다가 한국 아동문학 연구의 선구자인 이재철 교수가 한때 재직하기도 했던, 대구교육대학교에 있다 보니 아동문학을 연구해 볼까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2006년경부터 아동문학 관련 자료를 찾아 전국의 도서관을 둘러 자료를 복사하고, 고서점과 인터넷 경매 사이트에서 요긴한 자료들을 사 모으기도 했다. 신문과 잡지에서 아동문학 비평사 관련 자료를 전사할 때는 아침 일찍 출근해 늦은 밤까지 수업을 제외한 모든 시간을 쏟았다. 아침 7시 반경에 출근해 새벽 1시를 넘긴 날도 흔했다고 한다. 당시는 지금처럼 신문과 잡지가 디지털화되어 있지 않아 대학도서관의 마이크로필름과 신문사의 원문 제공 서비스를 통해 어렵사리 자료를 찾아야 했다. 마이크로필름은 해상도가 좋지 않아 뭉개진 글자가 많아 전사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 노력의 결과 『한국 아동문학 비평사 자료집(전7권)』(보고사, 2019~2020)과 『한국 아동문학비평사를 위하여』(보고사, 2021)을 발간했다. 이 자료집을 바탕으로 저술한 『한국 현대 아동문학비평론 연구』(역락, 2021)는 2022년 대한민국학술원의 우수 학술도서로 선정되기도 했다.

원전 연구를 통한

윤복진 연구 재조명 필요

“윤복진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자료를 찾기 위해 신문을 검색하다 보니 윤복진의 작품이 꽤 많았습니다. 그리고 홍난파의 『조선동요백곡집』에 실린 100편의 동요곡 중에는 윤석중이 11편인데, 윤복진이 10편이어서 당대에 명성이 자자했던 윤석중에 버금가는 동요 작가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윤복진 관련 이전 연구와 저술들을 살펴보게 됐고, 그것을 바탕으로 잘못된 연구를 고쳐가게 됐습니다.”

류덕제 교수가 윤복진의 작품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는 점은 윤복진이 많은 작품을 남겼고, 그중에는 훌륭한 작품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일제 강점기 윤복진의 작품을 ‘몰밀어 동심주의 작품’이라고 하는 것도 올바른 평가가 아니라고 한다.

“신고송이 윤석중의 작품은 높이 평가하면서도, 윤복진의 작품에 대해서는 좋게 평가하지 않았어요. 일제 강점기 윤복진의 작품은 윤석중과 같이 동심에 바탕을 둔 작품이 많았는데, 평가는 달랐어요. 그런데 윤복진의 작품 가운데 민족의식과 당대의 현실 인식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작품도 많습니다. 거의 40편에 가까운 작품이 있어요. 혼진건(玄鎮健)의 「고향」(『조선의 얼굴』, 글벗사, 1926)에서 조선의 현실을 두고 ‘벗섬이나 나는 전토는/신작로가 되고요//말마다나 하는 친구는/감옥소로 가고요//담뱃대나 터는 노인은/공동묘지로 가고요//인물이나 좋은 계집은/유곽으로 가고요’라 표현한 것에 조금도 뒤지지 않는 현실 인식을 보여주기도 해요. <그리운 그 밤>, <이 땅 이 거리>, <우리야 마실> 등이 그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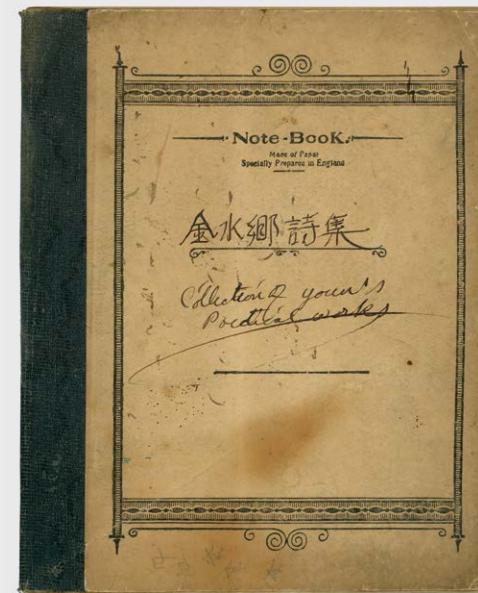
이 외에도 <젊은이의 노래>, <발자욱> 등에는 민족 현실에 대한 인식이 잘 드러나 있다고 평한다. ‘아동에게는 민족적 의식을 고취해 주어야겠다’거나 ‘우리 아동에게는 민족적 사상을 파악케 하자’는 「3 신문의 정월 동요단 만평 (7)」(『조선일보』, 1930.2.10)과 같은 평론에서 보듯이 직접적으로 민족의식의 각성을 주장하기도 하였다는 것이다.

류덕제 교수는 그동안 찾은 윤복진의 동시, 동화, 평론 등 500여 편이 넘는 작품 목록을 보여주기도 했다. 하지만 일제 강점기에 발간된 『중증때때증』, 『양양범버궁』, 해방 직후 발간된 『중등용가요곡집』(파랑새사, 1946), 월북하기 직전 펴낸 『세계명작동화선집 노래하는 나무』(아동예술원, 1950) 등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 아쉬워한다.



사진 6. 음악노트(1929)에 수록된
<기력이> 악보
(출처=대구시 문화예술아카
이브 소장 '윤복진 유족 기증
자료')

사진 7. 김수향 시집노트
(출처=대구시 문화예술아카
이브 소장 '윤복진 유족 기증
자료')



류덕제 교수는 윤복진이 작사하고 박태준이 곡을 붙인 동요곡 <기력이>가 월북 문인들의 작품과 노래가 금지된 탓에 가사가 바뀐 사정도 이야기했다. 이 노래는 이태선이 작사했다고 알려진 <가을밤>, 가수 이연실이 부른 <찔레꽃> 등으로 개사되어서 불려지고 있다. 그런데 <가을밤>의 동요 원작자는 원산(元山) 사람 이정구였지만 작사가를 이태선으로 바꿔서 계속 불리게 됐다고 한다. 윤복진의 월북으로 인해 노래 <기력이>는 한국 현대사의 굴곡을 일정 부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류덕제 교수의 연구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윤복진의 필명 연구」이다. 류 교수는 근대 시기 잡지와 신문에서 윤복진의 작품으로 보이는 것들, 후에 윤복진으로 발표된 작품 가운데 다른 이름으로 먼저 발표된 것을 비교 연구해 2019년 이 논문을 발표했다. 이 논문에 따르면 윤복진의 본명은 윤복술인데, 윤복술이라는 이름으로 작품활동을 한 적은 없다. 대신 다양한 필명을 사용하고 있는데, 사명(社命)이나 지명을 붙여 '대구 등대사 윤복진', '대구 윤복진', '대구 가나리아회 윤복진', '가나리아회 윤복진' 등으로 발표했다고 한다.

또 해방 후 출판한 『꽃초롱 별초롱』에 지은이의 내력에는 '김수향이란 펜네임으로 평론을 씀'이라고 밝히고 있다. 여러 잡지, 신문에도 김수향으로 발표한 것을 찾아냈다.

『한겨레음악대사전』에는 '김수경(金水卿)'이라는 필명을 사용했는데, 이는 당시 신문에 오식(誤植)된 것일 뿐 윤복진의 필명이 아니라고 한다. '鄉' 자를 비슷하게 생긴 '卿' 자로 잘못 식자한 것이라고 하였다. 『초등용가요곡집』(파랑새사, 1946)은 윤복진이 직접 필경(筆耕)한 것인데 17편을 '김수향'으로 표기하고 있을 뿐이고, 수기 노트에도 '金水鄉'은 있지만 '金水卿'은 없다는 것이다.

1930년 『동아일보』 신춘현상 동요 부문에 1등으로 당선된 <동리 의원>은 김귀환이라는 필명으로 발표한 것이고, 그 외 <파랑새>, <대구 파랑새>, <대구 남성정 백합화>, <등대사 백합화>, <등대사 목동>을 '김수련' 등의 필명으로 작품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의 동생 이름인 윤복선, 윤복향으로 발표된 작품도 찾아볼 수 있다고 적고 있다.

류 교수의 연구에서는 이름뿐만 아니라 윤복진이 작품을 발표한 후 여러 번 개작했고 개작을 통한 재발표 작품을 제외하고도 260여 편의 동요 작품이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그 가운데 <북간도로 가신 아버지>, <쪽도리꽃>, <참새야! 제비야!> 등은 북간도로 떠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드러내고 있고, <여기는 땅빛나고>는 가난한 삶의 현실을 비추고 있다. 또 <고기잡이 아들>, <할머니의 노래>, <스무하로 밤>, <다리간 부엌댁이>, <송아지 팔너 가는 집>, <우리야 마실> 등은 식민지 현실을 직간접적으로 보여준다.

류 교수는 지난 9월 대구문학관에서 열린 대구작가콜로퀴엄 인문예술세미나 발표에서 “일제 강점기 조선의 현실은 계급 현실과 민족 현실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윤복진의 주된 관심사는 계급적 현실보다 민족적 현실에 방점을 두고 있었죠. 이러한 생각은 해방 후에도 그대로 이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밝혔다.

류덕제 교수는 무영당을 돌아보며 “월북 문인 중 정지용, 홍명희, 신고송, 현덕 등의 작품은 해금 이후 작품집이 나오고, 그들의 작품세계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복진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일제 강점기 활발한 활동을 했고, 심지어 친일도 하지 않았음에도 재조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윤복진의 작품이 다시 한번 세상의 빛을 보고 더 활발한 연구가 이뤄지길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류덕제 교수는 윤복진 등 대구·경북 출신의 아동문학가들에 대한 연구 결과물인 『대구 경북 아동문학가 연구』를 불원간 발간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 작업은 기억에서 사라져가는 지역 아동문학가들의 원전 연구를 통해 다시 발굴해내고 재조명하는 데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유족이 기증한 자료를 통해 본

윤복진

대구시가 2020년 문화예술아카이브팀을 조직한 후 팀장과 함께 자주 윤복진의 유족이 계신 시지를 분기별로 찾아갔다. 윤복진의 둘째 딸님이 살고 있는 댁 근처에서 그를 만났을 때 유족은 노년에 접어들었다. 북으로 간 아버지를 원망하기도 하고 그리워하기도 하며 긴 시간 아버지가 떠난 후 남겨진 가족들의 삶을 이야기했다. 윤복진은 큰 딸과 둘째 딸인 자신의 존재는 알고 있었으나 월북 후 태어난 셋째 딸의 존재는 몰랐다고 했다.

그의 할머니는 언제 아들(윤복진)이 돌아올지 모르니 내내 대문을 잠그지 말라고 하셨다고도 했다. 그러다가도 윤복진이 남긴 자료들을 태우거나 없애기도 했다고 한다. 그 사이 딸은 아버지의 흔적이 사라지는 것이 안타까워 불 속에 던져진 아버지의 자료를 꺼냈다고도 했다.

문화예술아카이브팀(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자주 전화 통화를 하며 안부와 건강을 물었다. 2022년 어느 날 그의 집을 방문했을 때 아버지 자료를 건네기 위해 세 딸들이 다모여 있었고, 자료에 대한 설명과 사연을 풀어 놓으며 문화예술 아카이브 팀으로 보내기로 결정했다고 했다고 전했다. 기증된 윤복진의 자료는 350여 점 가량 된다. 이 자료는 1920년대부터 1950년대까지, 길게는 100여 년이 다 되어가는 자료들로 종이의 경우는 바스러지거나 세월이 먼지가 되어 꾸덕하게 책 사이에서 말라 버린 자료들이었다.

그 자료 중에는 1920년대 윤복진이 공책으로 만든 첫 시집부터, 일본 유학 시절 공부한 노트와 시험지가 있었고, 그가 필사한 악보, 그가 모은 일본, 한국 연주 프로그램, 당시 발간된 일본 콜롬비아, 빅타, 킹리코드 신보 알림 안내지, 신문자료 모음, 러시아, 일본 등 세계 문학집 등이 있었다. 그리고 그 책들을 보관한 문갑과 그의 학교 졸업장, 상장 등도 포함됐다.

문학, 음악, 무용, 영화 등 다양한 관심사와 관련한 자료 남겨

그것을 아카이브 수장고 앞에 쌓아두고 하나 둘 펼쳐 볼수록 난감한 적도 있었다. 동요작사가, 아동문학가로서의 자료도 있었지만, 그 자료들은 일제 강점기 우리나라의 문화예술에 대한 자료들이 방대하게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권태호 독창회 리플렛, 이시이 바쿠 무용단 단원의 명부, 각종 잡지, 지금은 희귀본이 된 책과 영화의 시나리오까지 윤복진 선생의 다재다능한 또는 다양한 관심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이다. 그래서 그의 자료를 직접 자료, 컬렉션, 소장 도서로 먼저 분류하기로 했다. 먼저 그의 친필이나 곡이 남아있는 악보를 직접 자료로 정리했다. 박태준이 곡을 불이기 전 시의 원전이 노트 여러 권에 남아있고, 그 시들이 세상에 나가기 전 시집 형식의 노트도 여러 권이다. 그 노트에는 자신의 필명을 작명한 메모가 발견되기도 했다. 그의 글씨는 때로 알아보기 힘든 것도 많았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작품 외에도 다른 사람들의 작품도 열심히 필사한 흔적들도 고스란히 남아있다. 그 작품들을 소중히 읽어 보고 작품 경향도 파악하며 자신의 시를 써 내려갔을 것이라 짐작했다. 윤복진의 필체는 한글보다 영어가 확실히 더 좋았다. 이 점은 일본에서 영문학을 공부하면서 썼을 노트에 빼곡히 기록한 영문학 개론 수업내용에서도 알 수 있다. 그의 직접 자료 외 컬렉션으로 분류한 자료는 그가 문화예술에 가진 애정과 관심을 확인할 수 있다. 일본에서 공부하면서 관람했을 한국인의 공연은 물론 세계 음악인들의 다양한 공연 리플렛이 그것을 증명한다. 1938년 대구공회당에서 열린 '제1회 신인가수 선발 콩쿠르' 결선에서 박태준과 함께 윤복진은 심사를 맡았다는 사실도 자료로 확인됐다.



사진 8. 윤복진 창작시집 제 1권
(출처=대구시 문화예술아카이브 소장 '윤복진 유족 기증 자료')

사진 9. 윤복진이 소장하고 있던
레코드 신보 안내 책자 속
무영당 백화점 스탬프
(출처=대구시 문화예술아카이브 소장 '윤복진 유족 기증 자료')



그는 음악뿐만 아니라 죽음기와 레코드에도 관심이 많았던지 레코드 신보 안내 책자를 많이 소장하고 있었다. 그 리플렛에는 무영당 백화점 스탬프가 선명하게 남아있어 당시 무영당의 모습을 스탬프로도 만날 수 있다. 그가 남긴 자료를 통해 짐작해볼 수 있는 그의 행적 중 눈에 띄는 것은 보모(보육교사) 양성 관련에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이다. 그가 관여한 파랑새사에서 발간한 보육교사 유통 유희나, 아동극 관련 자료가 발견됐다. 그리고 일제 강점기 신문자료에서 보면 보육교사 강습회에 윤복진 선생이 강사로 참여한다는 기사에서도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

그가 일본 유학 시절 보던 책과 노트 한 권까지도 그대로 대구로 가져온 것을 보면 일제 강점기 '아키비스트(Archivist)'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의 자료를 들여다보면 날마다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돼서 문화예술아카이브팀은 유족이 기증한 자료를 '고구마 밭', '보물상자'라고도 부른다. 캐고 캐도,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새로운 사실과 자료들이 나오기 때문이다.

윤복진이 읽었던 책 또한 최남선의『백팔 번뇌』, 시나리오『똘똘이의 모험』, 김안서 역시집『망우초』, 톨스토이 작품, 일본 근대문학인 작품집 등 그 분야가 다양하다. 유족이 보여준 윤복진의 사진집에는 일제 강점기 활동한 미술인, 평론가들과 교류한 흔적이 사진 속에 그대로 남아있어 그가 시대를 풍미한 예술인이자 시대를 고민한 지식인이었음을

단언할 수 있게 한다. 그의 자료를 통해 한글과 우리 민족 정서가 담긴 시와 노래를 통해 민족의 미래를 짊어질 어린 이들에게 민족정신을 있도록 ‘소년문예운동’에 대한 신념을 갖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 줄 한 줄 써 내려간 시가 담긴 윤복진의 노트를 보며 어린이를 생각하는 조선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이 느껴져 늘 숙연하게 자료를 들여다보게 된다.

유족이 기증한 자료에서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일제 강점기, 대구에서 활동한 문화예술인은 대구만의 문화예술인이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대구 문화예술인이기에 앞서 우리나라의 문화예술인이었다. 지금도 지역에서 많은 예술인들이 활동하고 있지만, 그들이 대구에 있다는 것만으로 지역예술인으로 한정된 평가 혹은 국가적 문화예술계에서 평가절하되고 있지 않은지 반성해 보아야 한다.

100여 년 전 지역에서 활동하며 대구의 풍성한 근대 문화예술을 일군 문화예술인이 그러했듯 현재의 지역 예술인들도 우리나라의 예술인임을 되새기며 자부심을 갖고 활동했으면 좋겠다. 더불어 국가의 문화예술정책에서 지역 예술인의 활동이나 지역 문화예술을 소외시키지 않고 우리나라의 전체적 맥락에서 바라보고 정책으로 구현되길 바래본다.

현재의 예술작품으로 만드는 것은

우리 지역의 뜻

어렵게 유족이 내준 자료를 잘 보존하고 활용해서 윤복진의 작품 세계를 빛나게 해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어깨가 무겁다. 자료는 목록화 되고 주요 자료는 디지털로 변환을 해둔 상태이다. 바스러져 가는 종이류의 자료는 탈산제 처리를 하고 중성 보존 봉투에 보관해 두었다. 윤복진 유족 기증 자료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아카이브팀이 수집한 다른 자료들도 이 과정을 거쳐 수장고에 보존되고 있다. 그러나 그 자료와 육필 노트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고 분석, 연구하며 의미를 재해석할 시간과 인력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윤복진과 그의 시와 노래, 그리고 그의 활동에 대한 가치 재조명과 알리는 일, 그리고 과거의 것만이 아닌 현재의 예술작품으로 만드는 것은 우리 지역의 뜻이라고 생각한다.

자료를 기꺼이 만나게 해주신 유족 분들께 감사드린다. 더불어 연구자들의 깊이 있는 연구와 시민들의 관심도 부탁드린다.

류덕제

1958년 경상북도 성주(星州)에서 태어나 1995년 경북대학교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1995년 9월부터 지금까지 대구 교육대학교에 재직하고 있다. 2014~15년에는 대구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장을 역임했다. 2004년 뉴저지 주립대학교(The State University of New Jersey)와, 2012년 버지니아 대학교(University of Virginia)에서 연구교수로 미국의 문학교육과 아동문학 교육을 공부했다. 2015~17년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와 2018~20년 국어교육학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2018년 이재철아동문학평론상을 수상했다.

주요 저서로 「『별나라』와 계급주의 아동문학의 의미」(2010), 「일제 강점기 계급주의 아동문학의 방향전환론과 작품적 대응양상 연구」(2014), 「윤복진의 아동문학과 월북」(2015), 「송완순의 아동문학론 연구」 등의 논문과, 『한국 아동청소년문학연구』(공저, 2009), 『학습자중심 문학교육의 이해』(2010), 『권태문동화선집』(지식을 만드는 지식, 2013), 『현실인식과 비평정신』(2014), 『한국아동문학사의 재발견』(공저, 2015), 『한국현실주의 아동문학 연구』(2017), 『김기주의 조선신동요선집』(2020), 『한국아동문학비평사 자료집(전8권)』(2019~2021), 『한국현대아동문학비평론 연구』(2021) 등이 저서가 있다.

참고문헌

- 류덕제, 「윤복진과 아동문학」, 『대구작가클로워엄 인문예술세미나 자료집』, 2022.9.
- 류덕제, 「윤복진의 필명 연구」, 2019



사진 10. 류덕제 교수, 남지민
인터뷰 모습

한국 최초의 전문 연극연출가 홍해성 선생

사진 1. 봉산문화회관 앞 홍해성 흉상



Interviewee

김삼일(대경대학교 연극영화과 석좌교수)

Interviewer

손호석(극작가)

최근 대구 연극계는 대단히 활기찬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40여 개 이상의 연극 단체들이 매년 수백 편의 공연을 무대에 올리고 있다. 올해 대구연극협회가 진행한 ‘대구국제 힐링공연예술제’의 경우 무려 21개 팀이 참여하여 다른 지역 연극협회들의 부러움을 사기도 했다. 특히 젊은 연극인들이 늘어나고 그들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극단들이 창단되는 추세는 대구연극의 미래를 기대하게 만드는 요소이다.

하지만 걱정되는 부분들도 있다. 앞으로 우리가 만나게 될 젊은 관객들은 게임이나 영상 산업에 익숙해져 연극이라는 장르를 낯설게 느끼고 있다. 여기에 인구 감소와 지역의

청년 유출이라는 현실까지 더해지면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연극 예술이 생존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

이렇게 기회와 위기가 공존하는 시기에 한국 연극의 씨앗을 뿌린 선각자들에게서 지혜를 구하는 것은 매우 현명한 일일 것이다. 많은 선각자들이 계시지만 이번에는 대구 출신이면서 한국 최초의 연극연출가로 인정받고 있는 홍해성 선생의 이야기에서 배움을 얻고자 한다. 선생의 연극 정신이 우리 지역의 원로 연극인에게 전달되고 또 지금의 우리가 그 정신을 이어받게 되었으리라.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지역의 원로인 김삼일 선생을 통해 홍해성 선생의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김삼일 선생은 60여 년간 연극의 길을 걸으며 대구, 경북 지역의 연극 발전을 위해 노력하였고 또 후학들을 길러내는 일에 매진하였다. 그의 약력을 간단히 소개하자면, 영남대 국문과와 단국대 예술대학원을 졸업하였고, 대경대학교에서 오랜 시간 학생들을 가르쳤다. ‘서울신문향토문화상’, ‘경북문화상’, ‘한국연극예술상’, ‘전국연극제 대통령상’ 등을 수상하였고 특히 대구 MBC가 홍해성 선생의 업적을 기념하여 제정한 ‘홍해성연극상’의 첫 번째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2021년 대한민국연극제’에서는 심사위원장으로 활동하였고, 현재는 포항문화연구소의 소장으로 지역 연극 발전을 위해 쉬지 않고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홍해성 선생의 생애와 정신에 대해 이야기해 줄 적임자로 생각되어 귀한 시간을 내어주십사 부탁을 드렸고 흔쾌히 응해주시어 인터뷰를 진행하게 되었다. 인터뷰는 11월 15일 대구예술발전소 3층의 열린수장고에서 진행하였다.



사진 2. 홍해성 선생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계신 김삼일 선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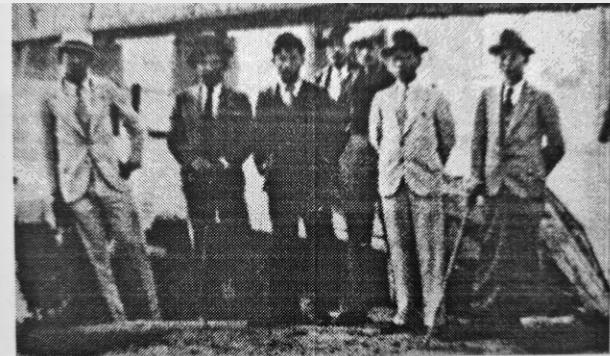
Q.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선생님께 한국 최초의 전문 연극연출가인 홍해성 선생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자 합니다. 홍해성 선생은 어떤 분이셨나요?

홍해성 선생은 계성학교 학적부에 따르면 1896년에 태어났습니다. 대구 대남학교를 거쳐 1912년에 계성학교에 진학해 2학년을 마치고 부모님의 권유로 변호사가 되기 위해 일본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그리 부유한 집안은 아니었던 탓에 유학 생활 동안 생활고에 시달린 듯합니다. 일본 중앙대학 법학과에 다니면서 서클 활동을 통해 조선 유학생들과 교분을 쌓게 되었고 거기에서 아주 중요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Q. 김우진 선생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김우진 선생은 1897년 전라남도 장성에서 태어나 아버지가 설립한 호남선우의숙에서 한학을 배운 다음 19세 때 목포로 이주하여 목포보통공립학교를 졸업하였습니다. 그 후 일본 구마모토 농업학교로 유학을 떠나게 됩니다. 부농 집안의 장남이었기 때문에 가업을 잇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나 와세다 대학 영문과로 진학을 하게 되고 입학한 1920년, 23세 때 동경유학생들을 규합해 ‘극예술연구회’를 발족합니다. 이 모임에 홍해성 선생도 창립동인으로 참여했습니다.

사진 3. 이필동 선생 대구연극사 집필
자료에서
(출처=대구시 문화예술아카
이브 이필동컬렉션)



洪海星의 「朝鮮演劇全」 시절
북신 공연장에 두산강 철교 밑에
김우진 두번째가 洪海星, 세 번째는 南基遠.
맨 뒷쪽이 조선연극사 대표 三池斗漢 이다.

Q. 김우진 선생과 홍해성 선생은 연극 동지였던
셈이네요?

그렇지요. 김우진 선생은 홍해성 선생에게 ‘일제 치하에서 법을 전공해봤자 법대로 변호하거나 판결을 내릴 수 있겠느냐’면서 아예 학교를 옮겨 예술을 선택하라고 권유했습니다. 이에 홍해성 선생은 일본대학예술과로 전학하여 연극을 전공하기 시작했고, 1924년에는 김우진의 주선으로 일본 근대극의 요람인 ‘스끼지 소극장’에 한국인으로는 유일하게 입단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일본 신극계의 거목 ‘오사나이 가오루’의 문하생이 되어 본격적으로 연극 수업을 받게 됩니다.

Q. 귀국 후 고국에서의 연극 활동을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한 것일까요?

맞습니다. 두 분이 남긴 글을 보면 그러한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김우진 선생의 글을 보면

프랑스의 ‘앙드레 앙뜨완느’가 그랬고 그 뒤를 이어 일어났던 독일의 ‘자유무대’가 그랬으며 미국 각 지역에서

일어난 소극장이 그랬었다. 그들은 영리가 목적이 아니고 새로운 일이 목적이었다. 우리도 이러한 각오를 가져야 일이 된다. 영리를 잊어버리고 돈 몇 푼들인 후에 설령 그 돈이 다 사라지고 거지가 된다고 하자. 그러나 다만 이 땅에 신극 운동의 종자를 떨어뜨릴 수만 있다면 그 만이다. 새 종자가 떨어지는 동시에 그 원래 가지는 말라 죽는 것을 우리는 초목에서 보지 않는가!

매일신보에 실린 홍해성 선생의 글에서도 조국에서 신극 운동을 일으키려 했던 의지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김우진)와 나는 최초에 10만 원의 예산으로 경성에 연극전문 극장을 건설하여 동지를 규합해 신극 운동을 일으키기로 작정하고, 김우진은 와세다 영문과에 연극학을 전공하고 나는 오사나이 가오루의 제자가 되어서 무대에 대한 실질적인 지식을 배우게 됐는데.....

이러한 글들을 보면 귀국 후, 유복한 가정의 장남이었던 김우진 선생이 재정적인 면을 담당하고 연극 형상화는 홍해성 선생이 책임지기로 사나이들의 맹세를 하였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Q. ‘스끼지 소극장’에서 연출가로 훈련을 받으신 건가요?

홍해성 선생은 배우보다는 연출가로 대성할 것을 꿈꾸었습니다. 연출가가 되기 위해서는 연극의 모든 부분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여 우선 배우 수업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단역 배우부터 시작해 몇 편의 작품에 출연한 뒤 자질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러시아의 극작가 막심 고리키의 명작 <밤주막>에 출연하여 뛰어난 연기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를 계기로 홍해성 선생은 조선사람이라는 핸디캡을 넘어 한 사람의 연기자로서 자리를 굳혔고, 언젠가는 조선에 돌아가 스승인 오사나이 가오루 같은 지도자적 연출가가 되겠다는 다짐을 하였습니다. 선생은 1924

년 10월부터 1929년 3월까지 ‘스끼지 소극장’에서 무려 84편의 작품에 출연했으며 연기와 더불어 연극연출의 기법도 익히려 노력하였습니다. 공연을 마치고 하숙방에 돌아와서는 꼭 연기 연출에 대해 익힌 바를 노트에 적어놓고, 본인의 동작선은 물론이고 모든 등장인물의 등장과 퇴장 을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사진 4. 김삼일 선생



Q. 김우진 선생의 죽음이 홍해성 선생에게는 큰 충격이었겠습니다.

그야말로 청천벽력이었지요. 김우진은 1926년 8월 4일 그의 나이 29세에 현해탄에서 연인이었던 윤심덕과 함께 몸을 던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스끼지 소극장’에서 이 소식을 전해 들은 홍해성은 밖으로 뛰쳐나와 김우진의 이름을 부르면서 미친 듯이 하늘을 바라보며 절규했습니다.

Q. 귀국 후 홍해성 선생님의 활동은 어떠했습니까?

귀국 후에는 대구 문우 이상화와 같이 경성에 소극장 건립을 추진하였으나 자금조달이 여의찮아 눈물을 머금고 포기하고 극단 활동으로 노선을 바꾸었습니다. 홍노작, 최승 일 등과 협력해서 극단 신흥극장을 창단하고 연출부의 책

임자로 중책을 맡았습니다. 연출 이외에도 연구생 모집과 연극교육에도 힘을 썼다고 합니다. 신흥극장은 창단 공연으로 <모란등기>를 올렸으나 실패로 끝났습니다. 이 창립 공연의 제작비는 개성 출신의 갑부 고한승이 부담했지만, 연극 창조의 책임자는 홍해성이었습니다. 이후 1932년 우리나라 최초의 신극 단체인 극예술연구회가 창단되자 종추적 멤버로 참여하여 1933년까지 모두 22 편의 작품을 연출하였습니다.

Q. 동양극장에서도 활동을 하셨죠?

1935년에 건립된 동양극장에서 영입 제안이 왔을 때 선생은 망설이다가 그 제안을 수락하게 됩니다. 주로 상업극을 공연하는 극장이었기 때문에 고민했지만, 전문 연극전용 극장에서 연중무휴로 연극공연이 이루어진다는 장점이 있었고, 상업극을 정통연극으로 개량하겠다는 신념도 있었다고 합니다. 선생이 경제적으로 어려웠다는 것도 중요한 이유 중 하나였을 것입니다. 당시 극예술연구회 멤버들은 대부분 일본 유학파들로 집안이 어느 정도 넉넉했고 연극을 전업으로 한다기보다는 연구한다는 생각이 더 강했기 때문에 홍해성의 생각과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공연을 해도 입장 수입이 거의 없었고, 연극전용 극장이 아닌 학교 강당이나 공회당 같은 건물에서 공연을 올린다는 한계도 있었습니다.

동양극장으로 자리를 옮긴 홍해성은 1935년부터 심장병으로 1942년 동양극장을 그만둘 때까지 700여 편의 신파극을 개량하고 무대에 올렸습니다. 그 후로는 해방이 되는 1945년까지 침거했는데, 아마도 일제에 협력하기 싫어 병을 핑계로 자취를 감춘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때는 날이 조여오는 일제의 강압 정책으로 연극 창조에 희망이 없는 시기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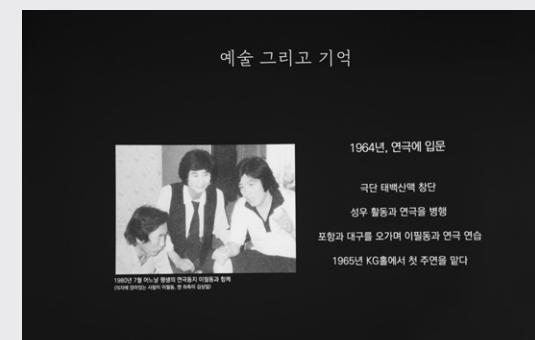
Q. 해방 이후에는 다시 활동을 시작하셨나요?

홍해성 선생은 해방 이후 다시 활동을 재개하여 1950년 ‘신극협의회’ 초대회장을 역임했습니다. 6·25전쟁 당시 대구로 피난 갔던 국립극장이 1957년 서울로 환도하면서 환도 기념 공연을 올렸습니다. 1957년 7월 12일부터 4일간 서울중앙국립극장에서 <신양과 고향>을 공연하였는데 이 공연을 홍해성 선생이 연출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12월 16일에 타계했습니다.

Q. 홍해성 선생의 생애가 끼친 영향이 있습니까?

홍해성 선생은 조국에 연극전용 소극장을 만들기 위해 많이 노력했습니다. 극장을 만드는 데 사용된 돈을 모두 잃게 되더라도 고국에 신극 운동의 씨앗을 뿌릴 수만 있다면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진 5. 과거 김삼일 선생
극단 시절 사진



나는 60년 동안 연극의 길을 걸으면서 홍해성 선생의 연극 정신을 내 예술창조의 모체와 원천으로 삼고 정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도 이러한 연극 정신을 전수해 왔습니다. 선생이 그토록 갈구했던 연극전용 소극장을 포항 시내 중심가에 2012년에 개관하여 ‘김삼일 자유소극장’이라고 명명하고 마음껏 국내외 명작을 공연하면서 지역 연극 발전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이어서 2013년에는 영남대 앞 골목길에 연극전용 소극장 ‘판’을 연극 영화과 교수들과 힘을 합해 개관하였고 학생들의 학습장

과 연극전용 소극장으로 활용하며 많은 명작들을 무대에 올렸습니다. 홍해성 선생이 몸담았던 극예술연구회 제1회 공연작품이었던 <검찰관>을 비롯해 <리차드 3세>, <벚꽃 동산>, <갈매기>, <바나 아저씨>, <청춘>,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느릅나무 밑의 욕망>, <유령>, <인형의 집>, <산불> 등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의 많은 명작들을 선보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소극장 운동을 지속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저의 이러한 단독 시도는 8년 만에 소극장의 문을 닫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서울 등 대도시에서도 어려운 소극장 운영을 중소도시에서 열정 하나만으로 유지하는 것은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홍해성 선생의 연극 정신을 실천에 옮겨 보겠다고 내 영혼을 소극장 운동에 모두 투영했고 그러한 연극 정신의 종자가 우리 지역에 뿌려졌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조국에는 없는 새롭고 가치 있는 무언가를 짹 틔우기 위해 홍해성 선생은 먼 타국에서 각고의 노력으로 배우고 또 배웠다. 당장은 금전적인 손해를 입더라도 나의 조국에 가치 있는 씨앗을 뿌리겠다고 각오했던 홍해성 선생을 본 받아 김삼일 선생은 지역 연극의 태동과 발전을 위해 애쓰셨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정신을 이어 나가야 할 책임이 있을 것이다.
대단히 역동적인 활동을 보이면서 동시에 외부적 요인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오늘날의 지역 연극계가 이 땅에 새롭게 심어야 할 연극 예술의 씨앗은 무엇일지 앞선 선각자들의 행보를 상기하면서 고민해보면 어떨까?

사진 6. 손호석, 김삼일 선생
인터뷰 모습



답사 기행문



향촌동, 피란문학 거리를 걷다

조두진

(소설가, 매일신문 논설위원)

1950년 여름, 피란문학이 꽂피었다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하면서 전국에서 피란민들이 대구와 부산으로 오면서, 피란 문인의 약 40%가 대구로 왔다. 대구로 온 피란 문인들은 당시 가장 변화가였던 중구 향촌동과 북성로로 찾아들었다. 1950년 여름, 그렇게 향촌동과 북성로에는 ‘전선문학’이 꽂피기 시작했다.

김동리, 마해송, 박두진, 박목월, 조지훈, 유치환, 오상순, 최태웅, 정비석, 이덕진, 방기환, 김윤성 등 많은 작가들이 대구에서 피란 생활을 했다. 향촌동 일대 거리와 골목은 그야말로 전국에서 피란 온 문화예술인들의 성지가 되었다.

옛 풍경 더듬으며
대구문학로드 둘러보기

대구문학관은 1950년대 피란문단과 일제 강점기 문단 선구자들의 자취가 남아 있는 길과 건물을 따라 걷는 복합형 투어 프로그램 ‘대구문학로드’를 운영하고 있다.(2022년 11월 현재 8개 코스) 대구 근대기와 피란기 문학인과 문학 활동과 관련된 생가·고택·활동지 등을 전문 해설사의 설명과 함께 둘러보는 투어 프로그램이다.

‘대구문학로드’ 8개 코스는 조금씩 겹치거나 주제별, 시기별로 차이가 두드러지는 코스도 있다. 개인의 취향과 관심사에 맞춰 어떤 코스를 먼저 걸어도 무방하다. 2022년 11월, 필자는 8번 코스 ‘대구문학관 추천길’을 중심으로 여기 저기 인근 장소를 걸었다.

▽ 문성당 출판사

대구시 중구 종양대로 440-2

사진 1. 문성당 출판사
(출처=필자 제공)



대구문학관을 나서서 ‘8번 문학로드’를 따라 걸으면 가장 먼저 만나는 장소는 옛 ‘문성당 출판사’가 있던 자리다. 중앙로를 가운데 두고 대구문학관 길 건너편 동남쪽에 위치하고 있다.

출판사 외벽의 타일 벽화는 1960년대 작품으로, 대구 출신 서석규 화백이 30대에 완성한 타일 벽화 ‘황소’이다. 1960년대 작품이라고 보기 힘들 정도로 현대적인 작품이다.

1947년 문을 연 문성당 출판사는 1950년대 우리나라 출판문화의 산실로 사조그룹 창업주인 고(故) 주인용 사장이 설립했다. 그는 해방과 함께 일본어로 되어 있는 많은 책들이 국어로 바뀔 것을 예상하고 출판업에 뛰어든 지식인이다.

문성당 출판사는 포정동 61번지, 71번지를 옮겨 다니다가 현재의 자리에 건물을 올리게 되었다고 한다. 대구출신 시인 이설주 시인의 시집들과 시인 모윤숙의 『풍랑』(1951년), 시인 유치환의 『청마시집』(1954년)을 펴낸 곳이다.

▽ 꽃자리 다방

대구시 중구 북성로 107

6·25전쟁 피란시절, 향촌동과 북성로 일대 다방은 피란 문화예술인들, 특히 문인들의 사교장이자 창작 산실이었다. ‘꽃자리’라는 다방 이름은 이 다방의 단골손님이었던 시인 구상의 시 「꽃자리」에서 따왔다고 한다.



반갑고 고맙고 기쁘다/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네가 시방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너의 앉은 그 자리가/ 바로 꽃자리니라/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하략)

사진 2. 꽃자리 다방
(출처=필자 제공)

이 시는 구상 시인이 깊은 문학 교류를 나누었던 공초 오상순 선생의 ‘반갑고, 고맙고, 기쁘다’고 건네는 평소 인사 말에서 영감을 얻어 창작했다고 한다. 꽃자리 다방은 구상 시인의 시집 『초토의 시(焦土의 詩)』 출판 기념회가 열린 곳이기도 하다.

사진 3. 구상 시인의 『초토의 시』
(출처=대구문화관)



꽃자리 다방이 있었던 건물은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다. 1950년대 문화예술이 꽂피었던 이 자리는 현재 청년 예술인들의 공연과 전시가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다. 현대적 작품이 옛 건물의 운치와 어울려 특별한 맛을 낸다. 또 하나의 ‘꽃자리’로 거듭나고 있는 셈이다. 북성로 오는 길에 꼭 한번 들러볼 것을 권하고 싶다.

▽ 백조 다방

대구시 중구 북성로 101-4

백조 다방은 피아니스트 이공주 씨의 부친 이삼근 씨가 아들을 위해 다방에 그랜드피아노를 들여다 놓은 것으로 유명하다. 프랑스 작곡가 생상스의 <동물의 사육제> 14악장 중 13번 <백조>에서 이름을 따왔다고 한다. 1947년 문을 열었고, 피란시절 많은 문인, 목객, 문화예술인들이 이 다방에 찾아왔다. 특히 음악인들이 즐겨 찾았다. 효성여자대학교(현 대구가톨릭대학교)와 계명대학교 음대 학생들의 연습공간으로도 많이 활용되었다. ‘나리나리 개나리 입에 따다 물고요, 병아리떼 종종종 봄나들이 갑니다’라는 가사로 유명한 동요 <봄나들이>를 작곡한 권태호 선생이 이

곳에서 살다시피 했다. 권태호 선생은 늦은 밤까지 백조 다방이나 인근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기 일쑤였다. 고(故) 윤장근 선생에 따르면, 야간통행금지가 있던 시절 순경에게 불잡힌 그는 ‘나는 개요. 사람이 아니요’라며 네발로 기며 멍멍멍 개 짖는 흉내를 내고는, 순경이 깔깔깔 웃는 사이 체포를 피했다고 한다.

2019년 이 자리에 옛 백조 다방의 뒤를 이어 작고 아담하지만 멋있는 현대식 ‘백조 다방’이 문을 열었지만, 2022년 11월 현재는 사라지고, 그 일대에 고층 아파트를 신축 중에 있다.

▽ 모나미 다방

대구시 중구 북성로 104

백조 다방 맞은편 향촌동 골목 초입에 있었던 모나미 다방은 피란 문인들의 안식처로, 이효상 시인의 시집『바다』출판 기념회가 열렸던 곳이다. 구상, 오상순, 조지훈, 김동사, 서동진(화가), 흥영의, 이응창, 이윤수, 이호우, 최광열, 신동집, 오란숙 등 여러 문인들이 출판 기념회에 참석하여 축하했다.

2017년 9월부터 2018년 1월 말까지 대구문학관이 당시 출판 기념회를 재구성한 ‘문학살롱 MonAmi’전을 개최해 호평을 얻기도 했다. 과거 사진과 현대에 제작한 캐리커처 등을 이용해 시가 흐르는 향촌동 거리를 재현한 것이다.

▽ 백록 다방

대구시 중구 북성로 106-6

백록 다방은 경북여고 출신의 지식인 정복향과 안윤주가 운영했던 다방이다. 당시 ‘음악은 르네상스에서, 차(茶)와 대화는 백록에서’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주인들의 문학과 예술에 대한 조예가 깊었다고 한다.

사진 4. 백록 다방 자리
(출처=필자 제공)



백록 다방은 화가 이중섭이 은지화를 그린 곳으로 유명하다. 은지화는 종이가 귀하던 시절 담뱃갑에 들어 있는 속 포장지인 은박지에 못이나 철필로 윤곽선을 그리고, 그 위에 물감이나 먹물을 입혀 그린 그림이다.

1950년대, 가족을 모두 일본으로 보내고, 홀로 대구에 와 있던 이중섭은 가난했다. 그는 커피를 사 마실 돈도 그림 물감을 살 돈도 없었다. 이중섭은 다방에 앉아 담뱃갑 은박지에 볼펜을 꾹꾹 눌러 그림을 그렸다.

고(故) 윤장근 선생에 따르면 이중섭이 종일 다방에 앉아 있으면서도 차를 주문하지 않아 다방 아가씨들이 판잔을 주었다고 한다. 이중섭은 차를 주문하면서 은박지 그림을 찻값으로 지불했다. 하지만 당시 다방 아가씨들은 그림의 가치를 알지 못해 입을 빼죽 내밀며 불만을 표시했다고 한다.

구상 시인의 주선으로 1955년 화가 이중섭의 전시회가 미국공보원에서 열리기도 했다. 하지만 그림은 잘 팔리지 않았고 이중섭은 매우 서운해 했다고 한다. 당시 전시회를 열어주었던 미국 공보원장 맥타카트가 그림 몇 점을 매입해 뉴욕 현대미술관(MOMA)에 기증했다. 현재 이중섭의 그림은 뉴욕 현대미술관 공식 소장품이 되어 있다.

▽ 화월여관

대구시 중구 북성로 104-18

화월여관은 향촌동 좁은 골목을 사이에 두고 백록 다방과 마주 보고 있었다. 현재는 성인 텍 '판코리아'가 영업 중이다.



일제 강점기 일본인 요리점 '명석'이 있던 자리로, 해방 후 화월여관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시인 구상, 아동 문학가 마해송이 자주 묵었다. 향촌동 골목 삼거리에 위치해 문을 열고 나가면 백록 다방, 호수 다방, 대지바가 눈에 들어왔다. 당시 일반적인 여관들은 일본식 다다미방으로 비좁고 양성했다. 하지만 화월여관에는 당시로는 드물게 침대가 있었고, 하룻밤 숙박비가 가난한 문인들의 한달 생활비와 비슷한 수준이었다고 한다. 가난했던 화가 이중섭, 소설가 최태웅 등은 일본식 다다미 여관 경복여관(대구시 중구 중앙대로 460)에 묵었다.

▽ 대지바

북성로 104-11

대지바는 6·25 피란시절, 대구로 피란 온 문인들에게 밥과 술을 사고, 출판 기념회를 후원했던 구상 시인이 자주 들렀던 고급 술집이다. 당시 영남일보 문화부장이자 시인이었던 구상 시인은 자주 주머니를 풀어 술을 샀다. 어떤 문인이라도 자신이 마시고 있는 술집에 들어오면 아낌없이 술을 샀다고 한다. 당시 문단의 말석에 겨우 걸터앉았던 고(故) 윤장근 선생에 따르면 젊은 문인들은 '오늘은 어느 술집에 구상 시인이 계시나…?' 두리번거리며 향촌동 일대를 헤매기도 했다고 한다.

▽ 음악 감상실 르네상스

경상감영 1길 62-9

포연 속에서도 대구 중구 향촌동과 북성로 일대에서 문화 예술활동은 더욱 활발하게 펼쳐졌다. 클래식 음악 감상실 '르네상스'에서 처음 연주된 곡은 음악의 아버지 '바흐'의 대표작 <마테 수난곡>이었다고 한다. 미군 종군 기자들은 이곳에서 <마테 수난곡>을 감상하며 '멀리 포격 소리가 들리는 가운데에서도 대구에서는 클래식 음악이 흘렀다'고 말했다.

사진 6. 르네상스 음악감상실 자리
(출처=필자 제공)



문화살롱이었던 음악 감상실 '르네상스'는 호남 갑부 박용찬 씨가 6·25전쟁 피란길에도 트럭 한 대 분량의 레코드를 싣고 내려온 덕분에 문을 열 수 있었다. 모더니즘 시인 전

봉건은 르네상스에서 몇 달 동안 DJ를 맡을 만큼 음악을 즐겼다. 김동리, 조지훈, 천상병, 신동집 등 문인들은 물론이고 음악가 나운영, <가고파> 작곡가 김동진, 화가 김환기·변종하, 영화인 신상옥·최은희 등 문화예술인들이 르네상스를 즐겨 찾았다.

▽ 음악 감상실 녹향

대구시 중구 서성로 14길 100

녹향은 1946년 문을 연 우리나라 최초의 고전음악 감상실이다. 최초 문을 열었던 자리는 현재 제화골목 상가 '미투리제화'가 있는 자리이다.

문화예술단체 '예육회'의 총무인 이창수 씨가 회원들의 모임 장소를 물색하다가 이곳에 다방을 마련해 갖고 있던 레코드판 400여장을 틀기 시작했다. 당시는 클래식 음악이 대중화 되지 않아, 녹향에서 틀던 음반들이 음악을 지망하는 학생들의 교재가 되었다고 한다. '녹향'은 현재 대구 향촌 문화관 지하 1층에 자리 잡고 있다.



사진 7. 녹향 음악감상실 자리
(출처=필자 제공)

▽ 명금당

대구시 중구 서성로 16길 5 추정

대구 출신 시인 이윤수 선생이 운영하던 시계방이다. 이 선생은 1937년 『일본시단』에 작품을 발표하면서 문학활동을 시작했다. 명금당은 해방 이후 우리나라 최초의 문학동인지 『죽순(竹筍)』을 발간한 '죽순시인구락부'의 거점 역할을 했다. 죽순은 1946년 창간호를 시작으로 총 12권을 발간했다. 이 선생은 「달밤은」, 「인간온실」, 「별이 된 단풍잎」 등 작품을 발표했으며, 상화 시인상을 제정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이윤수 선생은 잡지 『죽순』의 원고 청탁부터 편집, 교열, 인쇄, 발송까지 도맡았다고 한다. 마감 기한에 맞춰 원고를 받기 위해 자전거를 타고 땀을 뻘뻘 흘리며 작가들을 찾아다니느라 생업은 뒷전이었다고 한다. 6·25전쟁 피란기 '문총구국대'가 대구에서 발간한 『전선시첩』의 편집을 맡기도 했다.

▽ 감나무집

대구시 중구 경상감영길 33 또는 37로 추정

6·25전쟁 발발 직후 대전에서 결성된 종군문인단 '문총구국대'는 국군이 후퇴하면서 대구로 옮겨와 감나무집에 터전을 마련했다. 감나무집은 현재 대구 종로 초등학교 옆 막걸리 집으로 피란 당시 수많은 문인들의 아지트이자 예술 혼을 불태웠던 곳이다.

'문총구국대'는 이곳에서 이효상, 이윤수, 김진태, 김시엽, 박양균, 신동집, 이호우 등 향토 문인들로 구성된 '문총구국대 경북지대'와 함께 대민방송 원고작성, 시국강연 등 원고를 작성했다. 향토 문인들뿐만 아니라 조지훈, 박두진, 김광섭, 박목월, 정비석, 구상, 최태웅, 최정희, 장덕조, 김윤성, 박영준 등 많은 작가들이 감나무집에 살다시피 했다고 한다.

이들은 전쟁의 비극과 아픔을 노래한 작품들을 잇달아 발표했다. 1950년 8월에는 광복 5주년을 기념해 작품집 『전선시첩』을 발간했다. 문총구국대는 1950년 9·28일 서울 수복과 함께 대구에서 활약을 끝냈지만, '창공구락부' 등 육해공군 각 군별로 결성된 종군문인단은 1953년 휴전될 때까지 대구를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구석구석에
피란 문인들 아지트

앞서 둘러본 다방과 여관, 음악감상실 외에도 향촌동, 북성로, 중앙로 일대에는 피란기 문학인들이 자취가 묻어 있는 자리가 많다. 백조 다방, 모나미 다방뿐만 아니라 청포도 다방(대구시 중구 북성로 112), 살으리 다방(대구시 중구 중앙대로 412-18 추정), 아담 다방(대구시 중구 중앙대로 412-21 추정) 역시 문화예술인들의 아지트였다. 중앙대로의 상록수 다방(중앙대로 452-2추정), 향수 다방(사일동 19)에서도 음악과 문학담론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아담 다방은 1951년 5월 26일 육군종군작가단이 발족한 곳이다. 최상덕, 김기진, 구상, 정비석, 최태웅, 유치환, 이효우, 이윤수 등이 육군종군작가단에 참여했다.

상록수 다방에서는 1951년 여름 이상로 시인의 시집『귀로』출판 기념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조지훈 시인, 박훈산 시인 등 여러 문인들이 참여했다. 이 출판 기념회에는 당시 최용덕 공군참모총장이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사진 8. 6·25전쟁 당시 부관학교를 방문한 종군작가단
(출처=대구문학관)

포연 속에서
잡지를 만들다

6·25전쟁 당시 대구는 육군과 공군 지휘부가 자리잡고 있었기에 전쟁문학을 생산하는 중심지 역할을 했다. 문총구국대, 육군종군작가단, 공군종군문인단이 대구를 중심으로 활동했다. 문총구국대는『전선시첩』을, 육군종군작가단은『전선문학』을, 공군종군문인단은『창공』,『공군순보』등 문학잡지를 대구에서 발간했다.

사진 9.『창공』
(출처=대구문학관)



◇『전선시첩(戰線詩帖)』

6·25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6월 27일 전국문화단체총연합회는 비상국민선전대를 결성했다. 국군의 후퇴와 함께 대전으로 온 작가들은 6월 28일 문총구국대(대장 김광섭)을 조직했다. 7월 5일에는 대구 문화극장에서 문총구국대 경북지대(대상 이효상)가 결성됐다.

종군문인단 '문총구국대'는 1950년 8월 15일 광복 5주년을 기념해 작품집『전선시첩』1집을 발간했다. 서정주, 조지훈, 구상 등 10여 명 시인의 작품 14편을 담았다.『전선시첩』은 당시 최전선까지 배포돼 수많은 장병들의 심금을 울렸다.

『전선시첩』1집은 문총구국대 국방부 정훈국이 발행한 것이고, 1951년 1월 발행한『전선시첩』2집은 문총구국대 경

북지대가 발행한 것이다. 2집에는 이윤수, 김진태, 이효상, 최광열 등 지역 문인 10여 명의 작품 25편이 실렸다.



사진 10.『전선시첩』2집
(출처=대구문학관)

행했다. 6·25전쟁 당시 대표적인 문예지로 국판, 100면 내외 크기였다.

사진 11.『전선문학』5호
(출처=대구문학관)



『전선시첩』은 2집까지 발간했으나 3집 발간을 앞두고 중단됐다. 편집 작업을 마치고 인쇄만을 남겨두고 있었지만 인쇄용지를 분실하는 바람에 인쇄가 불가능했다고 한다. 당시 편집을 맡고 있었던 이윤수 시인은 이 원고들을 간직하고 있다가 1984년 『전선시첩』 1집과 2집을 합본 형식으로 발행했다.

◇ 『전선문학(戰線文學)』

6·25전쟁기 김송, 김팔봉, 구상, 정비석, 최태웅, 유치환, 이호우, 이윤수 등은 육군 종군 작가단으로 활동했다. 마해송, 조지훈, 박두진, 박목월, 김동리, 최인욱, 곽하신, 황순원, 최정희, 김윤성, 박훈산 등은 공군 종군작가단으로 활동했다.

육군종군작가단은 1951년 5월 26일 대구시 동성로에 있는 아담 다방에서 결성됐다. 단장은 소설가 최상덕, 부단장은 소설가 겸 문학평론가 김팔봉과 시인 구상이 맡았다. 이들 외에 박영준, 정비석, 최태웅, 유치환, 장만영, 양명문, 이호우 등 소설가와 시인들이 단원으로 활동했다.

육군종군작가단은 기관지이자 종합문예지인 『전선문학』을 1952년 4월 창간했으며, 1953년 12월 통권 7호까지 발

종군문인들은 순수문학 작품을 쓰는 한편, 진중 문예활동을 활발하게 펼쳤다. 군가를 작사하거나, 전단 표어 작성, 대민 방송 및 시국 강연 원고 작성, 전방의 군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글도 썼다. 피란시절 대구문학은 작가 개인의 순수문학과 함께 '전쟁', '피란', '이별' 등 전쟁의 아픔과 비극을 표현했다.

밥은 굽어도 술을 끊을 순 없다.

낮에 다방과 음악감상실에서 문화와 예술을 즐기던 사람들은 해 질 무렵이면 향촌동 일대 골목에 자리 잡은 뚝보집, 고바우집, 건너집(경상감영공원 주차장 출구에서 북성로 방향으로 이어진 길 우측), 곤도주점(음악감상실 녹향 최초 자리 인근)으로 자리를 옮겨 밤이 깊도록 술을 마셨다.

작가들이 대민방송 원고작성, 시국강연 원고를 써 주고 받은 '원고료'는 곧 '동료 문인들의 술값'이었다. 모두가 어렵

게 살던 시절이었고, 가족 생계가 걱정이었지만, 대구에 모인 문인들은 원고료를 받으면 모두 술을 사는 것이 암묵적 약속이었다. 가난한 시절이었음에도 술자리가 끊이지 않았던 이유다.

원고료를 받아온 동료마저 없는 날이면 으레 외상이었다. 당시는 요즘과 달리 ‘외상술’에 대해 주점 주인도 너그러웠다. 손님들도 떼먹는 일은 없었다고 한다. 당시 대구에는 육군본부와 UN군 사령부 등이 주둔해 있었다. 문인들의 외상값이 쌓였다 싶으면 고위 장교들이 향촌동에 나타나 외상값을 갚아주기도 했다.

맺음말

국군과 함께 왔던 문인들은 국군과 함께 떠났다. 북성로와 향촌동 풍경 역시 세월을 따라 변했다. 사람이든, 거리든 세월과 함께 변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다만 그 거리, 그 자리가 ‘6·25 피란문학이 꽂 핀 자리’라는 사실이 잊히지 않기를 바란다. 다행히도 이 거리를 찾는 후인들이 늘어나고, 이 거리와 그날의 추억을 되새기는 다양한 문화예술활동이 펼쳐지고 있다. 북성로와 향촌동을 걷는다는 것은 70여 년 전 피란문학의 세계로 떠나는 귀한 여행이다. 대구시민, 대구를 찾는 관광객들이 북성로와 향촌동 거리를 느릿느릿 걸어볼 것을 권하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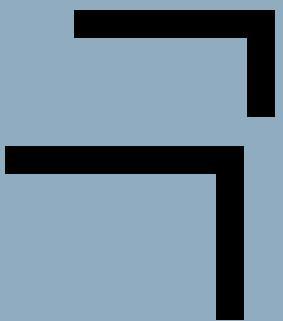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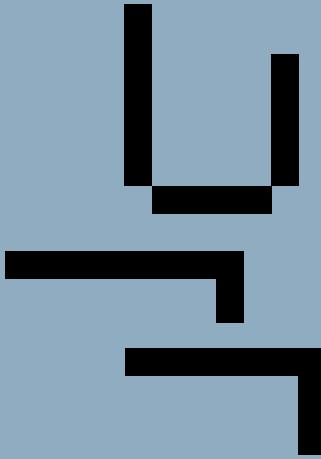


대구문학로드 홈페이지
(출처=대구문학관)

SECTION 03.

북구를 담다

북구를 담다



남인 예학의 종장(宗匠)이며 실학의 연원

정구(鄭述) 선생과 한강공원

이정웅(前 팔거역사문화연구회장)



사진 1. 한강공원 입구(출처=필자 제공)

북구 사수동에는 한강로(寒岡路)와 한강공원(寒岡公園)이 있다. 혹자는 한강은 서울에 있는데 웬 한강로와 한강공원이냐 하고 반문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서울의 한강(漢江)은 강남과 강북을 나누며 동서로 흐르는 강이고, 북구 사수동의 한강(寒岡)은 조선 중기 성리학자로 영남 오현(五賢)의 한 분인 정구(鄭述, 1543~1620)의 아호(雅號)이다.

대구시의 800여 개 공원 중에서 특정한 인물을 기리기 위해 조성한 공원은 4곳이다. 즉, 임진왜란 때 왜적을 크게 물리친 의병장 망우당(忘憂堂) 각재우(郭再祐)를 기리는 동구의 망우당공원, 대구에서 최초로 의병을 일으켜 공을 세운 월곡(月谷) 우배선(禹拜善)을 기리는 달서구의 월곡역사공원, 최근에 조성한 코미디언 송해(宋海)를 기리는 달성군의 송해공원이다.

한강공원도 물론 이 범주에 포함된다. 이들 공원이 어느 공원과 다른 점은 망우당과 송해공원은 조성 재원이 시비나 국비이고, 월곡역사공원의 부지는 단양우씨 문중이 사업비는 시와 구가 부담했지만, 한강공원은 국비나 시비가 아니고 LH 재원이라는 점이 다르다. 한강공원은 달구벌 일찾는모임(대표 이정웅)이 주관하고, 금호사수지구택지개발주민대책위원회(회장 박만규), 칠곡향교(전교 정용규), 후손들의 모임인 청주 정씨 문목공 대종회(명예회장 정건용, 회장 정재남)의 협조와 대구시 도시계획과 한영기 팀장, 코리아랜드스케이프연구소 이제화 박사, World Amenity 환경조형 연구소 오용환 박사의 설계 지원을 바탕으로 민간단체가 조성을 제안한 것 또한 다르다.

휴식공간이라는 공원의 본래 목적에 충실하면서도 지역의 정체성을 담는 데 노력했다. 이러한 제안은 수백년을 살아오다가 택지개발로 보금자리를 잃고 상실감이 큰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도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점은 LH가 특별히 유념해야 할 사항이다.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앞장서서 해결해 준 이상희 전 장관과 LH 이동영 부장의 조언도 큰 도움이 되었다. 면적 41,736 m²(12.625평)에 사양정사, 유허비, 시비(詩碑), 관어대(觀魚臺)를 본떠서 만든 정자와 연못, 매화원, 실개천 등이 대표적인 시설이다.

공원 입구의 양졸재 정수와 아들 경한재 정천주의 유적비는 공원용지 섬뫼산(또는 수뫼산)의 원 소유주이

자 양졸재의 묘가 있던 곳이기에 동래정씨 문중에서 세웠다. 두 분 다 한강의 제자이자 부자간이며 특히, 양졸재는 대구 십현의 한 분이고, 경한재는 한강의 봉산욕행(蓬山浴行)에 동행했다.

마을의 남북을 가르며 흐르는 개천에 한강이 즐겨 찾던 무흘구곡(武屹九曲)을 재현해 보려고 했으나 수량이 부족하여 불가했고, 사양정사(精舍) 복원 시 서쪽의 서재 지경재와 명의재는 넣지 않고 모두 대청으로 처리했다. 방을 넣으면 불량배들이 은신하다가 화재를 낼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2007년 공원 조성을 제안하고, 6년 후 2013년에 준공하였다. 2018년 청주정씨문목공대종회와 한강정구 선생기념사업회(회장 정안식)가 고유제(告由祭)를 지내고, 2020년에는 한강학연구원(이사장 정재남)에서 한강 선생 서세(逝世) 400주년 추모제와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1617년(광해군 9) 한강이 75세에 손수 지은 사양정사는 1651년(효종 2) 사양서원으로 승격되어 석담(石潭) 이윤우(李潤雨)를 종사(從祀)하였으며 1694년(숙종 20)에는 칠곡군 지천면 신동으로 옮겨 광주인 송암(松巖) 이원경(李遠慶)을 별사(別祠)에 추향(追享) 하였다. 그러나 고종 때 훠철되고 현재 사양서당강당(경북 문화재 자료 제117호)만 남아있다.

그런데 왜 성주 출신 한강을 기리는 공원을 대구 그것도 북구 사수동에 조성했을까?



사진 2. 한강공원 솔숲(출처=필자 제공)

첫째는

한강은 대구에 학문을 숭상하는 풍습을

진작시킨 분이다.

대구에는 고려말, 조선 초 포은 정몽주(鄭夢周, 1337~1392)의 문인으로 예조판서를 지낸 전백영(全伯英, 1345~1412)과 달성공원을 나라에 헌납한 서침(徐忱, ?~?) 등이 있었고, 영천에 유배되었던 유방선(柳方善, 1388~1443)의 문인으로 오랜 기간 양관 대제학을 지낸 서거정(徐居正, 1420~1488), 점필재 김종직(金宗直, 1431~1492) 문인으로 조선 성리학을 계승한 김굉필(金宏弼, 1454~1504)과 청백리 곽안방의 아들 곽승화(郭承華, ?~?), 퇴계 이황(李滉, 1501~1570)의 제자인 전경창(全慶昌, 1532~1585) 등이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벼슬길에 나아가거나 사화에 연루되어 고향에서 제자를 두지 못했다.

이러할 즈음 가학을 성취한 송담(松潭) 채응린(蔡應麟, 1529~1584), 임하(林下) 정사철(鄭師哲, 1530~1593)이 서실을 개설하여 강학했었다. 그러나 유학이 크게 확산하지 못했다. 따라서 대구 선비들은 인근 고을 성주의 한강을 찾게 되었다.



사진 3. 한강공원 내 새로 복원된 사양정사(출처=필자 제공)

대구지역의 한강 문인

순번	이름	생몰연도	아호	비고
1	곽재겸(郭再謙)	1547~1615	괴헌(槐軒)	대구 십현
2	송원기(宋遠器)	1548~1617	아헌(啞軒)	
3	서사원(徐思遠)	1550~1615	낙재(樂齋)	대구 십현
4	손처눌(孫處訥)	1553~1634	모당(慕堂)	대구 십현
5	정광천(鄭光天)	1553~1594	낙애(洛涯)	대구 십현
6	이주(李輔)	1556~1604	태암(苔巖)	
7	손처약(孫處約)	1556~1607	오매정(五梅亭)	
8	채몽연(蔡夢硯)	1561~1638	투암(投巖)	대구 십현
9	채선수(蔡先修)	1568~1634	달서재(達西齋)	
10	류시번(柳時藩)	1569~1616	사월당(沙月堂)	대구 십현
11	채선길(蔡先吉)	1569~1646	금단(琴灘)	
12	배경기(裴經可)	1570~1650	달천(達川)	
13	도성유(都聖俞)	1571~1649	양직당(養直堂)	대구 십현
14	정수(鄭錘)	1573~1612	양졸재(養拙齋)	대구 십현
15	도응유(都應俞)	1574~1639	취애(翠涯)	
16	도여유(都汝俞)	1574~1640	서재(鋤齋)	대구 십현
17	정기(鄭錡)	1574~1642	금재(琴齋)	
18	채선견(蔡先見)	1574~1644	양전헌(兩傳軒)	
19	채선근(蔡先謙)	1576~1615	대곡(大谷)	
20	서사술(徐思述)	?	요산(樂山)	
21	서시립(徐時立)	1578~1665	전귀당(全歸堂)	대구 십현
22	도언유(都彦俞)	1579~1623	일암(逸庵)	
23	서사선(徐思選)	1579~1651	동고(東臯)	대구 십현
24	최동립(崔東豎)	1583~?	-	
25	최동률(崔東禪)	1585~1622	다천(茶川)	
26	최동집(崔東集)	1586~1660	대암(臺巖)	
27	박종우(朴宗祐)	1587~1654	도곡(陶谷)	대구 십현
28	채무(蔡懋)	1588~1670	백포(栢浦)	
29	도경유(都慶俞)	1596~1637	낙음(洛陰)	
30	정천주(鄭天澍)	1596~1661	경한재(景寒齋)	
31	도신수(都慎修)	1598~1650	지암(止巖)	
32	도신징(都慎徵)	1598~1648	서호(西湖)	
33	구희신(具懷愼)	1564~1634	계암(溪巖)	
34	정선(鄭銑)	1579~1644	이계(伊溪)	
35	이지영(李之英)	1585~1639	수월당(水月堂)	
36	손린(孫蓮)	1566~1628	문단(聞灘)	
37	손기업(孫起業)	1571~1644	온암(隱庵)	
38	채선각(蔡先覺)	1552~1598	-	대구 십현
39	곽위국(郭衛國)	1587~1656	낙수(洛叟)	
40	곽주(郭澍)	1569~1617	소계(蘇溪)	
41	곽근(郭漸)	1554~1632	성재(省齋)	곽준의 아우
42	곽준(郭遜)	1550~1597	존재(存齋)	
43	전사헌(全士憲)	1565~1618	거옹(苦翁)	
44	손설(孫瀨)	?	-	
45	곽이창(郭以昌)	1590~1654	모현재(慕賢齋)	
46	서사진(徐思進)	1568~1645	이재(怡齋)	
47	박수춘(朴壽春)	1572~1652	국담(菊潭)	대구 십현



사진 4. 한강 정구 선생 유허비(출처=필자 제공)

모두 47명으로, 활동 본거지라고 할 수 있는 성주의 67명 다음으로 많다. 이들 문인 중 모당(慕堂) 손처눌(孫處訥, 1553~1634)은 대구의 동쪽의 영모당에서, 낙재 서사원은 서쪽 선사재에서 많은 제자를 길러내어 한강의 학문과 사상의 영향력이 대구사회에 더욱 확장되었다. 그 후 한강은 대구 최초의 서원 연경서원에 퇴계에 이어 배향되고, 다음 세대에도 계승되어 1798년(정조 22) 대구의 9 문중 11개 마을 30인이 모여 이락서당을 지어 한강과 더불어 낙재의 학문과 사상을 계승하며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

한강이 대구사회에 끼친 영향을 살펴볼 수 있는 또 다른 증거로 '대구십현(十賢)'을 들 수 있다. 서구 이현동 산 122번지, 서구문화회관 앞 녹지대 일명 '배고개 언저리'에는 2008년 달성유현승모회(이하 승모회)가 건립한 달성유현승모비(達城儒賢崇慕碑)가 있다.

'달성'은 대구의 별호(別號)이고, '유현(儒賢)'은 유학에 정통하고 어질며 총명한 선비를 말하는 것이니, '대구에 살았던 유학에 정통한 선비를 우러러 사모하는 빗돌'이라는 뜻이다. 달성유현승모비가 기리는 대구 십현은 1529년(중종 24)부터 1665년(숙종 6)까지 136년 동안 대구에서 활동한 유학자로 임진왜란, 정유재란, 병자호란 등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충의(忠義)로 활동하거나 지원하는 일에 동참한 선비, 그리고 인재양성과 민심순화에 이바지한 분들이다.

일직인 줄암(拙菴) 손단(孫湍, 1626~1713)의 (가)『유현록(遺賢錄)』에 12명, 인천 채씨 (나) 택고문서(宅古文書)『덕행록(德行錄)』에 10명, 순천인 도곡(陶谷) 박종우(朴宗祐, 1587~1654)의 (다)『도곡문집(陶谷文集)』에 '달성10현'이라는 이름으로 10명이 등재되어 있다.

이들 세 자료(가+나+다)에 모두 포함된 분은 정사철, 곽재겸, 서사원, 손처눌, 채몽연 등 5명이고, 유현록과 택고문서 두 자료(가+나)에 포함된 분은 주신언, 채선각, 도성유 등 3명이며, 택고문서와 도곡 문집 두 자료(나+다)에는 채응린, 유현록과 도곡 문집 두 자료(가+다)에는 도여유, 유현록, 단독 자료에 정광천, 정수, 서시립 3명이고, 택고문서 단독 자료에 류시번이며, 도곡 문집 단독 자료에는 박수춘, 서사선, 박종우 등 3명으로 도합 17명이다.

승모회는 이들을 일러 '달성십현(達城十賢)'이라고 부른다. 성씨별로는 신안주씨, 1명(주신언), 인천채씨 3명(채응린, 채선각, 채몽연), 동래정씨 3명(정사철, 정광천, 정수), 현풍곽씨 1명(곽재겸), 달성서씨 3명(서사원, 서시립, 서사선), 일직손씨 1명(손처눌), 문화류씨 1명(류시번), 성주도씨 2명(도성유, 도여유), 밀양박씨 1명(박수춘), 순천박씨 1명(박종우) 등이다. 이들은 당시 대구사회의 공론을 주도한 사림들이었다.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번호	이름	본관	생몰연도	아호	행적	저서	제향서원
1	주신언(周愼言)	신안	?	송재(松齋)	교화	-	-
2	채응린(蔡應麟)	인천	1529~1584	송담(松潭)	덕행, 교화	『송담실기』	서산서원 유호서원 현 : 무
3	정사철(鄭師哲)	동래	1530~1593	임하(林下)	의병장, 교화	『임하문집』	금암서원
4	곽재겸(郭再謙)	현풍	1547~1615	괴현(槐軒)	의병장, 교화	『괴현집』	유호서원
5	서사원(徐思遠)	달성	1550~1615	낙재(樂齋)	의병장, 교화, 덕행	『낙재집』	구계서원, 구암서원
6	채선각(蔡先覺)	인천	1552~1598	동호(東湖)	의병, 유행	-	-
7	정광천(鄭光天)	동래	1553~1594	낙애(洛涯)	의병, 효행	『낙애집』	금암서원
8	손처눌(孫處訥)	일직	1553~1634	모당(慕堂)	의병장, 교화	『모당집』	청호서원
9	채몽연(蔡夢硯)	인천	1561~1638	투암(投巖)	의병, 교화, 덕행	『투암집』	소암서원
10	류시번(柳時藩)	문화	1569~1640	사월당(沙月堂)	덕행, 교화	『사월당집』	청호서원
11	도성유(都聖俞)	성주	1571~1649	양직당(養直堂)	의병, 교화	『양직당집』	용호서원
12	박수춘(朴壽春)	밀양	1572~1652	국담(菊潭)	의병, 교화	『국담집』	남강서원
13	정수(鄭錘)	동래	1573~1612	양졸재(養拙齋)	유행	『양졸재실기』	오양서원
14	도여유(都汝俞)	성주	1574~1640	서재(鋤齋)	의병, 교화	『서재집』	용호서원
15	서시립(徐時立)	달성	1578~1665	전귀당(全歸堂)	효행, 덕행	『전귀당집』	백원서원
16	서사선(徐思選)	달성	1579~1651	동고(東臯)	의병, 교화, 덕행	『동고집』	옥천사
17	박종우(朴宗祐)	순천	1587~1654	도곡(陶谷)	의병, 문예	『도곡집』	-

자료 출처: 달성유현승모회

관찬(官撰)의 공식 문서가 아니고, 개인 문집에 수록된 자료로 현풍 등 달성군 지역의 인물이 빠져있고, 대상이 될 만한 일부 인물이 제외되어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대구를 대표하는 십현 17명 중 주신언, 채응린, 정사철 3명을 제외하면 14명이 한강의 제자라는 점이 그가 대구 유학에 미친 영향력을 짐작하고도 남는다.

그들은 학덕이 출중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을 교화한 모범적인 삶을 산 이들이다. 그리고 임란 등으로 나라가 위태로운 처지에 놓였을 때는 국난극복에 앞장섰

다는 점에서 사표로 삼을 만한 이들이다. 특히 정사철, 서사원, 손처눌 세 분은 임란 때 의병대장으로도 활동했다. 다시 말해서 높은 학문을 성취하였음에도 나라의 어려움 속에서 힘든 이웃을 외면하지 않는 모범적인 삶을 산 것이다.

그들의 선행은 당대뿐만 아니라, 사후에도 계속 존경받고 있다. 그것을 다수의 십현(十賢)이 서원, 사당 등에 배향되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 이들의 철학은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 그 단초는 한강의 학문과 사상에 서 찾을 수 있다.

둘째,

한강의 학문이 성주에서 시작하여

북구 사수에서 완성되었다.

한강은 본래 김천 수도산의 산수 좋은 곳 무흘정사에서 만년을 보내기로 했다. 그러나 한때 동문수학했던 정인홍과의 갈등, 박이립의 무고 등으로 몹시 괴로웠다.

70세가 되던 1612년(광해군 4) 팔거현 노곡(蘆谷 현, 칠곡군 왜관읍 낙산리 가실성당 부근)으로 거처를 옮겼다. 그러나 뜻하지 않게 불이나 집이 잿더미로 변하고 많은 저서와 서적이 불타고 만다. 1614년(광해군 6)

72세의 노구를 이끌고 다시 옮긴 곳이 팔거현 사빈(泗濱, 현, 대구시 북구 사수동)이다.

그해 아들 장(樟)이 죽고, 다음 해에는 풍질(風疾)로 몸이 불편하게 되었다. 그런데도 강학과 저술 활동을 멈추지 않았으며, 1617년 7월 20일 75세 때에는 동래 온천을 다녀왔다. 물길 710리, 물길 20리 등 730리에 이르는 먼 길이었다. 한강의 이 선유(船遊)는 병을 치료하려는 목적으로 있었지만, 영남 일대 한강학파의 결속을 다지는 기회를 만들려는 의도도 있었다.

사수에서 6년은 사빈서재와 사양정사에서 제자를 양성한 이외 일두 정여창의 실기, 학봉 김성일의 행장을 완성한 것과 더불어 그가 평생을 추구했던 예학 관련 저서 『오선생예설』, 『예기상례분류』, 『오복연혁도』을 마무리하여 남인 예학의 종장(宗匠)이 되었다. 더 나아가 조선 후기 정약용으로 이어지는 실학에 초석을 놓고 영남학을 근기 즉, 경기 서울지역으로 확산시켰다. 이런 면을 볼 때 한강이 태어난 성주가 한강학의 발상지라면, 만년을 보낸 북구 사수는 한강학의 완성처라고 할 수 있다. 대구를 문향(文香)이 넘치는 도시로 만들고 올곧은 시민 정신을 함양하게 하는 바탕을 마련했다.

한강은 마을 이름 사빈(泗濱)을 공자의 출생지의 강 이름과 같은 사수(泗水)로 바꿈으로 이곳을 조선 유학의 본향으로 삼고자 했다. 다시 말해서 한강은 최근 대구 교육청이 내건 슬로건 ‘대한민국교육수도 대구’의 씨앗을 뿐였다. 즉, 오늘날 대구교육은 외형적으로는 최초의 사립학교 연경서원 설립이 토대가 되었고, 그 내용을 채우는 소프트웨어는 한강의 학문과 철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뜻에서 공원을 조성하여 한강을 기리는 일은 대구시민으로서 당연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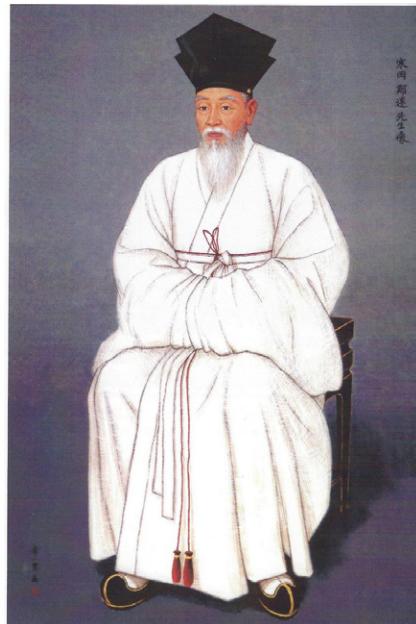


사진 5. 한강 정구 선생상(출처=청주 정씨 문목공 대종회)

문화예술을 담는 만만한 그릇

함지 

함지

문화예술담론지 함지

Vol.6

발행인 문화예술담론지

배광식 함지는

1년에 2번 발행합니다.

편집인 (비매품)

이태현

발행일

2022년 12월 26일

『함지』에 실린 글과 사진, 그림 등은

(재)행복북구문화재단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함지』에 실린 글은 모두

필자 개인의 의견임을 밝혀드립니다.

편집위원

강효연, 김정학, 김종기, 박미영,
오레지나, 유슬아, 이재진, 최주환

『함지』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재)행복북구문화재단으로

신청바랍니다.

T. 053-320-5128

편집기획

김병수, 황영미, 서효봉, 김민정

편집디자인·제작

상상146

발행처

재단법인 행복북구문화재단

대구광역시 북구 구암로 47

T. 053-320-5120

www.hbcf.or.kr